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4

第23卷 第1號 通卷 25號

濟衆新編序

天地之大德曰生既生生之矣厚生保生之道惟食
與藥而必資於聖人之代其工是故農嘗際於教耕
軒問並於畫井醫之有關於贊化育已自遠古而然
也我

聖上粵在

先朝侍湯之暇深推斯民廣庇之仁使太醫康命吉就
古今諸方按源窮委委繁補漏候陰陽而辨內外該
診息而括經驗分門彙類提綱挈維雖遐鄉窮鄙之
民一開卷亦自瞭然於對證之劑書凡八編至是告

濟衆新編序

成命曰濟衆新編開印內閣廣布中外以臣提舉內
局 命序之臣竊念堯舜大聖也博施濟衆其猶病
諸夫二帝之治蕩乎巍乎熙如皞如皞如薄海蒼生咸囿
耕鑿之樂豈有一夫之不濟特聖不自聖自視歆然
故夫子言其病諸者乃所以滾讚其能事極功之底
於濟衆也恭惟

殿下政先重農德洽惠鮮歛福錫福厥民用康而猶恐
夫病於廣濟拳拳垂意於斯編者如此

殿下之心即堯舜之心而厚生保生之德其將同歸於
天地生物之仁猗歟盛哉傳曰其數可陳也其義難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年 10月 7日 創立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4

第23卷 第1號 通卷 25號

濟衆新編序
天地之大德曰生既生生之矣厚生保生之道惟食
與藥而必資於聖人之代其工是故農嘗際於教耕
軒問並於畫井醫之有關於贊化育已自遠古而然
也我
聖上粵在
先朝侍湯之暇滾推斯民廣庇之仁使太醫康命吉就
古今諸方援源窮委委繁補漏候陰陽而辨內外該
診息而括經驗分門彙類提綱挈維雖遐鄉窮鄙之
民一開卷亦自瞭然於對證之劑書凡八編至是告
濟衆新編序
成命曰濟衆新編開印內閣廣布中外以臣提舉內
局 命序之臣竊念堯舜大聖也博施濟衆其猶病
諸夫二帝之治蕩乎巍乎熙如皞如皞如薄海蒼生咸囿
耕鑿之樂豈有一夫之不濟特聖不自聖自視歆然
故夫子言其病諸者乃所以滾讚其能事極功之底
於濟衆也恭惟
殿下政先重農德洽惠鮮歛福錫福厥民用康而猶恐
夫病於廣濟拳拳垂意於斯編者如此
殿下之心卽堯舜之心而厚生保生之德其將同歸於
天地生物之仁猗歟盛哉傳曰其數可陳也其義難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年 10月 7日 創立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23권 제1호 통권 25호 2004

目 次

▶ 卷頭言	邊榮男 (6)
▶ 풍속발치(風俗拔齒)에 관하여.....	이병태 (7)
▶ 경성치과대학 연혁사	신재의 (11)
▶ 서울시 학교 구강보건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역할	변영남 (19)
▶ 한국 치과 교육기관의 설립과 발달	김평일 (29)
▶ 전쟁과 치과.....	조영수 (45)
▶ 20세기 초반 미국의 치의학 교육 개혁과 구강과 운동	조영수 (57)
[資 料]	
▶ 周大成的 풍속발치론.....	이병태 외 (73)
▶ 세계 치과 우표	김재성 (77)
▶ 學會消息.....	(93)
▶ 會員動靜.....	(95)
▶ 任員名單.....	(97)
▶ 投稿規程.....	(98)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23., No. 1. Series 25. 2004

Contents

- President addressByun Young Nam (6)
- Manners and Customs of Extraction(MCE)Lee Byung Tae (7)
- History of the Kyung-sung Dental CollegeShin Jae Eui (11)
- Historical Background in School Health Education
of Seoul City.....Byun Young Nam (19)
- The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Dental
Educational in Korea.....Pyung Il Kim (29)
- War and Dentistry Cho Young Soo (45)
- Dental Education Reform and Stomatologic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 1910~1935Cho Young Soo (57)
- Manners and Customs of Extraction by Zhou Da-cheng ...Lee Byung Tae et al (73)
- Dental a Postage Stamp of World..... Gim Jae Sung (77)
- KAHD News.....(93)
- Reference Materials.....(95)
- A list of KADH an Officers.....(97)
- Rule of Contribution(98)

〈卷頭言〉

의사의 사회적 권위를 위해 인성교육도 치과범주 안으로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邊 榮 男

전문치의학대학원 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 인턴 수련의 부터 치과전문의제도가 도입되는 등 치과계의 제도나 주 위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대 교육제도만 하더라도 이제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으로 2005년도부터 이 제도에 의거 학생이 선발됐고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4년간 치 의학교육을 받는 전문대학 체제하에서의 교육이 자칫하면 순수한 치의학전문 교육면에서는 예과 2년을 거치는 것 보다 강의시간이 부족하 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임상중심 교육이 되면 전문지식 교육에 치우쳐 시간부족을 이유로 인성교육 분야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치과의사에게는 최고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자와의 신뢰감과 의사의 사회적 권위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 않게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학 강의는 꼭 필요한 과 목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가치관을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치의학이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 고 이를 거울삼아 부족한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를 지켜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회지에는 그동안 정성스럽게 수집해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치의학 관련 우표를 치의신보에 시리즈로 연재했던 김재성 원장님의 도움으로 역사 우표 16쪽 정도를 우선 게재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큰 반응을 일으 키리라 기대해 봅니다.

열약한 학회이다 보니 학회지 제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십시일반 광고를 협조해 주신 관련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재성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풍속발치(風俗拔齒)에 관하여

이 병 태*

차 례

1. 풍속발치를 명명하면서
2. 풍속발치의 종류
3. 풍속발치의 전래
4. 발치남성과 풍속발치여성
5. 맺음
6. 참고문헌

1. 풍속발치를 명명하면서

풍속발치라는 용어 이전에 이미 발아습속(拔齒習俗)과 풍습발치(風習拔齒)라는 용어가 있다. 발아습속은 중국용어이고 풍습발치는 일본용어이다. 이 두 용어에서 拔齒나 拔牙를 제외하면 習俗과 風習이 남는데 우리한테 이 두 단어보다 風俗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다. 실제로 풍속도·민족풍속·풍속놀이·풍속춤 등 風俗이란 말이 도처에 배어 있다. 그래서 필자는 風俗拔齒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고고학·미술사 분야에서 동일한 유물이나 기법에 대해 일본용어와 중국용어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용어를 채택하고 있다.¹⁾

2. 풍속발치의 종류

저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고학분야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풍속발치의 종류는 문헌²⁾을 통해 다음처럼 열거하였다.

- 성인발치(成人拔齒) :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발치.
- 혼인발치(婚姻拔齒) : 결혼날을 받았거나 약혼날 여성에게 하는 발치.
- 혼사발치(婚事拔齒) :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부인에게 하는 발치.
- 귀부인발치(貴婦人拔齒) : 관료부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발치.
- 관료발치(官僚拔齒) : 관료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발치.
- 복상발치(服喪拔齒) : 부모 喪을 당하여 아들과 며느리가 관(棺)에 넣기 위해 하는 발치
- 참군발치(參軍拔齒) :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유치를 발치하는 것.
- 부족발치(部族拔齒) : 종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발치.
- 복약발치(服藥拔齒) : 입이 벌어지지 않는 환자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전치를 발치하는 것.
- 심미발치(審美拔齒) : 여성들이 미적(美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발치.

*李丙台 : 이병태치과의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사학 담당 시간 강사

3. 풍속발치의 전래

원시시대와 석기시대에 시행되던 풍속발치는 출토된 人骨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풍속발치는 중국 대륙에선 한족(漢族)을 제외한 소수민족이나 부족 사이에서 상징과 표시 방법의 하나로 행하여졌으며 우리 한민족(韓民族) 간에는 없었다.³⁾ 이 견해를 따른다면 한국 고고학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만일 낙랑발치⁴⁾와 삼천늑도¹⁾발치·김해예안리발치⁶⁾·만수리발치⁷⁾가 풍속발치라면 이는 각각 북방과 남방에서 유입된 문화로 보아야 한다. 풍습발치는 중국과 일본에서만 있었다⁸⁾는 연구가 뒷받침한다. 그러나 복상발치(服喪拔齒)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⁹⁾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풍속발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자료와 여구가 희소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외세에 시달렸던 일제강점 36년과 6.25전쟁 폐해에 따른 격동속에 이 분야에 독자적인 연구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최근 고고학계에서 우리나라의 풍속발치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가 발표된 일은 치의학계에도 새로운 한 면을 기록¹⁰⁾하게 하였다.

4. 발치남성과 풍속발치여성

풍습발치는 오늘도 세계의 오지에서 원시적 생활을 하는 소수민족한테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풍습발치는 특수목적 때문에 했으나 동양권에서 남성에게 발치는 거세(去勢)로 간주되었고 발치를 포함한 치아의 탈락(脫落)은 기력(氣力)의 소멸로 보았을 뿐 아니라 생명의 단축으로 보았다. 군대의

경우 지휘관의 발치는 대외비였고 군왕(君王)의 발치는 절대비밀이어야 했다.³⁾

대부분의 풍속발치는 젊은 여성이나 부인에게 해당되었는데 이는 인간 생활에 묘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군왕이나 군수장의 발치는 비밀이며 부녀자들의 발치는 내놓고 하는 것은 시대적이고 풍속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풍속발치가 없는 반면에 이웃 어느 나라에서는 월내에 발치한 궁녀를 두었으며³⁾ 현재 중동 지역 어느 곳에서는 젊은 여성의 전치들을 발치시키는데 이것은 순전히 남성의 쾌락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¹¹⁾

5. 맺 음

풍속발치후 동통제거 및 지혈 등 앞으로 국내외 풍속발치관련 연구를 기대한다.

풍속발치는 고대 발치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풍속발치는 인문발달에 한 단계로 본다.

참고문헌

1. 李蘭英 : 개인면담
2. 周大成 : 中國口腔醫學史考, 人民衛生出版社 1991.2. pp.19-22.
3. 李漢水 : 개인면담
4. 今村豊 : 樂浪古墳骨の一例(豫報), 人類學雜誌, 48:38-42.1933.
5. 金鎮晶, 小片丘彦·峰和治 : 三千浦市 遺蹟出土人骨豫報, 伽倻通信 第17輯, 1986.
6. 金鎮晶, 小片丘彦·峰和治, 竹中正巳, 佐熊正史; 徐始男: 金海禮安里古墳群 出土人骨(II), 1993, pp.294.
7. 宋義政, 金宰賢, 朴永萬 : 萬樹里 2號墳 1號 甕棺出土人骨에 對하여. 考古學雜誌 第1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02.12. pp.25-33.
8. 小金井良精 : 日本石器時代の 齒牙の 變形 風習に就て, 人類學研究, 東京, 大山書店, 1943.

9. 김재현 : 人骨로 본 고대 한일 관계사, 韓國古代史
研究 27호 한국도개사편, 2002.9. (별쇄) pp.332.
10. 奇昌德 : 增補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6.

pp.4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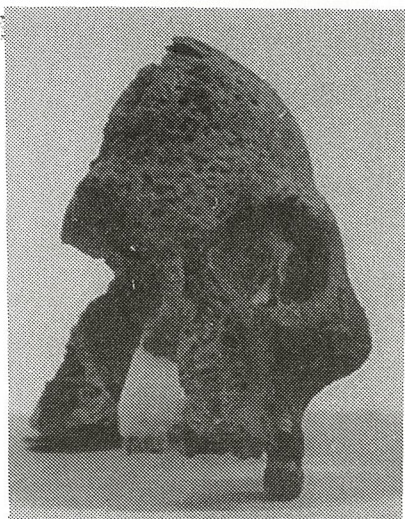
11. 愼德緯 : 개인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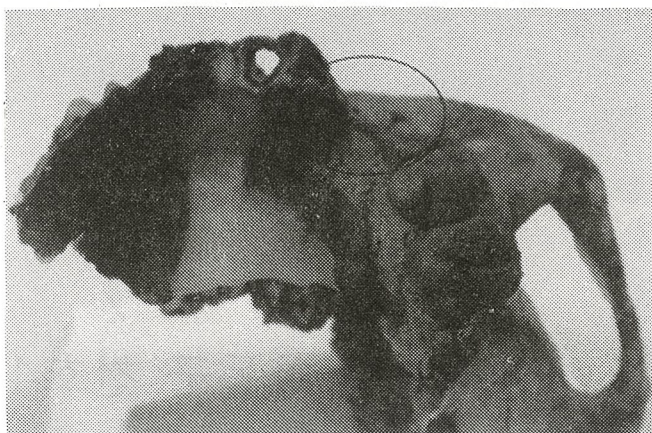
출토당시 (1982년) 두개골



두개골 측면 (보존처리 후)



두개골 정면 (보존처리 후)



발치 부위

인용(전재) : 참고문헌 7번과 같습니다. 宋義政·金宰賢.....pp 32. 33

發 祝 展

마스타치과기공소

Master Dental Laboratory

임프란트, 심미보철을 전문으로 보다
정확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4동 358-14

공동대표 : 김 명 배 · 김 진 만

TEL : (02) 447-2891

FAX : (02) 478-2891

경성치과대학연혁사

신 재 의*

이 책은 일제강점기 경성치과의학교 ·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관한 회고록과 좌담회로 구성된 책이다. 치과의사인 김종만 선생께서 소장하던 책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다.

회고록은 아래와 같이 8편이다.

추억의 기록 -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재한 25년의 추억이야기 -야오 타로(矢尾太郎)
경성부속의원의 창설 - 오카다 시로(岡田四郎)
추억의 수기 - 오카다 시로(岡田四郎)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추억
- 카키미 요조(垣見庸三)
경치의 추억으로부터 - 리 타케시(堀武)
타카시마 요시우도(高島義人)
쇼오후우회장 경성치전 교수임명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그리고 좌담회는 1940년 초에 3차에 걸쳐 행한 여진 것이다. 좌담회의 내용에는 좌담회에서 다하지 못한 말은 후에 문서로서 추가하여 보충한 내용이다. 여기 번역하여 소개하는 글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추억의 기록과 약력이다.

추억의 기록

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번역 신 재의(辛在義)

1. 가출 · 고생 · 밤 우동 장사

나의 집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했다. 형제는 4명으로 큰 형님은 현재 85세, 둘째 형님은 82세, 셋째 형님은 79세, 넷째인 나는 76세로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4명의 형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떨까 하여, 나는 고등소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배웠다. 밤에는 한문 강의를 들으러 나가기도 했다.

그 무렵 둘째 형님이 분가하여 신축가옥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이 시기를 가출할 기회로 생각했다. 모두 건축현장에 나간 어느 날 나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여 집에 남았다. 큰 형수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장롱 속에 돈을 넣어 두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속에서 50원을 무단으로 빌려서 집을 몰래 뛰쳐나왔다. 5-6정은 떨어진 곳에 후지이(藤井) 사촌이 살고 있었으므로 그를 불렀다. 그에게 쓰야마정(津山町)까지 배웅을 받았다. 과수꾼 역을 의뢰한 셈이었다. 지금은 쓰야마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기억을 위해 둘이서 사진촬영을 했다.

나는 기차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다. 사촌인 후지이(藤井)에게 역에 가서, 나를 데리러 아버지가 와 있지는 않을까 살펴보게 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와 있지 않다고 했다. 그곳에서 교토(京都)까지 표를 사서 승차하였다. 후지이와는 서로의 건강과 장래

*신재의치과의원

의 발전을 빌며 우리들은 헤어졌다. 기차에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아키이시(明石)의 해안의 소나무와 바다를 보는 것도 신기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크게 유쾌함을 느끼면서 또한 앞으로의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교토로 향했다.

교토(京都)에는 다카쿠라(高倉) 출신의 선생이 교토부립제1중학교 체조 선생을 하고 계셨다. 이 선생 덕이 교토 강변 3조상루 단왕사(檀王寺) 경내에 있다고 들었다. 선생에게 이후의 공부 방법에 관해서 상담할 생각으로 교토에 오게 된 것이다. 열차가 교토 역에 도착한 것이 8시 지나서였다. 교토 역 앞의 지금도 있는 미야모토(宮本)여관에 들어가 숙박료가 얼마인가 물었다. 60전이라고 하여 여기서 묵었다. 다음날 숙박비를 지불하려고 하니 70전이라고 하였다. 어제 밤에는 60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였더니, 결국 60전을 지불하고 나왔다. 처음 기차에 탔고, 또 여관에 처음 묵었으므로, 요즘 말하는 ‘팁’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 어쩔 수 없었다.

아침 일찍 강변 3조상루 단왕사 경내에 주거하고 있는 마키(眞木)선생을 먼저 방문하여, 이후의 방침을 의뢰했다. 마키선생은 한동안 자신의 집에 있으라는 것이었다. 마키선생은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경도에 와 있다고 알리셨다. 아버지는 나를 만나서 데리고 가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교토에서 공부하기 위해 일부러 가출을 한 것이니 마키선생에게 잘 의뢰하고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겨우 교토에 있게 되었다.

마키선생은 “자네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나는 어떤 곤란에도 이겨낼 결심이기 때문에 “선생의 명을 절대 엄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밤 우동 장사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다. 다음날부터 밤 우동 장사가 되어 밤 7시 무렵부터 인력거를 끌고 하루도 빠짐 없이 키야정(木屋町), 센토정(先斗町)을 주로 다녔다. 내가 18세 때였다. 키야정, 센토정 주변에서는 내가 어린 학생이라 하여 동정심으로 상당한 우동을 팔 수 있

었다. 1906년 4월부터 8월 초까지 매일 매일 하루도 쉬는 일 없이 열심히 일했다.

2. 치과에 뜻을 두고, 램프를 가지고 진료하다.

1906년 8월에 마키(眞木)선생이 “자네 치과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마침 교토 강변 3조상루에 묘가(苗加)치과의원의 출장소가 있어, 아침 8시경부터 밤 6시경까지 묘가(苗加)선생이 진료를 하였다. 나는 조수로서 모든 일을 도왔다.

선생이 교토치과학교에서 자택으로 귀가한 후 7-8명의 환자가 더 온다. 강변 3조상루에 묘가(苗加)치과의원에는 선생의 모친과 이혼한 35-36세의 선생의 딸이 있었다. 그 당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따님이 램프를 들어 조명을 하면 내가 치료를 하였다. 10시경 겨우 진료를 마쳤다. 그 이후부터가 나의 공부시간이었다.

3. 고학·치과의사시험에 합격

옛날부터 독서백편이면 저절로 뜻을 안다는 말이 있다. 나는 아주 빠르게 치과학에 관한 서적을 샀다. 밤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끝내고 6시부터 8시경까지 공부했다. 나는 선생에게 질문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즉 독서백편주의로 우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5회 정도 봉독을 했다. 이것으로 대강의 의미를 판명한다. 그 후 필요한 점을 암기하고 대부분 모든 책을 30회는 읽었다. 그 후 30회 읽기와 필요한 점을 페이지를 덮고 암기하여 완전하게 이해가 되면 다음 페이지로 가는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공부했다.

1908년 4월에 문부성 의술개업시험이 있었다. 묘가(苗加)선생에게 1개월의 휴가를 받아, 하숙을 하며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조용히 낭독했다. 하숙의 아주머니가 말하길, “참새가 종일 지저귀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 1개월의 공부로 무슨 책의 몇 항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책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4월이 되었다. 치과의사시험이 교토의 어

는 곳인지 잊었지만, 그 곳에는 90여명의 수험생이 모였다. 모두 상당한 연령의 사람뿐이고 내가 최연소자였다. “나는 이번으로 10회째의 시험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드디어 시험장에 들어가 인쇄된 시험문제를 받았다. 그 당시는 지금 같은 펜이나 볼펜 등이 없는 때여서 붓으로 한지에 답을 썼다. 나는 문제의 용지를 받고 반지 6매정도 척척 썼다. 공부를 잘 해두었다고 그 때 절실히 느꼈다.

오전과 오후의 시험이 끝나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긴장했으므로 몸이 녹초가 되었다. 옆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많이 피곤하지요” 하며 좋은 녹차를 2-3배 대접해주었다. 완전히 전신의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지만 이 녹차로 원기가 회복된 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드디어 발표가 나자 겨우 2명만 합격했다. 그중 한사람이 나였다. 정말로 그 때의 기분은 아직도 남아있다.

같은 해 12월 실기시험이 오오사카의 쇼보(緒方) 병원 내에서 실시되었다. 하루에 실기시험을 모두 끝냈다. 실기시험의 성적 발표는 수일 후였지만 이것도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했다. 학설과 실기시험을 모두 1908년 11월에 합격했지만, 만20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합격 증서를 받을 수 없었다.

1909년 10월21일 치과의적에 등록 되었다. 치과의적 등록번호는 11125호였으므로 나보다 적은 번호의 사람으로 현존하는 사람은 아마 100인 내외일 것이다. 그 후 나중의 일은 이력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총독열전

나는 조선에 부임 한 후 9대의 총독의 치아를 치료했다.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총독도 있었다.

내가 부임했을 때의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키(寺內正毅) 육군원수였다. 아주 엄격하나 온정에 찬 총독이었다. 데라우치 마사키(寺內正毅) 총독에게 치주질환이 있어 나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관저에 왕진하러갔다. 내가 총독의 치료를 끝내면, 응접실

에서 홍차와 다과의 향응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매우 추운 날에는 부관을 불러 브랜드를 가지고 오게 하여 “오늘은 추우니까 선생 브랜드를 마시게” 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 무렵 조선 13도에 도립의원이 있어 치과의도 한명씩 채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관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모두 촉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다. 어떤 때인가 “각 도립의원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의만이 촉탁이고 다른 직원은 고등관판 임관 이어서 치과의 불만이 많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 해 4월 각 13도 판임관 13명을 관제 개정하여 전국에서 치과의가 판임관에 임명되었다. 이 때 데라우치 마사키(寺內正毅) 총독이 나의 진언을 즉각 인사부에 명령해서 관제를 개정했다고 생각된다.

우가키(宇垣) 총독, 이마이 타마사(今井田) 정무총감은 동현인으로 일본에서 시부사와(澁澤)씨가 관저에 초대되었을 때에 나도 초대되었다. 나가야카와(谷川) 총독에게는 총의치를 만들어 주어 매우 기뻐하였다.

고이소(小磯) 총독이 조선군사령관 시대부터 관저에 다카난(高楠) 산부인과 과장과 들어서 자주 초대되어 술을 마셨다. 11시경까지 많이 마실 때는 군사령관의 자동차로 자택까지 태워 주었다. 조선 신궁의 아래에 나의 집을 신축하고 있었던 일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총독이 된 후 어느 때인가 고이소(小磯) 총독을 총독부로 방문하여, “한번 나의 집으로 부인과 들어서 12시경에 오실 것”을 제안했다. 총독이 오시면 순사가 집 주위를 경비하기 때문에 순사가 경비서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이야기 했다. 그러자 들어서 오겠다고 했다. 총독부처가 정시에 오셔서 2층에 안내하여 아내의 요리로 6시까지 먹고 담소했다. 물론 총독은 민간인의 집에는 절대 가신 적이 없었다. 아주 이례적인 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나미(南) 총독도 이가 나빠 상악의 앞니 6개가 흔들흔들했다. 발거하고 총의치를 만들 수밖에 방

법이 없었다. 오전 8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특진실에서 한번에 6개를 빼고, 즉시 인상을 뜨고, 교합을 채득하고, 시적을 끝내고, 상하의 총의치를 하루 안에 끼웠다. 오늘밤은 무슨(撫順)으로부터 불닭을 받았기 때문에 먹어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다음날에 한번 세조하고 아주 잘 맞았다. 이처럼 나는 역대 총독의 주치의였다.

그 외의 총독에 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한다.

5. 좌담회에서 누락된 이야기에 관한 것들

그런데 좌담회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의 교사도 완성되고 교수진도 갖추어졌다. 그 이상은 뭐라 말해도 각 교수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이것을 항상 외치고 연구를 권장했다. 나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있을 무렵부터 수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다. 마침 경성대학(京城大學)의 약리학의 스기하라(杉原) 교수, 츠사키(津崎) 교수 그 외에 다른 우수한 교수가 강의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아 훌륭한 논문을 발표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일본에서 최후에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일본 본국의 학교에 뒤쳐지지 않도록 연구업적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최초로 내가 학위를 획득하고, 다음에 야오 타로(矢尾太郎), 카키미 요조(垣見庸三), 니시야마 유키오(西山幸男), 히로타 세이이찌(弘田精一), 호리 타케시(堀武) 등이 의학박사의 학위를 획득했다. 실험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가 있으면 즉시 지불하고, 각 교수 및 조교수의 요구에 응해줄 셈이었다.

전문학교가 되고나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에도 배속장교가 배치되어, 아마도 최초로 우미타(海田) 중좌가 배치되었다. 그 조교로 오하타(小幡) 중위, 와타나베(渡辺) 대위가 있었다. 퇴역한 와타나베 대위는 학생주사로서

전심으로 일에 임하셨다. 나는 학교교련을 가장 중시하고, 배속장교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생을 지도하도록 의뢰했다. 때문에 그 성적은 우수했다. 많은 학교 사열 때는 대체로 사단장이나 조선군참모장이 와서 사열을 하는 것이 예이지만, 나의 학교에는 군사령관이 온 적도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이하 각 전문학교 가운데 경성치과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평이었다.

“내가 학교 교련에 왜 중점을 두었는가?” 하면, 학교는 경성시의 중심에 있고 학생의 일거일동이 주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교련에 의해 규율을 좋게 하여 일반사회의 악평을 듣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이었다.

1934년부터 1945년의 종전 때까지 학생을 교정에 모으고, 조례 훈시를 하였다. 그때 학생 앞 높은 단상에서 학생이 규율을 어지럽히고 군사교련의 명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철권을 주어도 지장이 없었다. 단 사적인 감정은 불가하였다. 그 책임은 학교장이 책임진다는 강한 훈시를 하였다. 그 시절 소집되어 경성의 사단에 온 병졸이 시내를 보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맨손으로서 검도 철폐도 들고 있지 않은 맨손이었다. 이미 일본에서 제작되는 무기가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6. 종전 · 뒤처리

1945년 8월15일 정오 마침내 중대발표가 있었다. 조선호텔에서 로타리클럽 회의가 있었다. 정오 천황폐하의 전쟁 종결 조서를 라디오를 통해서 일동 기립하여 경청했다. 오후 3시경부터 시내에 시끄럽고 불안한 생각을 엄습하게 했다. 22-3일경 우선 첫 번째로 경성제국대학이 학생에게 탈취되어, 교수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폐쇄상태였다. 그 외에 관립전문학교, 사립전문학교도 역시 학생이 탈취하여, 한명의 직원도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단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만은 학생의 진입도 없고 조용했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조선 유일

의 치과교육기관을 만들어 일본인과 한국인의 남녀 공학 학교를 세웠다는 것을 학생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었다.

8월16일부터 모든 학교에서의 학교교육은 휴교였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직원은 매일 나와 오후 5시경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치과의학전문학교의 학생 수명을 교장실로 불렀다. “대학병원을 폐쇄하고 있는 것은 인도(人道) 문제다. 환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대학의 중요한 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학생수명이 왔다. “자네들은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언젠가 패전의 결과 대학교수도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후에 조선인 조교수 조수에 의해 의학의 진흥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수를 대학에 등교하게 하고, 장래의 의학에 관해 충분히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자네들에게 득이 아닌가?” 하고 약 한시간반 설득하여 적어도 병원만이라도 즉시 개원하여 진료에 종사하도록 이야기했다. 학생도 나의 의견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부터 대학병원도 개원하고 의학부의 교수들도 각 교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전문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직원들은 학교의 학생에게 맞는 사건도 있는 상태였다.

나는 미국 치과의학에 관해서는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직원에게도 그 취지를 매일 이야기했다. 11월경 어느 졸업생이 와서 “일본인 선생은 전부 송환하는 것 같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 시기 경성에 주재하던 일본인의 반수는 귀국을 하였다. 그래서 나도 결국 귀국할 것을 결심했다.

교직원 전부를 교장실로 모으고 일본인은 일본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영문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교장, 교수, 재단이사였다. “미국식으로 이른 바 민주주의 투표에 의해 결정하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고심하며 여기까지 해왔고 부모의 재산을 아이에게 양도하는 것

과 같다. 괜찮다면 내가 교장, 교수, 조교수, 재단이사, 감사를 임명하고 싶다. 모두의 의견은 어떤지. 솔직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 달라”고 했다.

일동은 교장선생이 지명하면 아주 좋겠다고 일임했다. 그래서 교장에 박명진 교수, 이사, 감사도 지명하니 모두 좋은 마음으로 승인해주었다. 이것은 나에게도 아주 기쁜 일이었다.

나와 교수, 조교수, 직원, 가족 모두 11월 15-6일 경 용산역을 출발하였다. 우리들은 출발 전일까지 학교에 갔다. 식산은행 차입금도 대강 해마다 지불하고 잔금은 약 9500원 정도였다. 학교 교직원 사환에게 취직연수에 따라 규정의 퇴직금을 급여했다. 당시 학교 예금은 9만여원였다.

당일은 교수회의가 있었다. 때문에 용산역에 학생이 선생을 대신하여 10명 정도 배웅하러 왔다. 서로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그 당시 학생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학교직원이 귀국할 때에 역까지 학생이 배웅한 예도 없었다. 이는 얼마나 교장, 직원, 생도사이의 친밀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나는 아직도 당시를 생각하며 기쁜 감정을 느낀다.

7. 히로타 세이이찌(弘田精一)의 죽음 · 강도에게 습격당하다

단지 슬픈 일 하나가 있었다. 11월 초 히로타 세이이찌(弘田精一)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 히로타 세이이찌는 소리에 잠이 깨어 2층 계단 아래의 다미방으로 내려왔다. 손을 들라고 하여 양손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 저항하지 못한 채 히로타 세이이찌는 등을 나이프에 찔려 죽게 되었다. 아주 유감스런 일이었다. 일본인 경찰도 즉각 귀국했기 때문에, 경찰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다.

히로타 세이이찌가 죽은 다음날이었다. 요시노정(吉野町) 2-105번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응접실에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아내의 양친이 피난해와 있었다. 때문에 아내는 건너편 야마모토(山本)의 집에 놀러가고 장남 미치오(達雄)는 응접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2녀, 3녀, 5녀 그리고 내가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하는 사이에 안쪽 현관에 있던 수화기(受話器)를 들고 6인조 강도가 들어왔다. 당시 소학교 6년인 5녀 토키코(登貴子)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보고 강도가 “이것은 뭐가?”라고 하여, 5녀는 “이것은 전화기”라고 대답했다. 나는 마침 6인의 강도가 서 있는 정면에 위치한 기둥에 기대어 있었다. “자네들은 강도인가? 현관의 앞집에 미군헌병 2사람이 숙박하고 있고, 맞은편에 MP가 있네. 자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줄 테니 가지고 가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면 방으로 안내하라”고 나를 앞세우고 나의 등에 나이프 끝을 대었다. “자네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8조-6조 2칸 연결된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가까운 선반 위에 지갑 2개와 시계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되어 빼앗겼다. 물건은 이미 등산용 배낭에 넣어 졌고, 우리는 2층의 구석에 몰려서 전부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갑 2개와 시계 2개를 빼앗고 다시 응접실로 내려왔다. 앉아있는 5녀를 일으켜 세워, 이불을 내리게 하고 신전에 있던 촛대 등을 보고 현금을 숨겨놓지 않았을까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자 돌아갔다.

다행히 지갑의 하나는 밤에 내어놓아, 강도가 오면 가져가게 할 셈의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약간의 돈밖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아주 적었다. 아내도 미치오(達雄)도 강도가 들어온 것을 완전히 몰랐다. 그러나 등에 칼을 들이대고 있을 때는 그다지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나는 바로 전화를 하여 “지금 나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으니 학교를 충분히 경계하라고 전화했다.” 예측대로 학교에도 3명 정도가 왔지만 학교에는

학생이 수명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휘둘러 쫓아 보냈다. 그날 밤 각 처에서 양철통을 치며 “강도다. 강도다.” 라고 자못 불길한 기분이었다. 내가 연회에 자주 갔던 기라쿠(幾羅具) 요정이 미군 헌병의 사령관과 그 외 다른 장교의 숙소로 쓰이고 있었다. 그 문 옆에 기라쿠(幾羅具)의 가족이 있었다. 다음날 전화해서 가족 모두 기라쿠(幾羅具)의 집에 묵도록 이사했다. 이것으로 한숨을 돌렸다. 완전히 종전 후의 경성시내에는 경찰이 없는 상태였다.

8. 귀국

드디어 출발 날이 왔다. 큰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학교의 충직한 박운기(朴雲基)에게 수레를 끌게 하였다. 용산역에 도착하여 각자의 배낭을 메고 양손에 가방을 들었다. 기차를 타고 8시간 정도면 부산에 도착하지만, 각 역에 정차하므로 시간이 걸리고 어쩔 수 없었다. 승객이 각자 얼마간의 돈을 내어 부탁해서 기차를 발차시키는 상태였다. 때문에 부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3일 정도 걸렸다.

게다가 화물열차로 학교직원 가족 전부와 기라쿠(幾羅具)의 여장(女將) 이하 6명이 겨우 도착했던 것이다. 부산의 학교에서 2박하고, 겨우 교섭해서 일본의 배를 타고, 겨우 안심했다. 그때까지 일정의 불안은 상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루밤 하카타(博多)의 여관에 묵고, 다음날 오후 4시경 무개화차에 모두 탔다. 아마도 11월15-6일의 밝은 달밤에 히로시마(廣島)역을 통과할 때 단 하나 남아있는 교회당이 보일 뿐, 모두 불에 탄 들판이었다. 이 돔(교회당)은 지금도 기념으로 남아있다. 아무리 써도 끝날 것 같지 않으므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한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약력

메이지22년(1889년) 10월5일	오카야마현(岡山縣)에서 태어남
메이지35년(1902년) 4월	고등소학교 졸업
메이지39년(1906년) 8월	경도치과의학교장 보가후사 지로씨(苗加房三郎)를 도와 치과학설 실습을 연구함
메이지41년(1908년) 4월	문화성 치술개업치과학설시험에 합격
메이지41년(1908년) 11월	문화성 치술개업치과실지시험에 합격
메이지41년(1908년) 12월	경도치과의학교부속의원 주임 겸 강사로 근무
메이지43년(1910년) 8월	경도치과학교부속의원 주임 겸 강사 사임
메이지43년(1910년) 8월	동경치과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조수
다이쇼3년(1914년) 1월	동경치과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조수 사임
다이쇼3년(1914년) 3월24일	임 조선총독의원 의원
다이쇼3년(1914년) 3월24일	급 2급봉
다이쇼4년(1915년) 11월10일	대찰 기념장 수여
다이쇼5년(1916년) 4월1일	겸임 경성의학전문학교 조교수
다이쇼5년(1916년) 5월6일	치과장 심득을 명받음
다이쇼5년(1916년) 12월25일	겸임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다이쇼5년(1916년) 12월25일	서 고등관 7등
다이쇼5년(1916년) 12월25일	면 겸관
다이쇼6년(1917년) 4월30일	서 종7위
다이쇼6년(1917년) 12월19일	임 조선총독부의원 부의관 겸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다이쇼6년(1917년) 12월19일	고등관 7등
다이쇼6년(1917년) 12월19일	5급봉 하사
다이쇼6년(1917년) 12월19일	치과장을 명받음
다이쇼8년(1919년) 6월 30일	4급봉 하사
다이쇼8년(1919년) 11월7일	서 고등관 6등
다이쇼8년(1919년) 12월27일	서 정7위
다이쇼9년(1920년) 7월1일	3급봉 하사
다이쇼9년(1920년) 8월18일	봉급령 개정 연봉 2350원
다이쇼9년(1920년) 9월30일	임 조선총독부의원관 (관제개정)
다이쇼10년(1921년) 6월30일	7급봉 하사
다이쇼10년(1921년) 8월20일	치과의사시험 의원을 명받음
다이쇼10년(1921년) 12월31일	6급봉 하사
다이쇼11년(1922년) 7월11일	승서 고등관 5등
다이쇼11년(1922년) 4월25일	경성치과의학교 교원 겸 교장으로 축탁됨

다이쇼11년(1922년) 8월30일 서 종6위
 다이쇼12년(1923년) 8월27일 구주각국으로 출장을 명받음
 다이쇼13년(1924년) 7월14일 조선에 돌아옴
 다이쇼13년(1924년) 12월31일 5급봉 하사
 다이쇼14년(1925년) 10월5일 승서 고등관 4등
 다이쇼14년(1925년) 11월16일 서 정6위
 쇼와2년(1927년) 6월30일 4급봉 하사
 쇼와3년(1928년) 2월27일 서훈 6등 교서보장
 쇼와3년(1928년) 3월30일 승서 고등관 3급
 쇼와3년(1928년) 3월30일 서 종5위
 쇼와3년(1928년) 3월30일 의뢰 면본관과 겸관
 쇼와3년(1928년) 4월28일 서 정5위 (특지)
 쇼와3년(1928년) 5월4일 치과의사시험의원으로 촉탁됨
 쇼와3년(1928년) 6월1일 속령 제96호에 따라 조선총독부의원관제를 폐지함
 쇼와3년(1928년) 10월2일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교 이사
 쇼와4년(1929년) 3월23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장
 쇼와5년(1930년) 9월23일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사장
 쇼와7년(1932년) 4월21일 의학박사 학위를 받음
 쇼와10년(1935년) 10월1일 다년간 직무에 종사하여 정려격동(精勵格動), 요쿠소의 직책에 성적우량을 인정하여,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에 은배 1개를 수여 받음
 쇼와15년(1940년) 10월30일 조선교육에 열심을 다해, 마침내 그 공적을 현저하여 기원 2600년과 교육에 관한 칙어 하사 50주년을 기념하여 목배 1조를 수여 받는 표창의 영광을 얻다.
 쇼와15년(1940년) 11월20일 사무국 훈련부 근무를 명받음 (참사)
 쇼와15년(1940년) 12월14일 국민총력 조선연맹참사를 해속하여 평의원이사를 의속 받음
 쇼와15년(1940년) 12월14일 국민총력 조선연맹사무국 훈련부 근무를 명받음
 쇼와15년(1940년) 12월28일 국민총력 조선연맹사무국 훈련부 방어진도부 근무를 명받음
 쇼와17년(1942년) 7월27일 국민체력관리제도준비조사위원을 위촉받음
 쇼와18년(1943년) 1월21일 국민총력 조선연맹 평위원을 위촉받음
 쇼와18년(1943년) 5월22일 경성부회의원
 쇼와20년(1945년) 1월15일 조선치과의사회장을 명받음
 쇼와20년(1945년) 1월15일 경기도 치과의사회장을 명받음
 쇼와20년(1945년) 4월 동경치과대학 명예회원 추천
 쇼와32년(1957년) 5월 오오사카치과대학 명예회원 추천
 쇼와35년(1960년) 4월1일 경도부 치과의사회 명예회원 추천

서울시 학교 구강보건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역할

변영남*

1. 학교구강보건의 역할과 의의

학교보건의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학교구강보건교육도 그 일환으로 마찬가지로 역할을 해왔다.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일찍이 학교 건강 전담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서울特別市學校保健院)을 설립운영하여 학교보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연구, 검진 및 진료업무를 수행해왔다.¹⁾ 아울러 구강보건도 그 일부로 구강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관리를 통하여 구강병 유병률을 저하시키며 올바른 구강보건지식과 평생 구강보건관리 능력 배양에 중요한 역할²⁾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해 음지에서 활동했던 많은 치과의사에 관한 기록이 정리되지 않고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의 연혁, 업무, 조직등을 정리해 기록에 남기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2. 학교구강보건의 역사적 배경

가. 해방 전(일제 강점기)

-학교치과의 설치³⁾-

학교치과의는 1932년 6월 22일 공포된 학교치과의령에 의해 실시되었고 이 법에 따라 학교치과의의를 두고 학교치과 위생에 관한 임무를 보도록 하였다.

학교에 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빠른 시기에 충치를 발견하여 진행을 막을수 있고 또한 교환기의 유치를 발견해 치열부정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932년 7월 4일 경성사꾸라이(櫻井)공립심상소학교에 학교치과진료소를 경성부 학무과 및 경성치과의사회가 설치하였다.

1932년 11월 3일 삼판(三坂)소학교 1932년 12월 10일 동대문소학교에 치과진료소가 학생후원회와 경성부 위생과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1936년 6월 25일에는 전임학교치과의사를 임명했으며 전국적으로 매년 치과의 대회까지 열렸다.

1940년 10월 14일 경성부 학교치과의회가 설립되었다. 학교치과의에 대한 효율성은 학교치과의 학회에서 학술적으로 입증하여 주었다. 1933년 9월과 1935년 9월 경성치과의학회는 경성사범 부속소

*성신치과의원

1) 서울 교육사.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5. 705쪽

2) 서울시 학교보건원. 연보 2003. 39쪽

3)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참운 2004. 126~127쪽

학교에 치과진료소 설치 후 학생의 구강위생상태의 변화와 학생구강검사 성적을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구강검사와 학교치과 시설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1935년 1936년 9월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회조직에 구강위생부를 두고 학교 치과의 설치를 건의하며 치아 교환표(유치-영구치)를 작성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및 상급학교에서 활용토록 하였다.

1939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는 학교치과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고 초등학교 교원 강습회 과목에 구강위생에 관한 과목이 설치되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1942년 5월 24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는 초등학교 치과의 설치와 중등학교 구강위생비에 관해 논의했다.

1943년 조선연합 치과의사회 총회는 중등학교 치과의 설치와 학교치과의 기구가 확충토록했다.

나. 해방 후

해방 후 혼란기를 거치며 학교구강보건교육도 침체를 면치 못했다.

한국 동란까지 계속되다 동란 후 치과교의제도가 1956-1962년까지 마련되어 1956년 시범사업을 통해 1959년 서울특별시 치과설치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예산편성과 문교부 당국자 설득의 실패로 확대되지 못했다.⁴⁾

1962년 7월 윤태일 서울특별시시장 명에 의해 교의 및 치과교의 해지통보로 자연히 기능이 정지되었다. 1964년 치협이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조사 법제화를 관계 당국에 건의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65년 학교보건법이 통과되었다. 치협의

재건의로 학교보건법이 1967년 개정되어 치과 의사 학교교의로 정식 참여하게 되었다.

치협의 제기로 법안까지 마련되었던 초등학교 치과 설치 및 교의 배정은 문교 행정에 속해있어 예산편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시범사업수준에서 도태되었다.

그 후 1979년부터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치과의사제도를 도입하였다.⁵⁾

1980년부터 치과교의를 재정 형편상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임학교 치과의를 둘 수는 없으나, 학생의 보건관리상 필요한 보건요원임을 감안하여 시·군 교육장은 당해 시군의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학교별로 위촉토록 조치하였다.(문교부 1980)⁶⁾

전임학교치과의 의무는 “학교보건 관계직원의 질문에 관한 규칙”(문교부령 제266호)에 명시되어 있다.

1987년에는 이들 학교치과의사들의 형식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학교건강진단과 질병예방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자로 학교별로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당해 치과의사회, 기타 보건의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학교보건 관리가 되도록 조직하였다.(문교부 1987)

전국유일의 학교전담 관리 기관인 서울特別市 학교보건원⁷⁾은 학교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연구, 검진 및 연계진료를 함으로써 학교보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기원은 1945년 9월 7일 서울시청내의 무실에서 학교보건업무를 관리한데서 비롯된다.

4) 이주연, 한국치과의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고찰 2002. 65쪽

5) 학교보건(금식) 50년사. 교육인적자원부 2001. 34쪽

6) 학교보건(금식) 50년사. 교육인적자원부 2001. 35쪽

7) 학교보건(금식) 50년사. 교육인적자원부 2001. 23쪽

3. 서울시 학교보건원의 연혁 및 목적

가. 연혁⁸⁾

- 1945. 9. 7 서울시청내 의무실에서 진료시작
- 1958. 3. 1 시립학교보건소로 발족(설치조례 제147호)
- 1962.12.31 서울특별시립 학교건강관리소로 개칭, 치과교의 제도 실시(설치조례 제281호)
- 1964. 1.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발족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이관
- 1970. 8.28 청사를 현 위치로 이전(종로구 신문로2가 2-64)
- 1974. 7. 5 시립학교건강관리소내에 부속의원 개설, 무료진료(설치조례 제864호)
- 1975. 8. 9 시립학교건강관리 부속의원을 부속병원으로 개편 신설
- 1977. 5. 2 공무원 연금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
- 1979. 1. 1 공무원 의료보험 취급기관으로 지정
- 1984. 2.16 시립학교 건강관리소 기구 및 직제 개편(설치조례 제1844호)
- 1991. 4.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지정(대통령령 제 10073호)
- 1995. 5. 1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으로 직제 규칙 개정(교육규칙 제470호)
- 1999. 1.15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직제규칙 폐지(교육규칙 제 540호)
- 1999. 1.15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항규칙 제정에 따른 직제개편(교육규칙 제 540호)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의 기원은 1945년 9월 7일 서울시청내 의무실에서 학교보건업무를 관리한데

서 비롯된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보건이란 용어보다 학교위생으로서 더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 1964년 1월1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학교건강관리소는 서울시로부터 이관되었으며 1970년 8월 28일 현재의 신청사(종로구 신문로2가 2-64)로 이전하였다. 1974년 7월 5일에는 보건관리 사업이외에 진료사업의 착수를 위해 학교보건 관리소 부속의원을 개설(설치조례 제 864호)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8월 9일에는 부속의원을 부속병원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8일부터는 의료수가의 개정공포9설치조례 제998호)로 의료비를 징수하였다. 그리고 1977년 5월 2일에는 공무원 연금 요양 지정 의료기관으로 인정되고 1979년 1월 1일에는 공무원 의료보험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9개의 진료과목과 부속시설을 갖추었다.

그 후 학교건강 관리소는 1984년 2월 16일 설치조례개정 및 직제 규칙개정(제1844호)을 하였으며 1991년 4월 11일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대통령령 제10073호)되었으며 1995년 3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설치조례 제3180호)되었다. 같은 해 5월 1일 서울특별시 학교 보건원으로 직제 규칙이 개정(교육규칙 제470호) 되었으며 199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제정(교육규칙 제540호)되어 이에 따른 직제를 원장이하. 총무부 보건사업부. 건강관리부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보건원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 예방, 의료관리는 물론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전국 유일의 학교 보건 담당관리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8) 학교보건연보.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2003. 3쪽

나. 설립목적⁹⁾

학교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연구 검진 및 연계 진료를 함으로써 학교보건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임무¹⁰⁾

가) 총무부

- 보건원 운영관리
- 각종 진료 및 검사관련 원무관리

나) 보건사업부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및 표본사업 조사, 연구, 자료개발
- 학교환경 위생지도
- 학생 교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각종검사

다) 건강관리부

- 보건사업부와 연계된 각종진료
-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

4. 학교건강 관리소의 조직¹¹⁾

가. 조직

학교건강 관리소의 조직은 195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립 학교보건소 (설치조례 제147호)에 따라 소장은 기좌로 임명하고 하부조직으로 서무과, 진료실, 방사선실, 검사실 및 투약실을 두었는데 1962년 12월 31일 설치조례개정(제281호)으로 소장을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관으로 임명하고 새

로 결핵실을 증설하였으며 상임전속교의와 치과교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는 결핵실을 질병관리실로 개칭하고 결핵에 대한 집단검진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기능을 강화하였다. 1973년 8월 2일 처음으로 학교건강관리소 직제규칙(제55호)이 제정되어 소장은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의무기정으로 직급을 높이고 하부조직으로 서무과, 건강관리과, 진료과 등 3개과를 두고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기능에 역점을 두었으나 1974년 7월 19일 직제규칙을 개정(제78호)하여 서무과, 결핵관리실, 구강보건실, 기생충 관리실, 보건연구과 등 보건관리 및 예방분야의 5개과와 진료를 전담하는 부속의원을 개설하여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치과, 방사선과 등 6개 진료학과와 약제과, 간호과등 전문기구로 개편하였다.

그 후 1975년 11월 27일 직제규칙을 다시 개정하여(제102호) 원무과외에 건강관리부를 두어 검진과와 보건연구과를 관장시키고 1976년에는 신설된 피부비뇨기과, 이비인후과, 1978년 산부인과등을 증설하여 9개과실로 된 부속병원으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원장이하 총무부, 보건사업부, 건강관리부의 3부와 총무부내에 서무과와 원무과를 두었으며 보건사업부내에 학교보건관리과, 보건사업과를 두었으며 건강관리부에는 진료사업팀과 건강증진과를 두고 있다. 기구는 축소되고 인원이 축소되었다.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원의 정원은 교육행정직 5명, 보건직 8명, 의료기술직 1명, 의무직 4명, 보건의무 1명, 전산 1명, 계약직 26명, 기능직 25명으로 되어있다.¹²⁾

9) 학교보건연보.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2003. 4쪽

10) 학교보건연보.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2001. 4쪽

11) 학교보건(급식) 50년사. 교육인적자원부 2001. 26쪽

12) 학교보건(급식) 50년사. 교육인적자원부 2001. 27쪽

학교보건원 인력현황(2000.1.1)기준

구분	교육행정	보건	의료기술	의무	보건의무	약무	간호	전산	계약직	기능직	계
정원	5	4	1	4	1	0	0	1	26	25	71
현원	4	8	15	8	1	2	4	1	0	26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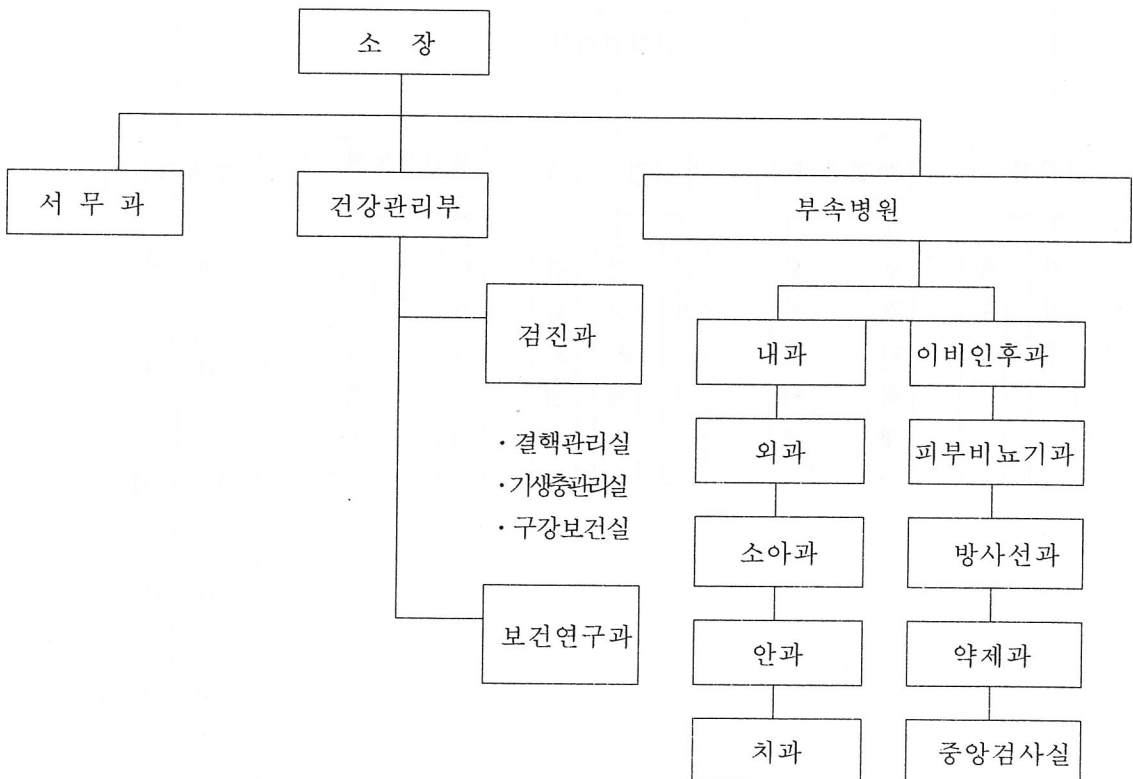
자료(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학교보건연보 199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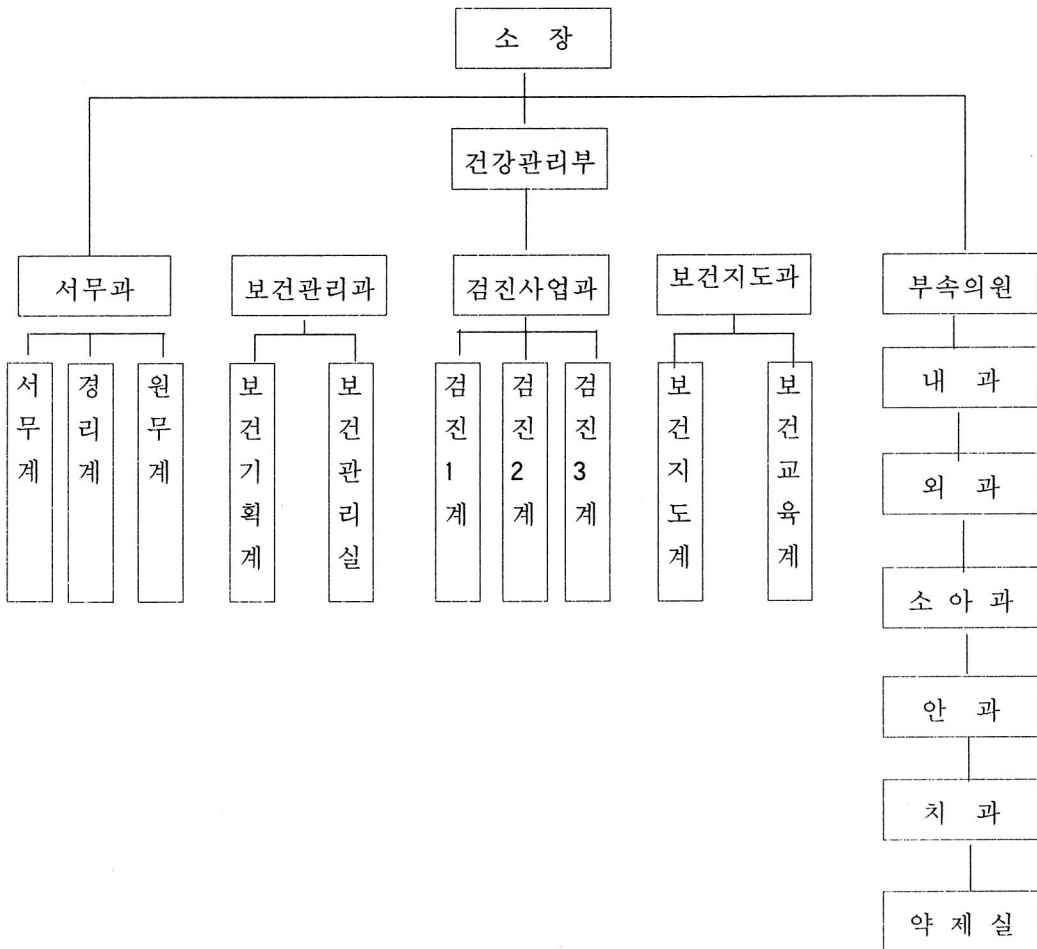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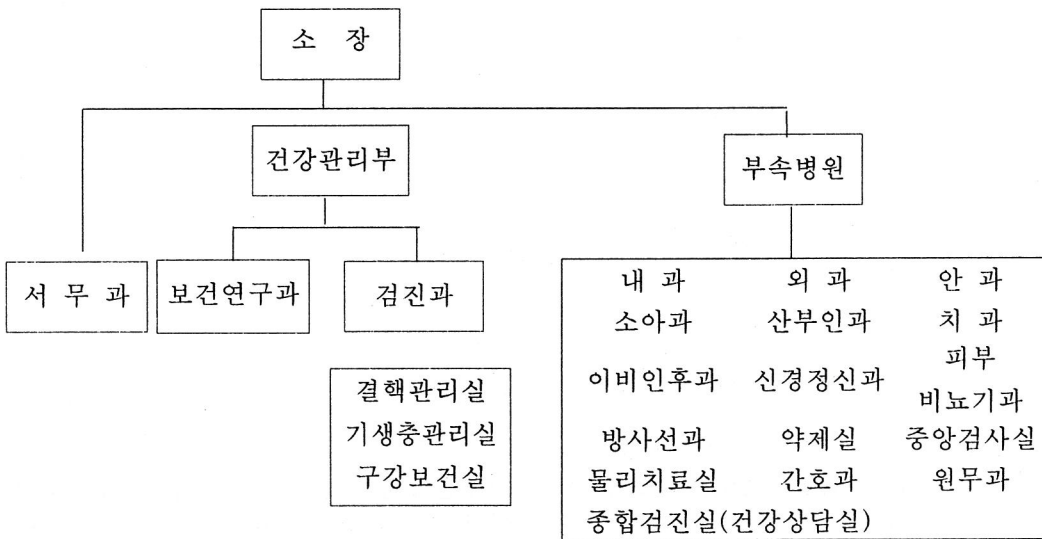
나. 학교보건원의 조직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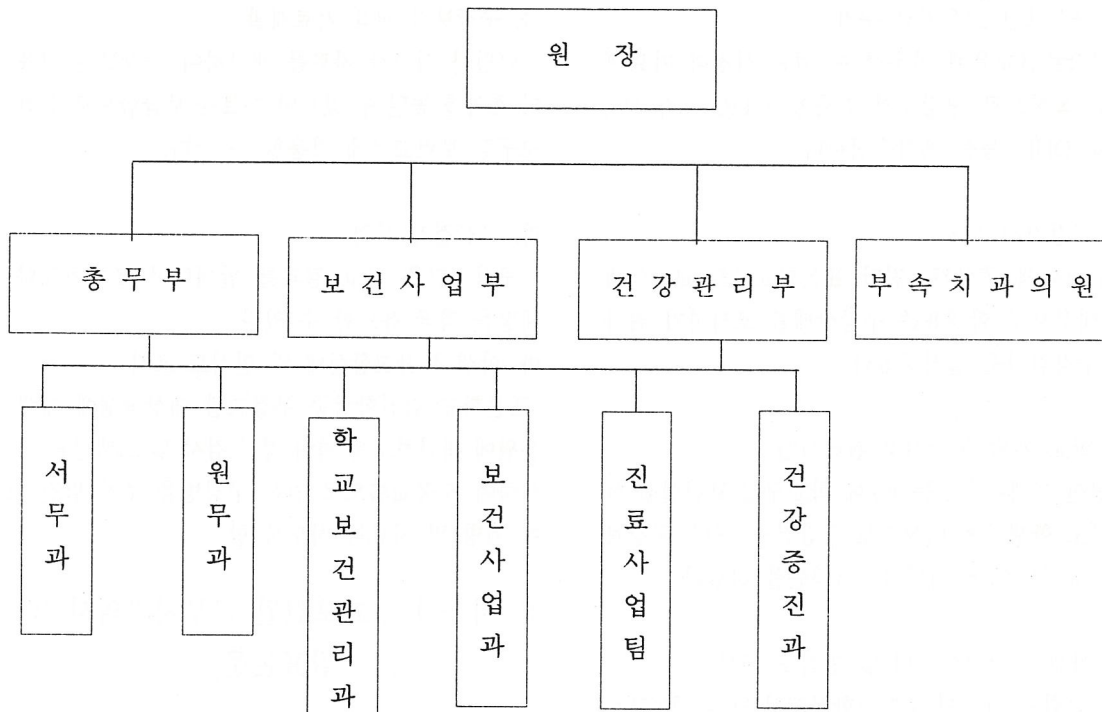
(1) 1975년 당시의 기구는 부속의원이 부속병원으로 개편되었으며 1부3과와 부속병원으로 조직되어다. 정원은 120명이었다.

(2) 1981년 당시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1부 3과와 부속병원으로 조직되었으며 정원은 125명이었다.

(3) 1984년 당시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1부 4과 및 부속의원으로 조직되어있었고 정원은 88명이었다.







(4) 1995년 당시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2부 7과로 정원은 89명이었다.

(5) 2001년-현재 기구는 3부 4과 진료사업팀과 부속치과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면 정원은 71명이었다.

5. 학교구강 보건교육 및 사업¹³⁾

1) 목적 : 구강보건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을 통하여 아동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관리를 통하여 구강병의 유병률을 저하시키며 올바른 구강보건 지식과 평생동안의 구강보건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주도록 하는데 있다.

2) 실시방법

가. 학교구강 보건 교육사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출장 방문하여 패도나 슬라이드, VTR을 이용하여 직접, 간접 구강보건 교육을 하여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나.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불소양치를 하게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아동들이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여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한다.

0.05% 불화소다 용액으로 매일한번씩 1분간 양치하는 방법과 0.2% 불화소다 용액으로 매주 한번씩 1분간 양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13) 서울시학교보건원. 연보 2000. 21쪽

다. 구강보건 교육자료 수집

구강보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개발을 목적으로 구강보건 교육용 VTR, 슬라이드, 삽화, OHP, 등을 제작수집한다.

라. 구강검진 사업

고 1학생 종합건강진단 표본학교(1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표준 구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마. 학교 계속 구강건강 관리사업

명신 사대부속초등학교에 학교구강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개별,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치면열구전색등을 하였다.

바. 학생 부정교합실태 및 인식도 조사

표본학교 학생의 부정교합실태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상담 및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조기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함.

3) 기대효과

가. 학교 구강보건 교육사업¹⁴⁾

구강보건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구강검진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동안 학생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나. 학교불소용액 양치사업

아동들에게 불소양치를 하게 함으로써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고 아동들이 스스로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다. 구강보건 교육 자료개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구강보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자료를 보급함으로써 학교구강 보건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라. 구강검진 사업

구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알게하여 조기치료와 예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마. 학생 부정교합실태 및 인식도 조사

표본학교 검진학생중 부정교합 대상학생에 대해 본원에 내원하도록 하여 정밀 검사 및 스케링을 실시하여 부정교합으로 인한 구강병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 및 치료를 하도록 함.

6. 서울시 학교보건원 근무치과의사 및 발표논문

가) 근무치과의사(표 참조)

나) 발표논문

서울시 고등학생의 부정교합상태와 교정치료 인식에 관한조사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주명자, 신명순, 하주희
서울시내 초.중.고학생 부정교합에 대한 실태조사

-주명자, 하주희, 김선허

학교구강검진 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곽정민

서울시 양호교사들의 구강보건 교육실태 및 구강보건 교육에 관한 인식도조사

-이주연, 곽정민

학교 전문가 불소도포사업 효과에 관한 연구

14) 서울시학교보건원. 연보 2000. 22쪽

번호	발령날짜	이름	직명	발령자	퇴직날짜	발령자
1	62.9.30	김기영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2	62.9.30	원용철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66.11.21	교육감
3	62.9.30	권영오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74.3.21	소장
4	62.9.30	이옥섭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74.12.12	소장
5	62.9.30	이해두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86.12.31	교육감
6	62.9.30	문장이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67.3.17	교육감
7	62.9.30	이혁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74.7.1	소장
8	62.9.30	김부곤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74.7.1	소장
9	62.9.30	이봉기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76.12.31	교육감
10	62.9.30	김창현	촉탁치과의사	서울특별시장	67.3.31	대통령
11	63.9.3	윤창웅	치과교의	서울특별시장	65.9.15	교육감
12	65.11.6	민성기	치과교의	교육감	70.4.27	교육감
13	67.2.1	김해광	치과교의	교육감	68.1.25	교육감
14	67.5.1	김영호	치과교의	교육감	76.3.31	소장
15	67.9.1	박용연	치과교의	교육감	70.4.27	교육감
16	68.3.11	이왕주	치과교의	교육감	70.4.27	교육감
17	71.2.3	최광철	치과교의	소장	74.12.31	소장
18	71.2.3	최경렬	치과교의	소장	75.12.31	소장
19	71.2.16	김영환	치과교의	소장	80.7.1	소장
20	71.11.16	이기택	치과교의	소장	72.9.1	소장
21	72.10.1	한동환	치과교의	소장	86.12.31	교육감
22	73.2.1	주의열	치과교의	소장	86.12.31	교육감
23	73.7.1	주수광	치과교의	소장	74.4.1	소장
24	74.10.7	구창서	치과의사	소장	86.12.31	교육감
25	76.4.10	송우화	치과의사	소장	86.12.31	교육감
26	76.4.10	최승은	치과의사	소장	77.5.15	소장
27	77.3.22	주명자	치과의사	소장	현재	
28	77.5.16	김정민	치과의사	소장	77.8.16	소장
29	77.8.27	이원복	치과의사	교육감	86.12.31	교육감
30	78.1.4	김기창	치과의사	소장	79.3.16	소장
31	79.3.16	김우철	치과의사	소장	80.10.1	소장
32	81.11.24	이현아	치과의사	소장	89.3.9	교육감
33	89.9.23	이영옥	치과의사	교육감	88.4.15	교육감
34	88.10.17	민효기	치과의사	교육감	89.3.1	교육감
35	89.5.1	곽경환	치과의사	교육감	90.7.2	교육감
36	89.7.20	최길라	치과의사	교육감	92.3.9	교육감
37	89.7.20	박경희	치과의사	교육감	91.6.15	교육감
38	92.3.1	양성애	치과의사	교육감	92.10.2	교육감
39	92.7.1	김혜원	치과의사	교육감	94.6.1	교육감
40	92.7.1	이주연	치과의사	교육감	97.7.18	교육감
41	93.3.1	곽정민	치과의사	교육감	99.4.9	교육감
42	01.2.8	이정희	치과의사	교육감	현재	교육감

-이주연, 광정민, 김형규, 권호근

서울특별시 학생구강건강 조사보고서

-광정민, 이주연, 서성제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실시현황에 대한 연구

-이주연, 광정민, 김영숙, 장현미, 서성제

서울특별시 학생 표준 구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광정민, 이주연, 김영숙, 장현미, 서성제

학부모의 학교구강 보건사업에 관한 지식수준과
지지정도에 대한 조사연구

-광정민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양호교사들의 불소용액 양
치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실시현황에 대한 연구

-이주연, 광정민, 신명순

서울특별시 학생 표준 구강상태 조사보고서

-광정민, 이주연, 신명순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1)

-광정민, 이주연, 신명순

서울시 국민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이주연, 광정민

다) 사업

1962~1994 : 초, 중, 고학생 및 교직원 구강보건교
육과 서울시초등학교 순회 유치발치사업

1995~현재 : 초, 중, 고학생 및 교직원 구강보건교
육과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실시

1997~현재 : 초등학교 1개교 계속구강건강관리사
업(학교구강보건실운영)

자료 협조해 주신 서울시 학교보건원 주명자 치과
과장,

장철환 보건사업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학교보건(급식)50년사. 교육인적자원부 2001

서울교육사. 서울특별시교육청 1995

학교보건연보,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1971-2003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참운 2004

이주연. 한국치과의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에 관
한 근대사적고찰. 연대대학원

한국 치과 교육기관의 설립과 발달

김 평 일*

1. 광복 이전

1909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 치과대학 출신 치과 의사 한대위(韓大衛, David Edward Hahn)은 서울에서 치과의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다¹⁾. 한편 치과의학에 대한 첫 강습은 1913년 5월부터 8-9개월간 대한 매일 신보 광고에 “민제병원에서 치과 강습을 한다”는 광고가 보이는 것이 기록에 남은 효시라고 할 수 있다²⁾. 한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출신으로 1893년이래 제증원 원장으로 재임해 온 에비슨(O.R. Avison)은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에 치과학교를 설립하려 했었다. 1912년 병원 발전 계획안에 치과학교 설립 계획이 있었으며 1921년 동아일보와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3년제 치과학교의 구체적인 설립 시도기사가 게재됐었다. 그러나 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기획 때문에 일제는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기획은 무산되었다³⁾. 이런 시도와 별도로 세브란스에서는 1915년 11월 세브란스 연합의학에 치과학 교실을 개설하고 초대 치과과장에 취임한 Dr. William G. Scheifley는 치과병리 치과질환 발치법 등을 세브란스연합의학 전문학교 최상급 학년 학생들에게 주 1시간 강의를 하였다⁴⁾. 1921년 취임한 2대 치과과장 Dr. J. L.

Boots 1939년 취임한 3대 치과과장 J. A. McAnlis에 이어 1940년 미국유학과 4대 치과과장 이유경 교수 취임 이후, 1944년 5대 치과과장 박용덕 교수, 1956년 6대 치과과장 이동섭 교수, 1964. 7대 치과과장 지헌택 교수로 이어지기까지 세브란스는 임상과 교육에 기여했었다⁵⁾.

제도화 된 치과교육기관을 통하여 본격적 치과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1922년 4월 1일 경성치과의학교 설립이다. 조선총독부의원 치과부 나기라다쓰미(柳樂達見)⁶⁾에 의해 기획된 설립 첫해는 야간수업 2년제 남녀공학에 입학정원 50명이었으나 1년 후인 1923년 5월8일 학칙을 개정하여 수업연한 3년제, 주간수업, 입학정원 50명으로 새 출발을 했었다. 1924년 10월15일 경성치과의학교 부속병원을 현을지로 입구(당시 황금정)에 있었던 일본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지점 2층에 임대 개설하고 1927년 6월 6일 중구 소공동 111에 대지 662평, 건물 1,600평의 지상 4층과 지하 1층의 병원을 착공하였다⁷⁾.

1928년 9월29일 학교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이사장에 진남포의 일본인 실업가 “도미다 기사꾸”가 취임했다. 이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1929년 1월29일 4년제로 인가를 받아 그 해 4월15일 개교하니 치과의학교에서 전문학교

* 김평일치과의원

- 1)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71쪽
- 2)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72쪽
- 3)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72-73쪽
- 4)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73-74쪽
- 5) 연세치대 홈페이지
- 6) 신재의 한국근대 치의학사 80쪽
- 7)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83쪽

로 7년 만에 승격한 것이다. 1930년 3월25 일 전문 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인 16명, 일본인 22명을 배출하니 최초 치의학사(學士)의 배출이다⁸⁾.

2. 단수 치과대학 시기

광복을 맞아 1945년 11월 1일 "경성치과대학"으로 개편하더니 이듬해인 1946년 8월 22일 미군정 법령 제 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 일본인이 물러가고 국립대학으로 발돋움하도록 진력한 교수진은 경성치전 잔류교수로 박명진 이춘근교수, 세브란스에서 건너온 정보라 이유경 이영옥 교수 그리고 외부 영입교수로 김영창 김동순 교수등 제씨들의 공로가 컸었다. 치과대학부속병원은 보존부, 보철부, 외과부의 3개부로 조직되었다. 동년 11월에는 구강병리학교실 전임교수 발령이 있었으며 이듬해인 1947년7월11일 미국식 학제에 의해 하기 졸업을 하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1회 37명 졸업이 있었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 피난길에 오른 서울치대는 1951년 5월4일 부산에서 전시 연합대학으로 통합 수업을 하였고,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26일 서울 소공동 본 교사로 복교하였다. 1956 소아치과가 보존과에서 분과하였고 1957년 제 2보존과라는 이름으로 치주과가 보존과에서 분과되었다. 1958년 치과방사선과가 구강외과에서 분과되었다.

1959년 4월1일 대통령령 제 1430호로 치의예과 개설되어 6년제 치대 시절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2년 간의 본과 진입생의 공백이 생겨 본과 편입생 선발 입학 특례가 시행되었다. 1960년 4월 1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에 박사과정 신설되었다.

1961년 예진실 신설되어 1963년 구강진단과로 개명되었다. 1961년 7월 치과재료학 교실이 보철학 교실에서 분리되었다. 1964년 보철학 교실에서 교정과가 신설 분과되었다. 1965년 2월1일 치과약리학 전임교수 발령이 있었으며 1966년 2월28일 최초의 "영문요람"--Bulletin, 1966-1967--을 발간하고 1966년 3월 1일 예방치과학 교실이 신설되었다.

서울치대는 1969년 6월1일 서울대학교 연건동 캠퍼스인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신축교사가 완공되어 소공동에서 연건동으로 이전을 개시하였다. 대지 677평, 건물 3,667평. 지상 7층과 지하 1층으로 역사적인 소공동 캠퍼스를 떠나 수업을 정식 개강한 것은 1970학년도 신학기부터였다. 이즈음인 1969년 12월 28일 구강생리학교실 1구강생화학교실이 신설되었다⁹⁾.

3 복수 치과대학 시대¹⁰⁾

1966년 12월 8일 문교부는 경희대학교에 학년정원 50명으로 문리과대학에 치의예과, 의과대학에 치의학과를 신설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3월 2일 경희대학교는 문리과대학 예과부에 치의예과 신입생 50명 입학시켜 복수 치과대학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경희대학교는 의과대학 산하 치의학과로 개교한 까닭에 엄격히 말한다면 의과대학으로 시작하여 초대 학장은 학장이 아닌 학과장으로 초대 학과장에 김규택 교수가 소임을 맡았다. 한편 문교부는 1967년 12월 4일, 연세대학교의 치과대학 설립을 인가하여 1968년도부터 치의예과 학생을 모집하였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치대는 속속 개교되었다. 1973. 12. 경북대학교에서 문리과대학에 치의예과를 이듬해인 74년 3월 의대 치의학과로 인가

8) 서울치대 홈페이지

9) 서울치대 홈페이지

10) 전국 치대 홈페이지

되더니 1979년 3월 치과대학 설립으로 의대에서 독립하였다. 같은 시기인 1973 12 28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설립되었고 1978 10 전북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치의예과가 신설되었다. 1979. 3 원광대 문리대 치의예과가 설립되었다. 같은 시기에 국립대인 부산대학에 대통령령 제 9288호 (1979.1.8)에 의거 1979. 3. 1 부산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치의예과 설치되었다. 한편 전남대는 1978. 10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신설인가를 받고 1980. 10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신설인가를 받았다 충청권의 단국대학교도 1979년 9월19일 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1980년 3월 이공대학 치의예과에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했다. 90년대에 들어 국립 강릉대학교가 지역 안배를 내세워 인

가를 받아 1992. 3. 1. 자연과학대학에 치의예과를 설치하고 본과인 치의학과는 1994. 3. 1. 치과대학에 설치하여 전국11개 치과대학 시대가 열렸다.

4 각 치과대학의 설립과 운영¹¹⁾

(1) 서울 치대

서울 치대는 80년 역사에 걸맞은 장황한 학사 변천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한국 치과계의 변천사를 대변하는 듯하다. 11개 치과대학의 모체 역할을 해온 서울 치대이지만 1998.08.04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치과대학과 교류협정 1건으로, 타 대학에 비하여 외국 치대와 결연 교류가 너무나 빈약하다.

서울치대 學事

- 1922.04.01 경성치과의학교 설립 (야간수업 2년제 남녀공학, 입학정원 50명)
- 1923.05.08 학칙개정 (수업연한 3년제, 주간수업, 입학정원 50명)
- 1928.09.29 학교재단법인으로 인가 (이사장에 진남포의 실업가 도미다 기사꾸 취임)
- 1930.03.25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회 (최초의 치의학사 : 한국인 16명, 일본인 22명)
- 1945.11.01 "경성치과대학"으로 개교 (한국인만으로 교수진 구성)
- 1946.08.22 미군정법령 제102호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거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으로
- 1946.08.22 치과대학부속병원은 보존부, 보철부, 외과부의 3개부로 시작
- 1946.11 구강병리학교실 전임교수 발령
- 1951.05.04 6.25 동란중 부산에서 전시 연합대학으로 합쳐짐
- 1956 소아치과가 보존과에서 분과
- 1957 제 2보존과(치주과)가 보존과에서 분과
- 1958 치과방사선과가 구강외과에서 분과
- 1959.04.01 치의예과 개설 (대통령령 제 1430호)
- 1960.04.01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에 박사과정 신설
- 1961 예진실 신설 (후에 구강진단과로 됨)
- 1961.07 치과재료학교실이 보철과에서 분리됨
- 1963 예진실이 구강진단과로 됨
- 1964 교정과 신설

11) 전국치대 홈페이지

- 1965.02.01 치과약리학 전임교수 발령
- 1966.03.01 예방치과학교실 신설
- 1969.12.28 구강생리학교실 신설. 구강생화학교실 신설
- 1980.03.07 구강미생물학 전임교수 발령
- 1980.04 치과대학부설 "치과연구소" 설치
- 1981.01 임상구강병리과 신설
- 1997.02.27 치과대학 부속 치학연구소로 법정화
- 1999.01.12 치과대학 부속 치의학교육연수원 설립

서울치대 교육 환경

- 1924. 10. 15 경성치과의학교 부속병원 개설 (을지로 입구 황금정)
- 1927. 6. 6 교사 및 부속병원 착공 (중구 소공동 111번지, 지상 4층과 지하 1층)
- 1953. 8. 26 부산 피난 전시 연합대학에서 서울 소공동 본교사로 복교
- 1969. 6. 1 소공동 교사에서 연건동 신축교사로 이전
- 1976 치대 도서관이 서울대학교 도서관 의학계 분관으로 통합됨
- 1977. 7 구 약대건물(대지 210평, 건물 577평)을 인수받아 기초학교실의 일부로 사용
- 1978. 7. 15 치대 부속병원과 의대 부속병원 통합 '서울대학교병원' 치과 진료부로
- 1992. 10. 6 상아회관(학생식당) 신축 개관
- 1993. 5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신축이전 (지상 8층과 지하 1층)
- 1994. 8. 31 치의학 박물관 개설
- 1995. 5. 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치의학 도서관 설립
- 2001. 12. 28 치의학박물관 확장 개관

서울치대 간행물

- 1966.02.28 최초의 "영문요람"(Bulletin, 1966-1967 발간)
- 1976.10.30 "서울치대 학술지" 창간
- 1988.11.30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연보" 창간
- 1989.03.0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국문요람" (1922-1990) 발간
- 1989.04.3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화보" (1922-1989) 발간
- 2003.09.0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 웹사이트 오픈

서울치대 국제 학술 교류

- 1998.08.04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치과대학과 교류협정 서명
-

(2) 경희치대

제2의 치과대학으로 어느 덧 40년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경희치대는 활발한 국제 학술교류와 교육환경 개선 의지로 치과계를 이끄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자매 학교인 일본 오우 치과대학과는 학술뿐만아니

라 스포츠 교류등 친선 교류까지 매우 활발하다.

경희치대 학사

- 1966 12. 8. 문리과대학 치의예과(학년정원 50명) 신설 인가
- 1966 12. 8. 의과대학 치의학과(학년정원 50명) 신설 인가
- 1971 12. 31. 문리과대학 치의예과 증원 인가(50명에서 80명)
- 1971 12. 31.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20명)과 박사과정(10명) 신설 인가
- 1971 12. 31. 치과대학 신설 인가(의과대학 치의학과에서 치과대학으로 승격)
- 1973 3. 1. 치과대학 개교
- 1974 11. 4.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생 증원 인가(50명에서 80명)
- 1974 11. 4.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학생 증원 인가(20명에서 26)
- 1975 7. 4.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학생 증원 인가(10명에서 15명)

경희치대 역대 학장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9 3. 2. 의대 치의학과장 김규택 교수취임 1978 3. 1. 제2대 학장 김인철 교수 취임 1988 1.18. 제4대 학장 최부병 교수 취임 1992 1.24. 제6대 학장 최호영 교수 취임 1998 12.22. 제9대 학장 이상래 교수 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3 3. 1. 초대 학장 김규택 교수 취임 1984 1. 5. 제3대 학장 민병순 교수 취임 1990 2. 1. 제5대 학장 조한국 교수 취임 1995 7.11. 제7대 학장 이상철 교수 취임 2002 1. 7. 제10대 김영갑학장 취임 |
|---|---|

경희치대 역대 병원장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1 9. 1. 초대 병원장 어수철 교수 취임 1977 3. 1. 제3대 병원장 박남수 교수 1988 1.18. 제5대 병원장 이상철 교수 취임 1996 3. 1. 제7대 병원장 이상래 교수 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3 3. 1 제2대 병원장 민병순 교수 취임 1983 3. 1. 제4대 병원장 최부병 교수 취임 1991 3. 1 제6대 병원장 이만섭 교수 취임 1998 12. 22. 제8대 병원장 권영혁 교수 취임 |
|--|--|

경희치대 학술 국제교류

- 1975 10. 15. 일본 동북치대(현 오우대학)와 자매결연
- 1979 10. 20. 치과대학 주최 국제학술대회 개최(서울, 퍼시픽 호텔)
- 1996 11. 9.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교실과 오사카치대 제2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과 자매결연 조인
- 1999 6. 26. 개교 50주년 기념 치과대학 국제학술대회(미국,일본,뉴질랜드) 개최
- 2000 5. 31. 일본 Showa대학 의치약학부와 자매교 협정조인
- 2000 7. 20. 미국 Maryland치대와 자매교 협정조인식 및 학술세미나개최
- 2000 10. 31. 일본 오사카치대와 자매교 협정조인식

경희치대 교육 환경

- 1967 12. 20. 의약대학관 준공(건평: 4,760 평)

- 1971 10. 5. 치대 부속치과병원 개원(경희의료원 개원)
- 1979 10. 20. 경희치대논문집 발행 시작
- 1980 4. 25. 경희치대 학생회지 Logodent 창간
- 1981 10. 5. 경희의료원 개원 10주년 기념 부속치과병원 학술대회 개최
- 1982 5. 15. 경희치대 학생논문집 창간
- 1988 10. 1. OECF 차관도입-임상전단계 실습장비 및 연구교육장비
- 1991 12. 16. 치과대학관 및 부속치과병원 준공
- 1994. 1. 17. 경희치대 발전 및 연구기금의 운영규정 제정
- 1994 12. 25. 구강생물학 실습실(의약관 2, 3층) 보수완료
- 1995 10. 12. 경희의료원 개원 25주년 치대병원 학술심포지움 개최
- 1996 6. 20. 치과대학 도서관 개관
- 2000 1. 14. 제2치과대학관 신축 총장인가
- 2000 2. 17. 치과재료시험센터 설립
- 2000 3. 1. 2000학년도 치과대학 국문, 영문요람 제작

(3) 연세치대

1915년 11월 세브란스에 치과학 교실을 시도한 Dr. William G. Scheifley 이래로 세브란스 치과의 맥을 이어온90년 전통에 걸맞은 긍지와 의욕으로 교육 환경, 학사, 학문적 교류 등에서 어느 대학에나 뒤지지 않는 연구와 활동이 보인다.

연세치대 학사

1968년도부터 정원40명

- 1972. 3. 1. 연세치대 학년 정원 60명으로 증원
- 1974. 3. 1. 구강외과, 치주, 보철, 소아치과, 보존, 교정, 구강진단방사선
- 1975. 3. 1. 구강외과, 치주, 보철, 소아치과, 보존, 교정, 구강진단, 방사선과
- 1981. 3. 1. 치과대학정원 80명 증원되었다.
- 1988. 5. 1. 2개 기초학, 구강생물학 교실과 치과재료학 교실이 신설되었다.
- 1989. 3. 1. 교합과학교실 신설
- 1993. 3. 1. 구강병리학교실 신설
- 1995. 2. 6. 구강진단과학교실을 구강내과학교실로 개칭
- 1996. 2. 1. 예방치과학교실 신설
- 1996. 3. 1. 치과대학 정원 60명으로 조정
- 2002. 5.1. 교합과학교실 폐지

연세치대 역대 학장(날자는 취임일)

- | | |
|----------------------------|-----------------------------|
| 1969. 7.15. 초 대 학장 박용덕 교수 | 1971. 11. 1. 제 2대 학장 김귀선 교수 |
| 1975. 7.16. 제 3대 학장 김용관 교수 | 1982. 8. 1. 제 4대 학장 윤충호 교수 |

1986. 9. 1. 제 5대 학장 이정석 교수 1988. 9. 1. 제 6대 학장 유영규 교수
 1992. 9. 1. 제 7대 학장 이의웅 교수 1996. 8. 1. 제 8대 학장 이호용 교수
 2000. 8. 1. 제 9대 학장 손홍규 교수 치과대학병원장 이충국 교수

연세치대 학술 국제교류

- 1977.12. 1. 일본 동경치대와 자매결연
 1984.10. 미국 미시건대와 자매결연
 1986.12. 4. 미국 인디애나대학과 자매결연
 1995. 1.27. 일본 구주 치과대학과 자매결연
 1998.11.11. 캐나다 달하우지대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과의 자매결연
 1999. 9.28. Univ. Washington과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01. 3.15. 러시아 형상기억합금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10.10. 미8군 618치과의무대와 특성화교육을 위한 학생교류협정 체결

연세치대 교육 환경

- 1971.12.23. 1,2,3 층 1차 공사로 임시 준공 후 입주, 수업
 1977. 8.30. 치과대학교사 2차 준공으로 4,5층 완공
 1984. 10. 임상전단계실습실(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설
 1988. 8.13. 구강과학연구소 설립
 1989. 3. 1. 원내생진료실 개설 승인
 1992. 3. 1. 치과재료학 연구소, 두개안면기형 연구소 설립
 1992. 5. 8. 치과병원 신축기공식
 1993. 8.28. 임상연수원 설립
 1994. 5.14. 치과대학 신축기공식
 1995. 3.10. 치주조직재생연구소 설립
 1995.12.18. 치과대학병원(지상 7층, 지하 2층) 준공
 1996. 5.10. 치과대학(지상 4층, 지하 2층) 준공
 1997.12.26. 구강종양연구소 설립
 1998. 8.30. 치과대학 무악3학사신축으로 치과대학생 기숙사 입사
 2000. 3. 1.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치과의료용구시험평가센터설립 인가
 2004. 5 치과대학 증축완공 (5,6,7층)

(4) 경북치대

구제 학술 교류에 힘써온 흔적이 보인다.

경북 치대 역대 학장

1979. 3. 초대 학장 이열희 교수 취임 1981. 3. 제 2대 학장 이열희 교수 연임

1981. 9. 제 3대 학장 변종수 교수 취임 1983. 8. 제 4대 학장 변종수 교수 연임
 1984. 8. 제 5대 학장 변종수 교수 연임 1988. 3. 제 6대 학장 고영택 교수 취임
 1989. 3. 제 7대 학장 성재현 교수 취임 1991. 3. 제 8대 학장 성재현 교수 연임
 1993. 3. 제 9대 학장 조규증 교수 취임 1995. 3. 제10대 학장 성재현 교수 취임
 1997. 1. 제11대 학장 조광현 교수 취임 1999. 1. 제12대 학장 김진수 교수 취임
 2001. 1. 제13대 학장 경희문 교수 취임 2003. 1. 제14대 학장 김영진 교수 취임

경북 치대 학술교류

1989. 12. 일본 오사까대학 치의학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5. 10.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치학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5. 12. 일본 도꾸시마대학 치학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8. 11. 일본 도꾸시마대학과 경북대학교간 학술교류 협정체결
 1999. 12. 일본 오사까대학 치학부와 학술교류협정 재체결(1999.12~2004.12)
 2000. 10.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치학부와 학술교류협정 재체결
 2001. 11. 전남대학교 치과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1. 11. 중국 상해 제2의과대학교 치과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2. 8. Univ. British Columbia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경북 치대 학사

1973. 12.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치의예과 인가
 1974. 3. 문리과대학에 치의예과 신설(40명 모집) 의과대학 치의학과장 이열희 교수 취임
 1979. 3. 치과대학 신설(의과대학에서 개편)
 1979. 12.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개설
 1981. 3. 치의예과 신입생 정원 80명 모집
 1981. 11.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개설
 1987. 3. 치의예과 신입생 80명에서 60명으로 감축
 1988. 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개칭
 2002. 1. 치의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을 결정

경북 치대 각급 교실운영

1979. 5. 치과외래 확장(8개 전문 과목)
 1982. 3. 대학원 치의학과 전공분리(구강외과, 보존)
 1982. 12. 치과 임상 8개 분과 설치
 1984. 2. 대학원 치의학과 전공분리(구강외과, 치주, 교정, 소아치과, 보존,보철학, 구강진단, 방사선)
 1988. 11. 8개 교실 승인(교정, 구강외과, 보존, 보철, 소아치과, 치주, 방사선, 구강병리)
 1993. 3. "경북대학교 병원" 법인 설치와 함께 임상 8개과 설치
 1995. 8. 구강내과학 1개 교실 추가 승인

1997. 8. 7개 교실 추가 승인(구강미생물학교실, 구강생리학교실, 구강생화학교실, 예방치 과학교실, 구강 조직학 및 해부학교실, 치과약리학교실, 치과생체재료학교실)
1998. 7. 대학원 9개 전공 재편(구강내과학 및 구강악안면방사선학전공, 구강악안면외과학 전공, 소아치과 학전공, 치과교정학전공, 치과보존학전공, 치과보철학전공, 치주과학전공, 구강생물학전공, 예방 치과학 및 치과생체재료학전공)

경북대 교육 환경

1981. 11. EXIM차관 기자재 확충
1983. 7. 의, 치대 학생회관 건립
1986. 8. 치과대학건물 증축(북측 강의동)
1989. 6. 4층 실험실습실 임상실습대 설치가동(OECF 차관)
1989. 9. 전자현미경설치(OECF차관)
1994. 7. 강의동 5층 증축 완공
2002. 12. 치과대학 신축건물 준공

(5) 조선치대

지방사립대학으로 발전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보인다. 외국대학과의 학술 교류제휴가 좀더 있었으면 좋 겠다.

조선치대 학사

- 1973 12 28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설립
- 1977 03 01 문리과대학 치의예과에서 치과대학예속으로 개편
- 1978 04 01 조선대학교 구강생물학 연구소 개소
- 1978 10 26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 1979 12 05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인가
- 1980 11 03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인가
- 2000 04 07 재단법인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 인가

조선치대 역대 학장

- 1974 03 01 양남길 의과대학장 초대 치과대학 학장점임
- 1976 02 25 김영창교수 2대 학장으로 취임 1977 06 20 조영필교수 제3대 학장으로 취임
- 1985 07 30 윤창근교수 제4대 학장으로 취임 1988 01 15 조재오교수 제5대 학장으로 취임
- 1990 09 01 계기성교수 제6대 학장으로 취임 1994 09 01 정재헌교수 제7대 학장으로 취임
- 1998 06 01 김광원교수 제8대 학장으로 취임 1999 09 01 이상호교수 제9대 학장으로 취임
- 2003 09 01 강동완교수 제10대 학장으로 취임

조선대 학술교류

1994 11 19 치과대학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1 03 09 개교 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2002 02 15 베트남 호치민 의과대학 치아구강학과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2 11 01 제 4회 전국치과대학 학생논문발표대회 개최
2003 04 04 제 5회 국제 치의학 심포지엄 개최

조선대 교육 환경

1982 02 21 치과대학을 간호전문대학 신축 건물로 옮김
1995 07 15 조선대학교 우수연구센터로 두개악 장애회복 센터 선정
1996 10 11 대학 교육협의회 주최 치의학과 평가 조선 치대 전국 최우수 치대로 선정
1999 12 05 치과대학 BK21 핵심분야 사업단으로 선정
2000 03 05 치과대학 골대사연구실 국가지정 연구실(NRL)로 선정
2000 12 02 치과병원 신축 이전 개원식
2001 03 09 신축 치과대학준공식

(6) 전북치대

전북치대 학사

1978 10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치의예과 신설
1979 3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치의예과 40명 입학
1980 10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신설 인가
1984 11 전북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개설(치의학 전공)
1986 11 전북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개설(치의학 전공)
2002 5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결정

전북치대 학술 교류

1986 11 일본 북해도대학 치학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9 10 개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1999 10 미국 오레곤대학, 중국 난징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1 9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전북치대 역대 학장

1981 3 초대학장 김오환 교수취임	1990 3 제5대 박찬운 학장 취임
1992 3 제6대 박찬운 학장 연임	1994 2 제7대 신금백 학장 취임
1996 2 제8대 백병주 학장 취임	1998 2 제9대 신호근 학장 취임
2000 2 제10대 김형섭 학장 취임	2002 2 제11대 김형섭 학장 연임
2004 2 제12대 고광준 학장 취임	

전북치대 교육 환경

- 1983 6 전북대학교부설 치의학연구소 설립
- 1983 12 전북치대 논문집 제 1권 발행
- 1996 10 치과대학 신축교사로 이전
- 1998 3 치과병원 신축병원으로 이전
- 2003 6 치과대학 2호관 증축

(7) 전남치대

전남치대 학사를 보면 각종규정 제정에 치밀성을 보이고 있다. 국제학술교류 간행물 교육환경 등 제반 대학운영이 활발하다.

전남치대 학사

- 1978. 10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신설인가
- 1980. 10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신설인가
- 1981. 03 치의예과 학생모집정원 80명 개정
- 1983. 03 치과대학 관리조직 규정 및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 1985. 03 전남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개설
- 1986. 03 치과대학 기자재위원회규정 제정
- 1987. 03 전남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개설
- 1987. 03 치과대학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 1989. 03 치의예과 학생모집정원 70명 개정
- 1989. 10 치과대학 간행위원회 규정 제정
- 1990. 05 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정
- 1992. 01 전남치대 발전위원회 결성(규정제정) 및 발전기금 모금
- 1992. 01 치과대학 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 1994. 12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장학기금 운영위원회 결성 및 기금모집
- 1995. 04 치과대학 제 규정 1차 개정
- 1995. 06 치의학연구소 규정 개정
- 1996. 06 치과대학 제 규정 2차 개정
- 1997. 10 치과대학 제 규정 3차 개정
- 1997. 12 치과대학 발전기금운영규정 개정
- 1997. 12 연구학술활동 및 장학사업 운영세칙 제정
- 1999. 01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발전기금재단 법인화
- 2000. 3 치과대학 관리조직 규정 및 기자재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2001. 5 치과대학 외래교원규정 제정
- 2002. 7 치의학전문대학원 준비위원회 결성

2002. 10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 개발을 위한 공개토론회
 2002. 2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결정
 2002. 3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증원 사업

전남치대 교육 환경

1981. 03 치과임상진료부 개원
 1982. 11 EXIM 차관 기자재 도입
 1983. 09 치과대학 신축 교사 개관식
 1986. 06 치과병동 개축확장 개원
 1987. 08 명학회관(제3학생회관) 개관
 1988. 06 OECF 차관 기자재 확충
 1992. 04 전남대학교 치의학연구소 규정 제정
 1992. 06 전남대학교 치의학연구소 개소
 1993. 03 전남대학교 병원 공사화(치과진료처 개설, 치과임상 : 8과)
 2000. 8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부설 치과재료연구소 개설
 2002. 4 기자재 관리운영 우수대학으로 선정
 2002. 11 치대 용봉동 2호관 준공
 2003. 1 치과종합진료센터 조직
 2003. 1 임상교육관 건립위원회 결성

전남치대 역대 학장

- | | | | |
|----------|-------------------|----------|-------------------|
| 1981. 03 | 초대 학장 박재관 박사 취임 | 1983. 03 | 제 2대 학장 박재관 박사 연임 |
| 1985. 05 | 제 3대 학장 김명기 박사 취임 | 1985. 10 | 제 4대 학장 박재관 박사 취임 |
| 1987. 10 | 제 5대 학장 양규호 박사 취임 | 1989. 10 | 제 6대 학장 양규호 박사 연임 |
| 1991. 10 | 제 7대 학장 양홍서 박사 취임 | 1993. 10 | 제 8대 학장 유선열 박사 취임 |
| 1995. 10 | 제 9대 학장 정성수 박사 취임 | 1997. 10 | 제10대 학장 방몽숙 박사 취임 |
| 1999. 10 | 제11대 학장 정현주 박사 취임 | 2001. 9 | 제12대 학장 황현식 박사 취임 |

전남치대 학술교류

1991. 08 일본 도호쿠대학 치학부와 자매결연 협정조인(전남대학교 치과대학)
 2000. 9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20주년 기념학술행사
 2001. 8 일본 도호쿠대학 치학부와 자매결연 협정갱신(치과대학)
 2001. 11 경북치대와 "학술 및 임상교육교류협정" 체결
 2001. 12 삼성의료원과 "학술 및 임상교육교류협정" 조인
 2002. 2 2002 전남치대 심포지움 "치과임상 제2의 물결"
 2002. 6 미국 일리노이대 학술교류 기념 강연
 2002. 6 중국 북경대학 구강의학원 학술교류 방문

2002. 10 국제심포지움. "치과임프란트의 최신동향"

전남치대 간행물

1989. 12 전남치대 논문집 제1호 발간
1996. 06 치과대학 연보(해적이) 제1호 발간
2001. 12 전남치대논문집, 구강과학으로 개명 및 분기 발간 시작
2002. 11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20년사

(8) 원광 치대

국제학술교류 분야를 활성화시킴이 바람직하다.

원광치대 학사

- 1978.12 문리대 치의예과로 설치인가
1979. 3 문리대 치의예과 신입생 모집
1980.12 치과대학 인가

원광치대 교육 환경

- 1983.11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대학 건물 준공
1984. 1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건물 준공
1988. 6 치과대학 중축 건물 기공
1989. 6 원광 생체 재료 매식 연구소 설치
1990. 4 원광치의학연구소 설치
2001. 5. 8 최첨단 시뮬레이션실습실 설치

원광치대 국제 학술 교류

1999. 11.23 치과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행사 등 개최

원광치대 역대 학장

1981. 3 초대 학장 김남규 교수 취임 1983. 3 제 2대 학장 김남규 교수 재임
1985. 3 제 3대 학장 김남규 교수 재임 1987. 3 제 4대 학장 김남규 교수 재임
1990. 1 제 6대 학장 김수남 교수 취임 1996. 3 제 9대 학장 신형식 교수 취임
2000. 3 제11대 학장 한경수 교수 취임 2002. 3 제12대 학장 동진근 교수 취임

(9) 부산치대

부산치대 학사

1981. 2. 28 대통령령 제 10214호에 의거 치과대학이 설치

1985. 3 대학원 치의학과(석사과정) 개설

1987. 3 대학원 치의학과(박사과정) 개설

부산치대 교육 환경

1981. 9. 7 치과대학 신축건물 기공

1983. 9. 24 신축건물 일부 완공되어 신축 건물로 이전함

1985. 3 치과대학 도서관 개관

1986. 3 신관 완공

부산치대 국제 학술 교류

1984. 10. 17 일본 구주대학 치학부와 자매결연 체결

부산치대 역대 학장

1981. 3. 2 초대 학장 김찬영 교수 취임 1981. 10. 27 제 2대 학장 양동규 교수 취임

1983. 10. 27 제 3대 학장 양동규 교수 취임 1985. 10. 27 제 4대 학장 양동규 교수 취임

1987. 10. 27 제 5대 학장 양동규 교수 취임 1989. 10. 27 제 6대 학장 이병태 교수 취임

1991. 10. 27 제 7대 학장 양동규 교수 취임 1993. 10. 27 제 8대 학장 정인교 교수 취임

1995. 10. 27 제 9대 학장 허 복 교수 취임 1997. 10. 27 제10대 학장 고명언 교수 취임

1999. 9. 1 제11대 학장 김형일 교수 취임 2001. 9. 1 제12대 학장 김 신 교수 취임

(10) 단국치대

단국치대 역대 학장 및 병원장

1984. 9. 1. 초대 학장 겸 부속치과병원장 선우양국 교수 취임

1985. 9. 1. 제2대 학장 겸 부속치과병원장 조 영 필 교수 취임

1986. 1. 18. 학장서리 최 승 재 교수 취임

1986. 1. 18. 부속치과병원장 직무대리 조 인 호 교수 취임

1986. 9. 1. 제3대 학장 겸 부속치과병원장 이 재 현 교수 취임

1993. 2 제4대 부속치과병원장 조 인 호 교수 취임

1995. 9. 1. 제4대 치과대학장 박 기 철 교수 취임

1995. 9. 1. 제5대 부속치과병원장 김 경 욱 교수 취임

1997. 11. 10. 제5대 치과대학장 조 인 호 교수 취임

1997. 11. 10. 제6대 부속치과병원장 김 용 기 교수 취임

1999. 2. 19. 제6대 치과대학장 정 진 형 교수 취임

단국치대 학사

1979. 9. 1. 천안 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설립 인가

1980. 3. 1. 이공대학 치의예과 신입생 선발

단국치대 교육 환경

- 1983. 3. 4 치과대학교사 및 부속치과병원 기공
- 1984. 9. 17. 치과대학 교사 및 부속치과병원 준공
- 1984. 9. 28. 치과대학 교사 개관 및 부속치과병원 개원
- 1986. 4. 19. 예방치과 임상진료실 개설
- 1986. 9. 1. 치의학 연구소 발족
- 1987. 1. 16. 의료기사 및 치과위생사 수습기관으로 지정
- 1990. 9. 1. 한국 생체재료 연구소 발족

단국치대 국제 학술 교류

- 1987. 10. 22. 일본 쓰루미 대학교와 자매결연
- 1996. 7. 19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치과대학과 우호협조 조인

(11) 강릉치대

강릉치대 학사

- 1992. 3. 1.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설치
- 1994. 3. 1. 치과대학 치의학과 설립
- 1995. 3. 1. 교무과, 학생과가 교학과로 통합
- 1996. 3. 교학과, 서무과 행정실로 통합
- 1997. 5. 7.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법인 설립
- 1998. 3.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치의학과 개설(입학정원 7명)
- 2000. 3. 박사과정 신설(정원 3명)
- 2001. 1. 2. 강릉대학교 치과대학교실 설치, 운영규정 공포

강릉치대 역대 학장

- 1994. 3. 1. 초대학장 직무대리 최기열교수 취임 1996. 3. 1. 2대학장 한 송 교수 취임
- 1998. 3. 제3대 학장 한 송 교수 취임 2000. 3. 제4대 학장 한 송 교수 취임

강릉치대 교육 환경

- 1992. 12. 치과대학 건물 기공
- 1994. 6. 8. 치과대학 건물완공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2,206평)
- 1997. 9.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건물완공
- 1997. 12. 23.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개원
- 1998. 3.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동계아시안게임 후송병원 지정
- 2001. 4. 치학 2호관 기공예정

4. 세계화 시대의 치과대학(결론)

미국의 세계화 정책의 작품 --빌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경제에 관한 의회연설로 기획된 “클린턴 라운드”라고도 불리는 카타르 “도하” 협정에 의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전 세계는 시장 개방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경향각지의 치과대학은 상호 유기적인 학술 정보 교환으로 새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전국11개 치과대학은 이제 대부분 청년기를 마치고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기에 적절한 외적 자극은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가 우리에게 물려오면 우리도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각 치과 대학은 국제 학술 교류에 가일층 분발 노력하여야 하며 여기서 얻은 정보와 지식은 11개 치과대학이 서로 공유 연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전쟁과 치과¹⁾

조영수*

I. 머리말

전쟁이란 군사력에 의한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와 교전단체간의 투쟁행위를 일컫는다. 클라우제비츠(K. Clausewitz 1780-1831)는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은 우리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키는 폭력행위(an act of violence intended to compel our opponent to fulfil our will)'라고 정의하면서 그 본질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정치의 연장'이라고 규정하였다²⁾. 즉, 실질적 의미의 전쟁은 정치집단, 특히 주권국가 사이에서 군사력 행사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대규모의 전면적 투쟁 상태이다.

근·현대사를 통해 여러 차례 외세에 의한 침략과 동족상잔을 경험했던 우리 사회는 지금 또 다른 형태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연결되어 국론분열의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점령 후, 4월에 파병된 한국군 제마부대는 7월에 나시리아 에더기지에 제마병원을 개원하여 현지인 및 미군 등 연합군을 진료하고 있다. 제마병원은 94평 규모 2개동에 내과, 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한방과, 마취과 등 8개 진료과목을

두고 있는데³⁾, 파병 1년을 맞은 2004년 4월 한국 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제마부대는 신 창우(申昌雨·44·육사39기) 중령 이하 85명이 제마병원을 통해 동맹군 및 현지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9일에는 의료지원센터를 방문, 한국에서 가져온 치과 치료기구 세트와 휠체어, 각종 의약품을 전달하며 나시리아의 의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⁴⁾

현재 이라크에서는 개전 당시보다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군과 연합군의 철수와 완전독립을 요구하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과 테러에 대해 미군은 학살과 고문으로 강경대응하고 있어 국내외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측은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와 서희제마부대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파병철회촉구 시국선언운동'(2004년 4월 14일) 발기인 142명' 중에는 치과계 단체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⁵⁾

가장 극단적 형태의 사회현상인 전쟁은 사회 각 분야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치과의료도 예외는

* 택상치과의원

1) 大韓齒科醫史學會 정기학술집담회(2004. 5. 2)에서 발표. 1)

2) Clausewitz C. *On War*. Rapoport ed. Pelican. 1980.

3) 국방저널 2003.8. <http://www.dapis.go.kr/jour/200308/j61.html>

4) 연합뉴스. 2004.4.19. “한국군은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1년

5) 네이버뉴스. <http://blog.naver.com/estabien.do?Redirect=Log&logNo=100001904776>

아니다. 우리나라에 서양치과의료체계가 도입되는 과정은 근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00년 전에 발발했던 러·일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실질적인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⁶⁾, 일제의 경찰의료를 통하여 서양식 치과의료가 본격적으로 이입되면서 치과의료체계의 골간이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근대 서구 및 우리나라 개항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치과의료 간의 연관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치과의료의 사회적 성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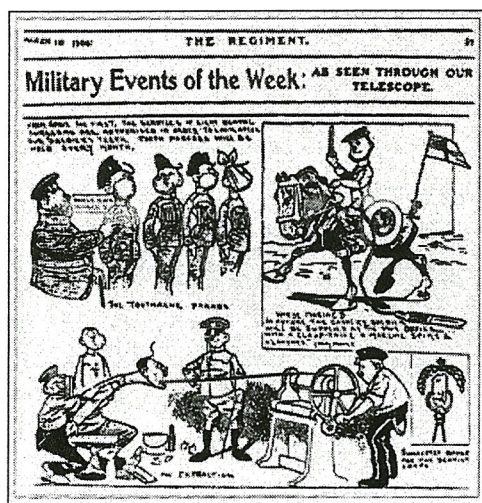


그림 1. 군진치과에 대한 삽화. 영국군 잡지 1904.3.10

2. 서양 근대 치과의료와 전쟁

서구사회에서 치과의사가 전문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야 가능하였다⁷⁾. 그 시기에 비로소 군대 또는 전쟁의 현장에 ‘치과’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예로부터 전쟁에 동원된 군사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병사들의 건강은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그 중에서도 구강 영역의 질병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전쟁수행능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영국에서는 1660년대부터 군에 군의관(regimental surgeon)을 두어 병사들의 치아 보존을 중요하게 관리하였다. 당시에는 탄환을 장전하면서 탄약통을 입으로 물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⁸⁾. 병사들의 구강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보어(Boer)전쟁이었다⁹⁾. 당시 구강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sick wastage)은 남아프리카 전장(戰場)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그 무렵 군대 내에 치과진료시설이나 치과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일부 병력만이 민간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병사들의 식사는 거친 빵과 단단한 비스킷이었고, 입원 환자의 1/3이 치아우식증 단일 질병으로 인하여 군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퇴원할 정도로 병력 손실은 심각하였다. 이처럼 구강병으로 심각한 병력 손실이 야기되자 결국 1900년 2월부터 본국에서 치과의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치료시설은 미비하여 의치 제작은 하지 못하였고 발치는 대부분 마취없이 시행하였다¹⁰⁾. 치과의사법이 통과되었던 1921년에 육군치무병과

6) 신동원, 황상익. 조선말기(1876- 1910) 근대보건의료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醫史學 1996; 5(2):155-167

7) 조영수. 근대 서양치의학의 성립과 발전, 사회와 치의학. 서울, 1994: 한울, 294-304.

8) Royal Army Dental Corps 웹사이트. <http://www.army.mod.uk/medical/dental/index.html>

9) 남아프리카 세계 최대 금광단지인 트란스발을 장악하기 위해 보어인(네덜란드계) 세력과 영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1899-1902).

10) Ward VH. Dentists at War. Minerva Press. Londo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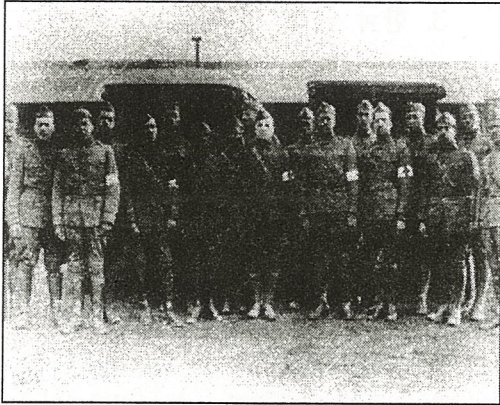


그림 2. 1918년 미 92사단 치과군요관들
(dental officers)

(Army Dental Corps)가 창설되었다.

미국에서도 치과의료는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19세기 후반 이전에는 군대 내에 치과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18세기 후반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 장군도 민간인 치과의사 존 그린우드¹¹⁾로부터 시술받아 의치를 장착하였다¹²⁾. 1840년대에 최초의 치과대학 설립, 치과의사회 결성 등 전문화의 기틀이 잡히자 미국치과의사회(ADA)에서는 육해군에 치과의사 배치를 요구하였다¹³⁾.

남북전쟁 시기에 모병(募兵) 대상자 중 많은 수

가 치아상태가 불량하여 귀가조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총구로 장전하는(muzzle-loaded) 병기의 경우, 탄약통(power cartridge)의 말단부를 치아로 물어 끊어야 했기 때문에 상,하악 6전치(six opposing upper and lower front teeth)의 건강상태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군에 치과의사가 배치되기는 1864년 남군(南軍)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북부에서는 치과의사회 회장(S. S. White)이 대통령(A. Lincoln)을 면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선 1901년에 비로소 13명의 치과의사를 군에 배치하면서 육군치무병과가 설립되었다^{14,15)}.

전쟁은 치과용 재료의 수급에 영향을 끼치거나 대체재료를 개발하게 하기도 한다. 치과용 아말감은 원래 1826년 파리에서 Trauveau가 silver paste로 개발한 것으로 1833년 Crawcour 형제가 미국에 들여와 "Royal mineral succedaneum"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여 크게 인기를 끌었다. 미국에서 치과의사 전국 조직으로는 최초로 1839년에 결성된 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에서는 무자격자들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아말감 충전을 부당시술로 규정하고 회원들에게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도 하였다. 1861년 남북전쟁

11) McCauley HB. American dentistry in the founding years of the Republic. Bull Hist Dent 1978; 26(2):78-84.

12) Robinson, JB. The foundations of professional dentistry. In Maryland State Dental Assoc. and ADA: Proceedings Dental Centenary Celebration, 1840-1940. Baltimore, Waverly Press, 1940.

13) King JE (ed). Highlights in the History of U.S. Army Dentistry. Office of the Chief U. S. Army Dental Corps. Office of Medical History,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2002.
<http://history.amedd.army.mil/ameddcorp/armydentistry/frameindex.html>

14) Jeffcott GF. United States Army Dental Service in World War II. Medical Department,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1955. <http://history.amedd.army.mil/booksdocs/wwii/dental/>

15) Hyson JM. African-American Dental Surgeons and the U.S. Army Dental Corps: a Struggle for Acceptance, 1901-1919,
<http://history.amedd.army.mil/booksdocs/wwi/African-AmericanDentalSurgeons/frameindex.html>

중 11개 주 남북연합의 분리로 인해 치과용 자원이 고갈되고 금박충전 비용(120불)이 병사들 월급(18불)의 7배에 달할 정도가 되면서 대체재로 아말감이 널리 애용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폭탄 제조에 수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말감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Goodyear사(社)에서는 1844년에 고무로 의치상(denture base) 재료를 개발, 1855년 'Vulcanite' 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아 75년간 사용하고 있었다. 역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주요 고무 생산 국가들을 장악하면서 고무 공급이 급감하자, 레진(resin)을 개발하게 되었다. 유연성이 없어 stainless steel로 보강하여 1946년 기준으로 의치상 재료의 95%를 차지하였다¹⁶⁾.

한편,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유럽 각국 국민의 치아우식경험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쟁 중 배급제에 따라 설탕 및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든 것과 연관되는 사실이다. 그 연관성의 본질이 단순히 당분 노출이 줄어들었기 때문(환경적 요인설)이라기보다 치아 발육과정에 미친 긍정적 영향 덕분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었다¹⁷⁾. 노르웨이와 일본에서도 전쟁기간 중 치아우식경험정도가 감소하였다가 전후에 다시 회복되는 경향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다¹⁸⁾.

3. 한국 근대 치과의료와 전쟁

3-1. 개항과 군(軍)병원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이 일본 및 서구 각국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원산, 인천(제물포) 등 개항지 및 서울에는 외국인 거류민이 급증하고 자국세력 확대와 경제적 침탈을 겨냥한 각국 간 각축이 치열해졌다¹⁹⁾. 개항 직후 서울과 각 개항지에는 일본에 의해 병원이 속속 건립되었다(표 1). 각 병원들은 모두 일본 외무성이 주도하여 군(軍)에서 설립, 운영하다가 갑신정변(1884)년 이후 점차 거류민에게 이양하여 거류민 직영 공립병원으로 개칭하고 공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감독하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²⁰⁾. 부산의 제생의원은 청·일전쟁 시 병참병원으로 전환하여 부상자를 치료하였다. 한성병원은 1895년 사립으로 개설되었으나 1897년 일본 해군사령부에서 인수하여 해군 군의(軍醫)들이 원장을 역임하였다. 인천의원 은 갑신정변 때 일본인 부상자의 응급치료, 후송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거류민 운영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시기에 병참병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최초의 치과의사 노다 오오지(野田應治, 1871- 1930)가 16세에 처음 조선

16) Bober-Moken IG. War's impact on dental materials. Bull Hist Dent 1992; 40(2):95-97.

17) Sognnaes RF. Analysis of wartime reduction of dental caries in european children. Ame J Disabled Child. 1948; 75:792-821.

18) Toverud G. The influence of war and post-war conditions on the teeth of Norwegian school children. Milb Mem Fund Quar 1957; 35: 127-196, 373-459.

Takahashi K. Statistical study on caries incidence in the first molar in relation to the amount of sugar consumption. Bull Tokyo Dent Coll 1961; 2: 44-57

Takeuchi M. Epidemiological study on relation between dental caries incidence and sugar consumption. Bull Tokyo Dent Coll 1960; 1: 58-70

19) 이하 내용은 “조영수. 일본인 치과의사의 조선 진출: 1893-1910. 大韓齒科醫史學會誌 1988; 17(1): 37-53.” 을 참조하였음.

20) 기창덕. 조선시대말 개명기의 의료(1). 醫史學 1996; 5(2):169-196.

표 1. 개항지 및 서울의 일본병원 현황*

지역	개항/설치	병원명	시기	초대 원장	운영 이관 현황
부산	1876년 개항	濟生醫院	1877. 2	해군 大軍醫 야노(矢野義徹)	해군 --> 육군 -> 共立 -> 公立 -> 거류민단립-> 府立 1883.4 1885.4 1894 1906 1914
원산	1880.5 개항	生生醫院	1880. 5	해군 大軍醫 야노(矢野義徹)	해군 --> 육군 --> 共立 --> 公立 1884.4 1886.5 1906.9
인천	1883.1 개항	仁川日本醫院	1883.10	육군 三等軍醫 다나카(田中親之)	육군 --> 共立 --> 公立 -> 公醫 -> 거류민단립 1886.3 1888.4 1894 1906
서울	1880.11 설치	日本公使館附屬 (京城)醫院	1883. 4	육군 一等軍醫 우미세(海瀨敏行)	육군 --> 갑신정변이후 폐쇄 -> 파견개업의(古城梅溪) 1886
	1895. 개설(민간)	漢城病院	1897.6	해군 軍醫 스즈끼(鈴木裕三)	해군 --> 團立한성병원 -> 경성공립한성병원 1904.9 1905.

* 기창덕. 증보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 249-52, 279-82
기창덕. 조선시대말 개명기의 의료(1). 醫史學. 1996; 5(2):169-196

에 건너와 근무한 곳이 인천공립병원(인천일본의 원 후신, 1886년)이었다²¹⁾.

이처럼 개항기 이후 일제가 건립한 병원들은 초기에는 조선인 진료 및 구료(救療)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조선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전시적 의료기관으로써 거류민 보호 및 진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3-2. 청·일전쟁

청·일전쟁(1894-1895)은 동학농민혁명의 진압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조선을 지배하려는 청·일 두 나라간의 무력 충돌이었다. 전쟁의 전개 과정은 치과의사 노다의 행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처음 인천에서 개업하여 고작 10개월이 지난 1894

년 4월, 그는 일본인 거류민이 인천보다 오히려 적은 서울(漢城)로 “희망을 가지고”²²⁾ 치과의원을 이전한다. 조선에 대한 세력 확대와 상권장악을 둘러싸고 청일간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본 세력이 조선의 중심부에 진출하는 시점이다. 그가 일본인 거주지역의 주변인 소공동 건너 남대문통에서 여성 조수를 고용, 개업하고²³⁾ 주변 조선인 주민들의 잦은 ‘투석’을 견디기 두 달 뒤, 6월에 전쟁이 발발하여 일본군이 서울에 진군하고 이후 석 달 동안 6천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왔다.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승승장구 세력을 확대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급증하였다. 1896년 당시 국내의 전체 외국인 18,000여명 중 일본인이 85%에 달했으며, 1897년 개항지의 일본인 거주민은 전체 외국인의 95%

21)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一), 朝鮮之齒界 1930; 1(1):16.

22)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二), 半島齒科界ノ鼻祖 野田應治氏事績(上). 朝鮮之齒界 1930; 1(2):12

23) “大韓婦人의 齒病은 또한 婦醫가 잇서 接治할터” 기창덕. 증보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 305

24) 비숍 IB.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 살림. 533-4

를 차지하고 있었다(표2)²⁴⁾. 노다는 신흥 일본인지 역의 중심 진고개(泥岬)²⁵⁾로 이전하고, 1896년에는 조선친위대²⁶⁾ 병졸모집 체격검사위원이 된다²⁷⁾. “은인자중(隱忍自重)하고 대중을 향해 기회 있을 때마다 치과위생사상 보급에 노력하고 전력으로 치과 의료에 임하였기에 해가 갈수록 환자수가 점점 증하고 원무(院務)의 융성을 보기에 이르렀다”²⁸⁾.

3-3. 러·일전쟁 (1904-05)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었으나 안개가 짙게 끼었다. 정오 5분 전이었다. 일본 함대가 포격을 시작하자 요란스런 포성이 바람도 없는 해협의 정적을 산산이 깨트리며 그 도시에 있는 가옥들을 흔들었다...”

미국인 H. B. 헐버트(1863-1949)는 ‘대한제국멸망사’에서 인천 앞바다에 일본군 2,500명이 상륙하는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20세기 한국과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러·일 전쟁의 시작이었다. 러·일 전쟁은 조선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마지막 한판 승부였다. 이미 일제는 1904년 초 대화정(大和町) 2정목²⁹⁾에 병영을 지어 일본군 수비대를 집결시키고 3월 20일 동경에서 한국주차군사령부(韓國駐紮軍司令部)를 편성, 4월 3일 거류민 보호

라는 명목으로 서울에 진주하였다. 일본은 서울에 2개 사단, 인천과 압록강에 10만군을 집결하였다. 치과의사 노다는 전쟁기간동안 자원종군하였다. “치질(齒疾) 환자가 적지 않음을 목도하고 측은의정을 금할 수 없어” 또한, “자기 본직으로 진충보국한다는 평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기뻐하여”, 만주군 총사령부 육군대신(寺內正毅)으로부터 받은 종군증과 경성병참사령관의 소개문을 지참하고 1년 이상 만주, 대련, 봉천 등지에서 5,000여명의 일본군을 치료하고 감사장과 훈장을 받았다³⁰⁾.

영국과 미국 등의 비호아래 1905년 7월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종료되고 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은 실질적인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앞을 다투는 이민으로 인하여 일본인 가옥의 증축은 하루에 삼백간(軒)”³¹⁾에 이를 정도로 일본인 이민이 폭주하였다. 조선을 장악한 일본은 식민지 지배층을 위해 대한의원과 지방의 자혜의원을 정비하고 요직을 일본인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위생업무를 지방국에서 경무국으로 옮겨 경찰과 헌병조직이 앞장서서 지방 단위까지 보건의료체계를 재편, ‘보건의료의 식민지화’를 추진하였다³²⁾. 동인회(同仁會)³³⁾를 앞세워 군사용 경부선 철도부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철도축착의를 각지에 배치하였으며, 대구, 평양등 조선 각지에 동인의원

25) 本町 1丁目, 本通(지금의 충무로 1가). 이 지역은 일본공사관(남산), 明治町(명동)과 本町通(충무로), 大和町(필동) 등 일본인 상권과 거주지역의 중심부에 해당.

26) 전쟁 후 국왕과 서울 호위를 위해 창설되었으나 항일의병에 대한 무력 진압에 동원됨.

27) 大澤義誠. 앞의 글:13

28)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三), 半島齒科界ノ鼻祖 野田應治氏事績(中). 朝鮮之齒界 1930; 1(3):7-9

29) 지금의 필동 2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6-2-7-2.html>

30) 大澤義誠. 앞의 글:9

31) 檜崎東陽. 朝鮮齒科界ノ追憶. 朝鮮之齒界. 1930; 1(1):13-15.

32)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1995, 신동원, 황상익. 앞의 글.

33) 1902년 창립. 한국 및 중국에 대한 침략의료의 첩병역할을 하는 민간단체 (기창덕. 앞의 책. 1995:291-2)

표 2. 1900년대 주요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입국과 개업 현황*

이름	시 기	직 위	시 기	개업위치 / 신분
노다오오지 (野田應治)	1887	인천의원 조수	1893.3	인천->남대문->진고개
시게시로 (重城養二)	1904	團立한성병원	1905	이직
나라사끼 (檜崎東陽)	1905.9	한국주차군사령부	1906.6	남산정 3정목->2정목
이이쓰가 (飯塚 徹)	1905.9	共立한성병원	1907.2	남산정 3정목
나카무라 (中村安子)	-	-	1909(?)	영락정(본정3정목)
시메우찌 (注連内堅石)	1907(?)	한국주차군사령부	1909	?

*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一), 朝鮮之齒界 1930; 1(1):15-8
이한수, 치과의사학.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116-20
기창덕. 증보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310-1

을 설립하였다. 침략의료의 선봉이었던 후지다 군 의감에 의해 동인의원은 1909년 자혜의원으로 전환되고, 합방 후에는 도립병원으로 변모하게 된다. 한국주차군사령부³⁴⁾는 처음 대관정(大觀亭, 현 소공동 롯데백화점 구관 자리)에 주둔했으나, 종전 직후 8월 대화동(大化町, 필동)으로 이전하였다³⁵⁾. 10월에는 사령관의 직계를 높여 대장으로 하고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³⁶⁾가 부임해 왔다. 그는 만주 요양(遼陽)에서 러시아와 싸워 이긴 자로 만주에서 바로 서울로 부임해 온 것이다.

러·일전쟁은 일본인 치과의사를 조선으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육군성은 출정하는 군

부대에 치과의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는데, 일본의 육군병원 중 최초로 치과를 개설한 곳이 한국주차군사령부였다³⁷⁾. 1905년 9월, 두 명의 일본인 치과의사, 즉, 한국주차군사령부와 한성병원³⁸⁾에 각각 부임하는 나라사끼 도오요오(檜崎東陽)³⁹⁾와 이이쓰가 데쓰(飯塚徹)가 입국하였다⁴⁰⁾. 사령부 뒤 남산공원 주변에 숙소를 잡은 나라사끼는 이또오(伊藤博文) 통감, 각국 주재공사, 한국인 고위인사, 군장교 등을 치료하였다. 1906년 2월부터 2달간 평양 파견근무 후 사임하고 귀국, 6월에 가족을 이끌고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 남산정에 개업하였다. 노다보다 연장자였던 그는 훗날 경성치과의사회장과

34) 1907년 10월 한국주차헌병대로 개칭, 합방 후 조선헌병대로 개편. 헌병대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는 '헌병 경찰제'로 식민지 무력지배의 선봉역할 (정재성 외. 서울근현대 역사기행. 헤안. 1998. 188쪽).

35) 해방 후 수도경비사령부, 1980년대에 수도방위사령부로 재편. 현재 남산골 한옥마을 자리.

36) 추후 제2대 조선총독. 소공로를 그의 이름을 따서 하세가와정(長谷川町)으로 부름.

37) 檜崎東陽. 앞의 글:14.

38) 1897년에 해군 軍醫 스즈기(鈴木裕三)가 매입, 공립한성병원으로 된 후 1904년 '京城團立漢城病院'으로 거류민단이 운영하면서, 치과를 개설하고 시게시로(重城養二)부임, 1905년 공립한성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치과를 독립시키고 2층으로 증축 (기창덕. 증보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 279-80, 310).

39) 1872년 생, 1891년 일본 내무성 치과의적등록 제157호.

40) 박명진. 한국의 치과의학.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1(1):6-12, 신인철. 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1(1):13-30

조선치과의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조선 치과계의 중심인물로 자리잡는다. 시계시로 야스지(重城養二)의 후임으로 부임했던 한성병원의 이이쓰가는 1년여 후 귀국하였다가 1907년 2월에 조선으로 되돌아 와서 역시 남산정에 개원하였다⁴¹⁾.

노다, 나라자끼, 이이쓰가 - 이들이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치과의사의 선봉이었으며, 그 후로도 전쟁을 계기로 군관립병원에 부임하는 형식으로 조선으로 건너와 그 후 개업하는 유형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주차군사령부에 나라자끼의 후임으로 근무하면서 동인회의 용산 동인의원⁴²⁾ 치과부에 출장진료를 하던 시메우찌 켄세끼(注連内堅石) 역시 1909년에 개업하였다. 일제에 의해 개편된 대한의원⁴³⁾에 치과가 설치되어 1909년 11월 와다나베 마사카츠(渡邊定亮)가 근무하였다.

일본인 거류민 증가에 따라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관민을 통털어 5명⁴⁴⁾”이 되자 나라자끼의 주도로 “남산정 국취루에 모여 동업(同業)의 통일”을 도모했다⁴⁵⁾. 그들은 대개, 전쟁과 조선통치를 위한 ‘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공관립의원의 ‘치과’ 근무를 계기로 조선에 왔으며, 여러 가지로 열악한 주변 환경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경성에 입치사의 개업이 각소(各所)에 번식(繁殖)⁴⁶⁾”하고, “명치40년(1907년)을 전후해서 경

성을 시작으로 조선 주요 도시에 입치영업자의 족생(簇生)이 나타나고 그 수도 치과의사의 수배⁴⁷⁾에 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일본에서 입치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신천지 조선으로 일본 입치사들이 건너오기 시작하였다. 1902년 가을 진고개(泥岨) 옥(旭)여관에 ‘치과치료소(治療所)’를 개업하여 노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던 코모리(小森)⁴⁸⁾, 1904년 목포에서 개업했던 미나미찌(水道)⁴⁹⁾ 등이 그들이다. 1906년 일본 치과의사법 제정으로 치과의사에게 독점권이 보장되고 종래 입치업자들의 자유 개업이 어려워지자⁵⁰⁾ 일본인 이주자가 20만에 달하는 조선으로 건너 온 입치업자의 수는 1907년에 이미 치과의사 수의 몇 배에 달하고 있었다. 더구나 러·일전쟁 종료후 제대한 군인들이 귀국하지 않고 조선에 잔류하여 “일본인 거류민단 내에 정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성업(盛業)을 극(極)⁵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과거 입치업자 출신이거나 새로이 기술을 습득한 자들이었다. 한편, 1907년 최승룡(崔承龍), 안중수(安重修), 1908년 김한표(金漢杓), 김경집(金敬執), 신정휴(申正休), 1909년 임순철(林舜喆)⁵²⁾ 등 초창기 조선인 입치업자들은 주로 조선인 상권의 중심 종로에 “잇방(牙房), 치술원(齒術院),” 흔히 막는 집 등의 명의로 개업하였다.⁵³⁾

41)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一), 朝鮮之齒界 1930; 1(1):16-17.

42) 1913년에 용산철도병원으로 개칭, 1926년 철도국 직영으로 이관 (기창덕. 앞의 책. 1995:294)

43) 기존의 광제원, 의학교, 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1907년 3월에 대한의원 설립을 공포, 합병후 조선총독부의원

44) 개업의 4명(노다, 나라자끼, 이이쓰가, 나까무라)과 대한의원 와다나베

45) 檜崎東陽. 앞의 글:14. 경성치과의사회 창립은 1912년(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참운. 2004. 102-3쪽).

46) 檜崎東陽. 앞의 글:14.

47)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一), 朝鮮之齒界 1930; 1(1):17.

48) 황성신문, 1902년 9월 9일자

49) 이한수, 치과의사학.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341

50) 기창덕. 위의 책:311

51) 瀬戸俊一. 韓國 齒學史についての 一考察. 齒學史研究 1969; 2:25-27.

52) 일본인 치과의사 오세기(大關, 1907년 평양 개업)에게 2년간 私事, 1909년 2월 17일 개성 남대문에 大韓齒科病院 개업 (기창덕. 앞의 책:311)

“...당시 물론 한국인 치과의사는 한 사람도 없고 외국인들밖에 없었는데 그런 기관에 우리 한국인이 제자로 들어가서 기공을 습득하여 입치영업자라는 ‘이 해박는 집’ 간판을 걸고 상점간판 모양으로 의치모형도를 간판 또는 유리창에 그려 붙이고 입치전문(入齒專門)의 행위를...”⁵⁴⁾

즉, 러·일전쟁을 계기로 군공립병원 근무로 조선에 온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일본인 지배층, 조선 고관, 외교사절 등 사회 상층부를 상대하면서 치과계의 지도층을 형성하였다. 병졸로 참전했던 일반 사병출신이나 일본에서 건너온 입치영업자들은 주로 일본인 일반 거류민이나 조선인을 상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노다(野田)와 고모리(小森)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차별 없는 경쟁관계를 빚자 치과의사 조직의 결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공동의 권익과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전문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3-4.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

3.1 운동이후 헌병과 경찰을 앞세우던 무력통치가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1920년대에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학교를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고, 학회와 조직을 결성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면서 이 땅에 그들 나름의 치과의료체계를 세운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치과의료수요의 확대, 전문인력 배출의 급증, 경쟁적인 학회활동 및 연구 등으로

국내 치과의학계는 발전의 절정에 이르렀으나,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으로 점차 전시체계에 편입된다.

1931년 만주사변이후 1932년에 만주국이 세워지자 그 해 11월에 창간된 ‘만선지치계(滿鮮之齒界)’는 194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발간된 월간지로, 조선과 만주, 그리고 일본의 치과의료체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가 문부성 지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 졸업생이 개업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조선과 만주에 국한되었다. 일제가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최대한 활용한 것처럼, 일본 치과의료체계는 조선 치과계의 인적, 물적 자산을 매개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점령지가 중국대륙⁵⁵⁾과 동남아로 확대되는 과정을 따라 치과의료의 대동아공영권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군국주의와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교련’은 거의 군대훈련과 다름없었다. 평소 복장은 국방생 교복에 각반으로 발목을 동여맸으며, 월요일 오후 4시간 동안 현역 장교인 교관의 인솔 하에 용산 육군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았다. 휴강시간에는 전교생이 상반신을 벗은 채로 “반다노사꾸라까에~리노이로”라는 군가를 목청 높여 부르면서 남대문로를 거쳐 남산순환도로를 일주하기도 하였으며, 소공동 소재 학교에서 용산의 연병장까지 완전무장하고 구보로 달리기도 하였다⁵⁶⁾.

전쟁이 확대되면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치과의사에게 1-2년 단기교육을 거쳐 일반의사 자격을 주도록 하자는 ‘의치일원화’ 제안에 대해⁵⁷⁾, 일

53) 이한수. 한국치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412-5.

54) 신인철. 앞의 글:15.

55) 북경대학의학부속의원 치과진료실을 방문하여. 臨床齒科 1942.4; 14(4):81-

중화민국인의 치과학적연구 제론.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대해. 臨床齒科 1943; 15(1):29-36

56) 박상모. 학생군사훈련. 나의치과입문(16). 치의신보 1986.4.26.

57) 板本豊美. 日本的 齒科醫學 建設의 理念-隨想으로서 醫齒一元化의 檢討. 臨床齒科 1942; 14(7): 65-69



그림 3. 전쟁초 불타버린 서울역앞 세브란스병원 (1950. 11. 24.)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100&no=149374&rel_no=30 (2004.3.11)

본 치과계 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였으나 조선의 경성치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 경성치전교우회 만주연합본부“를 통하여 만주에 전파하고자 했다⁵⁸⁾. 일찍이 전쟁(청·일, 러·일)을 계기로 조선에 진출하여 반세기동안 그들의 치과 의료체계를 정립하였던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다시 전쟁으로 인하여, 즉,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미군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떠나게 된다. 그들중 한 지도급 인사는 “... 우리들이 그 땅에 심어둔 치과 의학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맞볼 때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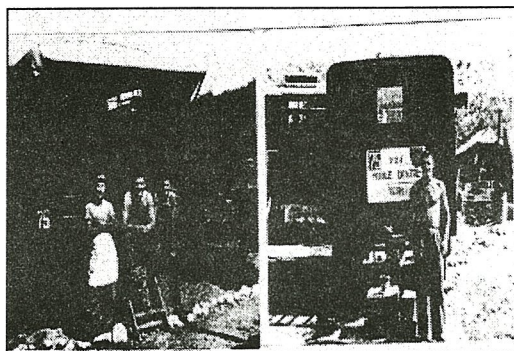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전쟁 전투지역 이동치과진료팀 및 차량(영국군)

3-5. 미군정과 한국전쟁

8.15해방이 우리 힘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라 주어진 것이었듯이, 한국 치과의료 역시 패전국 일본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미국에 의해 새로이 재편되었다. 50년동안 자리잡고 있던 그들의 자취에서 청산할 것과 간직할 것을 구분할 여유도 없이 다시 미국식 치과의료체계에 시선을 맞추게 되었다. 군정당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미국유학파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기 주요 위치에 있던 소수 치과의사들이 전면에서 나서게 되면서 치과계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반복되기도 하였다⁶⁰⁾. 한국전쟁 시기 치과계의 피해상황은 적지 않아서, 전쟁 전 서울의 개업치의 214명 중 이재율은 80%이며, 치과의사로서 납치 또는 행방 불명, 사망자는 1백명에 이르렀다⁶¹⁾. 한국전쟁 시기 미군 치무병과(Army Dental Corps)의 규모는

58) 茂田 貴一. 만주국에 있어서 치의일원화문제에 대하여. 임상치과 1943; 15(2):41-47

59) 生田信保. 京城帝國大學醫學部 齒科學教室 沿革. 齒界展望. 1954; 11(15):45-7.

60) 해방이후의 치과의사단체-과도기적 혼란과 진통.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 치과임상. 1986; 5(12):32-37.

61) 이주연. 한국치과의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 고찰. 大韓齒科醫史學會誌 2001; 20(1):..



그림 5. 한국군 악안면 손상환자의 치유 과정(술전, 후, 6주후)

치과군의관 2,641명과 보조요원 370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였으며, 그 중 치과군의관 2명이 전사하고 1명은 실종 후 사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⁶²⁾.

이 전쟁을 통해 미국 군진의학⁶³⁾, 그리고 구강악안면외과도 크게 발전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부상자를 일본 동경의 군병원으로 후송하는데 급급하였으나, 후반에는 한국내에 구강외과의사를 배치하여 조기처치를 촉진하였다⁶⁴⁾. 종전 후 1954년 4월 미국 워싱턴의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에서 발표된 사례(그림 5)에서 “전선에서 후

송된 한국인 병사로, 창상의 정도로 보아 조기 처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광범위한 재건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정도는 아니어서 원위치로 봉합이 가능하였다”⁶⁵⁾고 평가하고 있다.

군진치과요를 주축으로 하는 구강악안면성형외과의 급속한 발전, 연합군 의료진 파견과 기술지원, 기자재 및 의약품의 보급과 선진치의학지식의 전수⁶⁶⁾, 장단기연수 및 도미수련유학기회의 확대⁶⁷⁾, 인턴과 레지던트 제도 도입⁶⁸⁾ 등 한

62) King JE (ed). Highlights in the History of U.S. Army Dentistry. Office of the Chief U.S. Army Dental Corps. Office of Medical History,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2002.

<http://history.amedd.army.mil/ameddcorp/armydentistry/frameindex.html>

63) Wirthlin MR. Operation recovery. U.S. Armed Forces Med J 1954;5(8):1199-1204

64) Chipps JE, Canham RG, Makel HP. Intermediate treatment of maxillofacial injuries. U. S. Armed Forces Med J. 1953; July 4(7):951-976.

Lighterman II. The division of oral surgeon in Korea.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 1956; 9: 239-252.

65) Soderberg BN, Chipps JE. Maxillofacial Injuries. A Supplement to the Discussion of Specific Primary Considerations in Plastic Surgery, Presented 23 April 1954, to the Course on Recent Advances in Medicine and Surgery, Army Medical Service Graduate School,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Washington, D. C.

66) 1959년 11월 7일 주한미육해공군 치과군의관들로 창립된 미8군 38선 치과학회 (38th Parallel Dental Society)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67) 총 60여명이 도미 유학하였음.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1999 육군본부, 38쪽

68) 1959년부터 Kim's Plan 도입.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1999 육군본부, 61쪽

국전쟁을 계기로 국내 군진치과 뿐 아니라 치과계 전체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화, 발전하였고, 한국 치과의료가 미국식으로 재편되어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또한 1965년 월남전 참전을 거치면서 구강악안면외과분야를 중심으로 군진치과는 더욱 발전하였다.

6. 마무리

마치 1945년 해방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근대 서양치과의료는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도입되어 성장해 왔다⁶⁹⁾. 일본에 의해 시작되어 50년, 다시 미국식 체계로 재편되고 60년이 경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식민지 침략전쟁

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른 해방과 동족상잔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한국 근대사를 규정하고 있다. 전쟁에 따른 지형의 변화는 한국치과의료체계에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투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서구 및 우리나라 근대사를 통해 전쟁과 치과의료 상호간의 연관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치과의료의 사회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시장 개방⁷⁰⁾의 파고와 건강보험제도 개편, 전문치과의사제도 도입 등 산적한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한 치과의료체계를 정립하는 사회적 실천에 치과계도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간 역사에서 교훈과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9) 이종찬.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발전 전략: 역사사회학적 관점. 大韓齒科醫史學會誌 1988; 17(1):28.

70) 최근 인천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130년 전 제물포를 개항하면서 일본의원들이 들어선 것을 연상케 한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치의학 교육 개혁과 구강과 운동¹⁾

조영수*

I. 서론

근대 치과의료가 성장하면서 치과의사가 전문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은 각 나라마다 사회 문화적 조건에 따라, 특히 '의과'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²⁾. 미국은 17세기부터 유럽으로부터 근대 치의학을 전수받았으나 기술 발달과 자유방임적 사회 여건에 힘입어 독자적인 직업군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오히려 유럽을 앞지르게 되었다. 특히 19세기 중반에 치과의사의 전국 조직 결성, 학술지 발간, 치의학 교육기관 설립 등을 집중적으로 이루어 내면서 전문직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이미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있던 '의과'로부터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인 것이 아니어서, 치의학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과'와 '치과'간에 갈등이 지속되었다. 20세기 전반부를 관통하였던 치아병소감염설(dental focal infection theory)은 과학적,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채 기술적 정교함에만 치중하고 있던 당시 치과의료에 대한 의학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치과계의 대응으로 빚어졌던 파장이었다. 1920년대에는 치의학의 방향, 치과의료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과 실천방안이 제시되었다. 의사 전문직과는 별도의 치과의사 전문직의 독자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자치론자(autonomists)들을 중심으로 치과의료체계가

공고화되어 가는 과정이 대세였다면, 일부 소수의 구강학자(stomatologists)들은 치과를 의학의 한 분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1세기에 걸친 한국 치의학 교육의 역사는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의 치과의료사(史)에서 큰 분수령의 하나였던 1920년대를 중심으로 미국 치의학 교육 개혁과 구강과 운동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여, 앞으로 한국 치의학 발전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19세기 미국 치과의료 및 치의학 교육

중세이후 유럽에서 치과시술은 이발외과의



그림 1. 촛불조명아래 하악전치를 발거하는 이발외과의(barber-surgeon). 벽에 이발기구들이 걸려 있다. Gerard von Honthorst의 1922년 작품.

* 백상치과의원

1) 이 글은 제3회 대한기초치의학학술대회(2004.1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조영수. 근대 서양치의학의 성립과 발전, 사회와 치의학. 서울, 1994: 한울, 294-304.



그림 2. 치과진료를 다룬 최초의 판화.
Lucas van Leyden, 1523
년.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소장.

(barber-surgeon, 그림 1), 또는 떠돌이 행상(itinerants, charlatan, quackery, mountebank, 그림 2)에 의해 수행되는 장인(匠人, artisan)의 영역이었다.

근대 치과의료는 17-18세기 프랑스가 앞장서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8세기까지도 치과시술자를 'tooth-drawer', 'tooth-puller'로 부르고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미 17세기 말에 'dentist'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³⁾. 19세기 유럽의 치의학은 병리학, 외과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정교함은 부족하였다. 미국은 식민지 초기부터 유럽으로부터 치과의료를 이식받아, 사

회적 규제 없이 자유방임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일반의료분야에서는 이미 18세기부터 유럽 의사면허가 있거나 도제제도(apprenticeship)를 거쳐야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치과는 도제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도 누구나 자의적으로 치과시술을 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미국의 치과의료를 'mechanical dentistry'라고 할 정도로 과학적 토대는 취약하고 'art(技藝, 術)'의 측면이 강하여 기계적 정교함에 치중하였다.

2-1. 1840년

치과의사의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가 시작되는 결정적 시기로 흔히 1840년을 꼽는다. 전국 조직 결성(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 교육기관 설립(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 전문학술지 창간(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이 이 무렵에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초의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부각되는 볼티모어 치과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의 이면(裏面)은 두고두고 치의학 발전의 초석(礎石)으로 강조되고 있다.

치과계의 지도급 인사 하이든(H. Hayden)⁴⁾과 해리스(C. Harris)는 이전부터 치과학 강의를 한 바 있던 매릴랜드 의과대학 측에 정식으로 치과학 교실 설치를 청원하였으나 대학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의과대학 당국에서는 'artisan(匠人, 기술공)'의 분야인 치과 시술을 배우려면 의학 교육이 아닌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치아 및 주위조직이 일반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3) Pierre Fauchard(1678-1761). 1728년 "La Churgien Dentiste(,외과치과의)" 저술.

4) Hayden(1769-1844). 1840년 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 초대회장. 1841년 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 창간, 1840년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 설립. (홍 예표. 치과 의학 교육의 개조 Dr. Horace H. Hayden.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92; 30(6): 469-70)

않았다. 즉, 치과를 의학영역의 한 분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었다. 이에 하이든과 해리스는 방향을 선회하여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 볼티모어 치과대학을 설립하였다. 첫 입학생 5명의 받아 4개월 과정을 거쳐 2명이 졸업하였으며, 향후 25년간 369명을 배출하게 된다.

대부분의 치의학사(史)는 당시 의과(대학) 측에서 치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역사적 거절(historic rebuff)”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당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치과’가 독자적이고 자치적인 전문분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과 측의 오만과 경멸을 극복,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하고 특별한 창의성(inventiveness)으로 세계 치과계를 이끌게 되었다는 자부심⁵⁾이 역력히 풍겨나는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훗날, 구강학자들의 ‘역사’에서는 ‘독자적 치과대학 설립’ 사건을 ‘범죄’라고까지 혹평하고 있다⁶⁾. 애초에 ‘치과’만의 자치적(autonomous) 대학을 만듦으로써 의학의 한 전문과가 되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강하게 느껴진다.

2-2. 19세기 후반

치과의사의 전국조직 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는 1843년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면서 촉발되었던 아말감 전쟁의 여진과 내부 알력

으로 1856년 해산하였다. American Dental Convention(1855-76)을 거쳐, ADA(1859-97)과 SDA(1869-97)이 NDA (1897)으로 개편과 병합(1913)을 이루고 1922년 다시 American Dental Association으로 출범하였다. 1845년 오하이오 치과대학이 두 번째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1865년까지도 치과대학은 총 4개교로 졸업생은 61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하였다. 의과 측에서는 대학에서 치의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사교육, 즉 도제제도를 통해 얻는 이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라도 치과대학이 생기는 것을 내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존재하였다. 도제는 개별적 차원에서 기계에 대한 소질과 품성을 기준으로 선발되며, 일정한 비용(1년에 150~250불)을 내고 허드렛일부터 시작한다. 훈련기간(대개 3년)을 마친 후 해당 구역에서는 시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⁷⁾.

대학교 계열(university-affiliated)로는 처음으로 1867년에 하버드 대학교에 연 4개월 과정으로 치과대학이 설립되었다^{8,9)}. 기술(practical)교육에 치중하는 기존의 치과대학과 차별화하여 학술(academic)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교수는 의대 교수로 국한하였다. 기존 치과대학에서는 졸업 후 학위로 ‘Doctor of Dental Surgery (D.D.S., *Chirurgiae Dentium Doctoris*)’를 부여하였는데 하버드 치과대학에서는 D.D.S.와 동일한 약어(略語)를 쓰면서도 학술적 의미를 부각하려는 취지에

5) Gies WJ. Dent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 Report to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Carnegie Foundation Bulletin no 19, New York. 1926. p7.

6) Asgis AJ. The history of stomatology. Medical Life 1926; 33(7):321.

7) Bruckner RJ, Clarke JH, Bruckner JS. Dental preceptorships of the 19th century: what were they like? Bull Hist Dent 1988

8) Deranian HM. From Baltimore to Bost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dental schools in Boston. Bull Hist Dent 1993; 41(2):59-66.

9) A hundred years of Harvard Dentistry. New Eng J Med 1967 may 4, 276:1038

서 학위 명칭을 'Doctor of Dental Science (D.D.S., *Scientiae Dentium Doctoris*)'으로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 본부에서는 “치과'를 과학(science)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명칭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결국 'Doctor of Dental Medicine (D.M.D., *Dentariae Medicinae Doctoris*)'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868년 캔터키, 뉴욕, 오하이오 등 3개 주(州)에서 면허제를 도입하면서 치과기술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주치과의사회에서 면허시험을 주관하면서, 치과대학을 2년 수강 후 2년(하버드는 3년) 동안 개업의의 지도(도제)를 받게 하였다. 1870년에 전국의 치과의사 7,800 여명 중 치과대학 졸업생은 1,300 여명이었다. 치과대학은 입학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기간도 의과대학의 절반인 2년이었으며 실험시설이나 교수진은 빈약했으나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임상실습(pay clinics)을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뉴욕 주에서는 1868년부터 주치과의사회 주관으로 시험을 치루고 1870년부터 'Master of Dental Surgery' 학위를 부여하였는데 1891년 ADA 교육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1901년 폐지된 바 있다.¹⁰⁾

치과의사 면허 응시자격요건은 주(州)마다 달라서, 치과대학 학위 이외에도 일정기간의 도제교육 및 개업 경력도 자격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볼티모어 치과대학을 위시하여 많은 대학으로부터 명예(honorary)학위를 받은 원로급 인사들도 자격을 얻었다.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는 주가 차차 늘어나면서 상업적, 즉 영리 목적(commercialism)의 사설 치과대학이 난립하게 되었다. 1890년을 전후하여 급증했던 이 치과대학들은 '아주 수지 많은 사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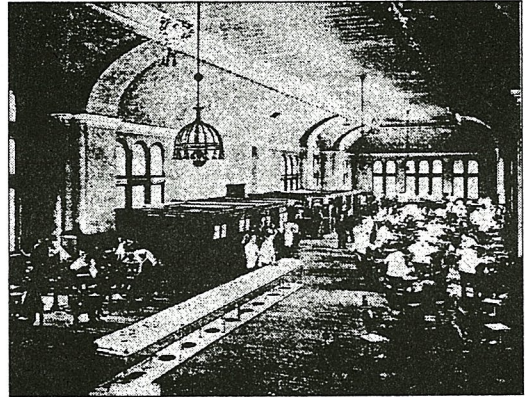


그림 3.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 1904년

‘분주한 학위 제조공장(busy diploma mills)’이라고 불리울 정도였다. 주법률에 따라 설립, 수준 낮은 치과의사가 운영하면서 개업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졸업장을 헐값에 팔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독일에서도 판매되는 등, 유럽에서 ‘미국 치과’에 대한 평판은 실추되었다. 더불어 도제제도는 위축



그림 4. Tuft Dental College, 1910년

10) Zambite RF. Master of Dental Surgery: the nineteenth century degree of the Dental Society of the State of New York. JADA 1971: 82:483-486

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게 된다. 19세기 말에 전체 28,000 여 치과의사 중 도제출신은 40%(11,300명)로 줄어들었으며 1926년에는 3%로 급감하였다.

1884년 이래 '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Faculties, 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Education' 등 치의학교육 관련조직들은 상업주의적 성격이 강하였다. 하버드 치과대학 등 대학교 계열의 6개 치과대학들은 이에 반발하여 별도로 'Dental Faculties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를 결성하였다. 양측은 1923년에 다시 병합하여 28개 치과대학이 'American Association of Dental Schools'를 조직하고, 입학 자격, 수학(修學) 기간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3. 치아병소감염설

19세기 말에 세균학의 발달로 미생물이 인체에 들어오는 입구인 '구강'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밀러(W.R. Miller)는 이미 구강이 'focus of infection'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치과'영역에서 'biology'을 탐구하면서 '의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치과의 토대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치의학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이 전개된다.



그림 5. W. Hunter

구강병이 인체 다른 부위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병소감염(病巢感染, focal infection, Herdinfecion, oral sepsis, 충소성감염)설이 제기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던 것은 20세기 초반이다. 영국의 내과 의사 William Hunter가 1910년 캐나다 맥길대학에서 'The role of sepsis and anti-sepsis in medicine'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미국 치과의료를 'septic dentistry'라고 혹평하면서 불량하고 잘못된 치과시술과 보철물들이 수많은 전신질환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내용이 *Lancet*에 실려 의료계에 크게 회자되고¹¹⁾ 다시 그 내용이 *Dental Cosmos*에 게재되면서 그동안 앞선 기술을 자랑하던 미국 치과계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¹²⁾. Frank Billing은 미생물이 증식하여 전신질환의 원천이 되는 치아주위의 작은 낭(pocket)을 제거해야

11) Hunter W. The role of sepsis and of antisepsis in medicine. *Lancet* 14 January 1911; 1:79-86

12) Francke OC. William Hunter's "oral Sepsis and American stomatology. *Bull Hist Dent* 1973;21(2):73-79. / Easlick KA (ed.) An evaluation of the effect of dental foci of infection on health. *JADA* 1951; Jun 42; 615-633 / De Stefano TM. Stomatology revisited: the solution for professional dentistry in American society. *J Ame Coll Dent* 1975; 41.

13) Billing F. Chronic focal infections and their etiologic relations to arthritis and nephritis. *Arch Int Med* 1912; 9:484-89. / Billing F, Focal infection: its broader application in the etiology of general disease. *JAMA* 1914; 63:899-903. / Rosenow EC.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ies on focal infection and elective localization: newer findings and their significance. *JADA* 1924; 11:96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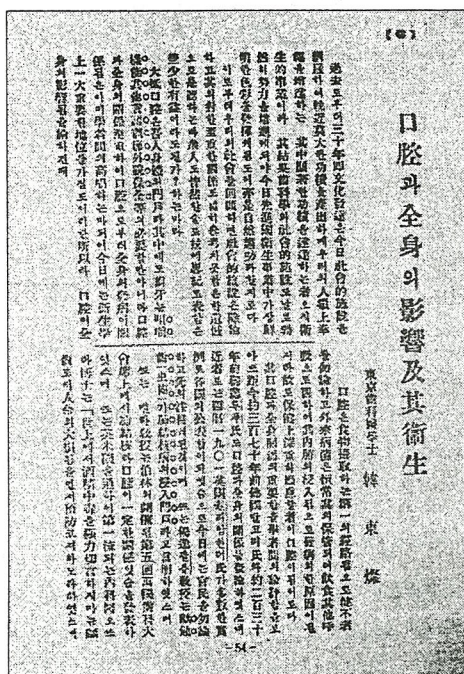


그림 6. 개벽(開闢) 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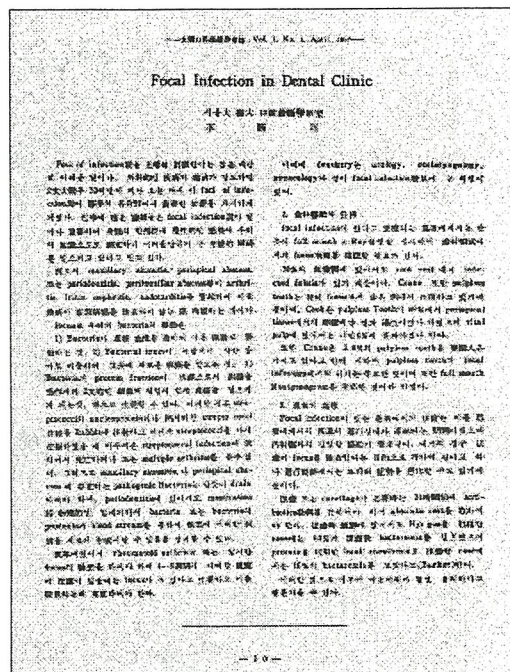


그림 7.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67년

질병에 안 걸리거나 기존 질병도 잘 낫는다고 하였고, Edward Rosenow는 치수(齒髓)가 실활(失活)된 치아(pulpless teeth)의 위험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¹³⁾.

1920년대를 정점으로 1930년대까지 지속되는 병소감염설은, 치아가 건강과 질병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며 치의학 교육이 생물학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치과시술의 영역이 치아 및 잇몸에서 악골, 구개, 혀 등 구강 전체로 확장되었고, 1차 대전 시기에는 외상 및 악안면 성형외과 영역까지 범주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 치과계에서는, “100% totality movement”라는 이름으로 ‘모든 치아 발거(wholesale extraction)’가 널리 유행하고, 장기간 관행이 되었다. 사소한 병소만 있어도 그 치아는 발거 대상이 되었다. 후에 언급하게 될 구강과 운동의 지도자 Asgis도 “100% movement”의 초기 신봉자였다.

병소감염설은 일본¹⁴⁾과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전달되어 한동찬(韓東燦)¹⁵⁾은 1923년 ‘개벽(開闢)’지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그림 6), 1960년대 말에도 학술지에 언급되고 있다(그림 7).

14) 齒牙中心感染說の その 臨床例に ついて. 大日本齒科醫學會雜誌 1936; 34(4):287-298.

15) 일본에 유학하여 1917년 평양에 개원, 1960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역임.

16) Gies WJ. Dent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 Report to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Carnegie Foundation Bulletin no 19, New York. 1926. xiv-xv.

4. 치의학 교육 개혁과 Gies' Report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의 1910년 플렉스너 보고서(Flexner Report)는 20세기 초 북미 대륙 의학교육 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던 역사적 보고서이다. 시설과 내용이 부실했던 상업적 의과대학이 퇴출되면서 의과대학 숫자는 1910년에 155개교에서 1925년에 88개교로 줄어든고,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는 심화되어 의학교육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강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에서 다루지 않고 있었다. 우선 의학계에서는 구강병이 전신건강에 직접 관련된다라는 점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치과시술자에게는 유난히 기계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점과 치아를 인공수복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볼 때, 치과는 기계적 기술일 뿐 의학의 한 분과가 아니라는 것이 의학계와 일반의 의견이었다¹⁶⁾.

하버드 치과대학 등 대학교 계열 치과대학들의 조직 'Dental faculties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에서는 플렉스너 보고서가 의학교육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수준 낮은 상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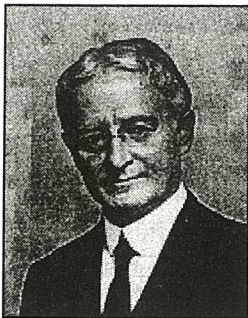


그림 8. W.J. Gies

치과대학들의 퇴출을 도모하기 위해 치의학교육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카네기재단에 요청하였다. 재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William Gies¹⁷⁾를 책임자로 선정하여 1921년부터 5년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의 치의학 교육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하였다. Gies는 당시 치과대학과 치과계의 상업적 분위기를 배격하고 학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19년 Journal of Dental Research를 창간하여 스스로 편집을 책임지고 있었다¹⁸⁾.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치과대학 44개교를 2차례씩 방문하고 조사하여 1926년 700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치의학 교육 전반에 대해 체계적, 종합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총 7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미국 치과의로 및 치의학의 역사에 대해 시기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2부는 미국 치의학 교육의 주요 현황, 치과시술인력의 규모와 분포, 흑인 계층의 치과서비스 결핍문제, 교육의 제도적 측면, 교과과정, 재정, 시설비, 연구 등을, 3부에서는 정책적 제안을 다루고 있다. 4부 이하는 각각 캐나다의 치의학교육, 결론, 치과대학별 자료, 부록 등으로 되어 있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치의학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상업적 성격의 치과대학을 정리하고 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보고서의 기본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치과의로 및 치의학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조사가 진행된 1921년-1925년 기간은 뒤에 언급하게 될 구강과 운동이 대단히 활발했던 시기였다는 점은 중요하다. 치의학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치과를 의학의 한 분과(구강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구강학자들의 주장에 대

17) 콜롬비아대학교수, 생화학자, 1919년 Journal of Dental Research 창간

18) Gies WJ. Independent journalism versus trade journalism. J Allied Dental Science. 1916;

해 치과계 내에서 논란이 분분하였던 만큼 보고서로서는 치과의료 자체와 그 교육체계의 본질적 성격과 지향점에 대해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재단 이사장 Henry S. Pritchett는 서문에서 “치아와 구강은 의학의 중요한 한 분야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과전문직은 의과전문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왔던 1910년 시점에서는 “치과가 의학의 한 분과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된 시술집단으로 남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1926년 보고서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치과를 의학의 한 분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의과와 치과의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과의사와 안경사 사이에는 처방과 제작이라는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치과시술의 경우는 처방을 내리는 구강 의사(stomatologist)와 기계적 숙련자인 치과기술자(dental technician as a mechanical expert)로 분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치과시술은 실제로 구강 내에서 의학적 지식과 손기술, 기계적 정밀성(precision)이 하나로 융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Gies는 보고서 서론에서 치과의료 및 치과전문직의 지위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치과의료는 보철과 수복이라는 특징 때문에 기계공(mechanic)의 분야로 인식되지만, 치유술(healing art) 중에서도 고도로 기계적인(highly mechanical) 영역이다. 둘째, 치과의사는 독자적이고 조직된 전문직종이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모든 주(州)에서 면허제를 법제화하면서 법적으로 의사와는 별개로 분리되었으며 1926년 현재 65,000명 (캐나다 3,800명)이 전국 및 지방을 조직하고 있고 44개 (캐나다 5개) 치과대학이 있다. 미국의사협회(AMA) 내의

구강학 분과(the Section on Stomatology)는 1881년에 생겼으나 의과측에서 ‘치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1925년 10월에 해체되었다. 미국구강학협회(American Stomatologic Association)¹⁹⁾는 1924년 10월에 창립되었으나 의과, 치과 양측으로부터 별로 지지가 없다. 의사와 치과의사 양측은 기본목적(치유)이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두 직종의 조직체 사이에 실질적 협조는 거의 없었다.

셋째, 치과는 의술(practice of medicine)의 공인된 전문과(accredited specialty)가 아니다. 귀, 눈, 코, 목은 의과에 속하고, 치아만은 치과에 속하면서 법적으로 서로 별개인 이런 예외적인(특이한) 지위는 초기부터 고정되어 왔다. 치과는 손기술을 요하기도 하지만, 주로 의사들 사이에 오래되고 잘못된 의견, 즉 치과의 질병은 국소적이고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닌 한 전신건강에 영향이 적다는 편견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치아는 자연치유가 되지 않고 기계적 방법으로 수복하면 된다고 이해하여 의학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일반 대중들도 머리카락 빠지는 것처럼 치아도 나빠지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의사들은 이런 분야를 다루려 하지 않았고, 금세공업자, 상아조각가, 대장장이, 기계공, 가발업자, 땀쟁이, 이발사, 만물상(jacks-of-all-trades)의 영역이 되었다.

이처럼 무시되고, 상업적이며, 위상이 낮은 치과를 몇몇 의사들과 진보적인 치과의사들이 나서서 의과대학에 교과목으로 넣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였다. 의대 교수들이 “치과는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한 좌절이후 치과대학들이 설립되었으며 의과대학과 같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간의 무관심과 소원함은 여전하였다. 치과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의사들은 자신의 추측과 상치되는 치과의사의

19) Asgis의 주도로 출범한 미국 구강과 운동의 조직.

판단을 무시하고 특정 치아의 발거 또는 모든 치아의 발거를 주문하였으며, 생물학적 기초가 빈약한 치과의사들을 경시하였다²⁰⁾.

넷째, 치과는 의술의 구강 전문과와 동등(equivalent to an oral specialty)하도록 되어야 한다. 세균학, 병리학, 방사선의 발전으로 구강병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기계적으로 완벽하고 심미적일지라도 병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호간 이해의 폭이 커졌다. 치과를 의술의 공인된 전문과로 전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우선 일부 법령들을 폐지해야 하며, 의료계나 치과계에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을 원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치과대학을 폐쇄하고 의과대학에서만 가르친다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치과시술은 치과의사가 손으로 직접 구강 내에서 해야 한다. 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안경사는 환자의 눈에 피해가 없이 안경을 제작할 수 있으나 치과는 조건이 다르다. 의과의 한 분과가 되지 않는다면, 공공복리 차원에서 의과와는 조직상 독립 상태를 지속하면서 구강 전문과에 준하는 보건 서비스의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의술의 구강 전문과와 동급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치아, 구강 및 전신에 관련된 과학적 건강서비스의 적용에 대해, 구강과 전신의 관계를 탐구하며, 전신질환의 구강증상 탐색과 일차진단에 대해, 그리고 의사와 협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확장된 시야에서 교육을 받으면 치과외과(dental surgeon)이나 치과기술자(dental engineer)가 아니라 구강위생가(oral sanitarian) 또는 구강의사(oral physician)로 훈련

될 수 있다.

치과가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면서 의학의 구강전문과에 버금가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치의학 교육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한다. 최소 대학과정 2년의 예과교육(구강위생, 미술, 기계 등 과목 포함)을 도입하고, 학부과정은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하되, 의과학, 치과기술, 임상치과, 구강내과 등으로 재구성하며, 선택 과정(졸업후 1년 동안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석사(M.A., M.S.), 연구과정 2년 더 하면 박사(Ph.D.) 학위 수여)을 설치하고, 약안면외과, 공중보건행정, 의(醫)-치(齒) 관련연구 등 분야에 의치대 통합교과를 개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치과인턴제를 도입하고, 보조인력(치위생사, 기공사, 조무사)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는 거의 없으나 적극적으로 연구(research)를 추진하며, 독자적인 치과대학들은 재정이나 조직, 시설 면에서 충분치 않다면 폐교하도록 하고, 치과대학을 신설할 경우 의과대학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여야 한다. 등록금에 학교운영을 의존하는 한, 치과대학의 교육수준이나 임상능력이 높아질 수 없다.

5. 구강과 운동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치과와 의과가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²¹⁾. 구강과 운동의 선봉에 선 이탈리아는 Boselli 칙령(1890년)으로 치과시술에 의사면허를 필수로 하였으며 1903년에 구강과 조직이 만들어 졌고. 1908년에 교육기관(Royal Stomatological School of the Royal University of

20) 1920년대는 치아병소감염설의 영향이 점점이었던 시기.

21) Asgis AJ. The history of stomatology. Medical Life 1926; 33(7):295-340.

Milan)이 설립되었다. 국제구강학협회(ASI)의 영향으로 치과의 학위명칭이 'Licentiate in Stomatology'로 바뀌었다. 1923년 이래 자치주의자(Chiavaro 교수)들에 의해 법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1887년 Magitot.(1834-1897)에 의해 조직(La Societe de Stomatologie de Paris) 결성, 1907년 파리에서 제1차 국제구강학총회(International Stomatological Congress) 개최, 1909년 학교(I'Ecole Francaise de Stomatologie)가 설립되었다. 벨기에에서는 Talma(1792-1864)이 1884년 Quinet Societe Odontologique de Belgique, 1903년 Belgian Stomatological Soccity, 1917년 Les Annales Belges de Stomatologie로 이어진다²²⁾. 헝가리의 Arkovy(1851-1922)는 국제구강학협회(ASI)의 초대 회장으로 Royal Stomatological School of the Royal University of Budapest를 설립하고 1907년 파리에서 International Stomatological Congress를 주관하였다. 소련은 1923년 11월 26일-30일 열린 제1차 전러치과회의(All Russian Odontological Congress)에서 기존교육체계를 폐지하고 구강학 원칙에 토대를 두는 것을 결정하였다.

5-1. 출범

미국에서는 1880년대 Philadelphia Stomatological Association에서 의사, 치과의사 상호협력을 도모하였고, 1898년 미국의사협회(AMA)의 Oral Surgery Section이 Stomatologic Section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의사뿐 아니라 실력있는 치과의사도 가입하였다. 국제구강학협회(ASI) 연례총회에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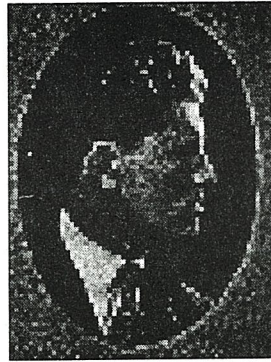


그림 9. A. Asgis



그림 10. Asgis(자화상)

음부터 미국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정치적 활동보다 학술토론과 친목에 주력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서 일부 소그룹은 치과의 자치체제에 한계를 느끼고 유럽의 정치적 발전에 고무되어 미국에서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Alfred Asgis(1893-1979)는 미국 구강과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이다²³⁾. 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온 후 1919년 New York College of Dentistry를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석사(ScB, 1923년, MA 1926년)와 박사를 수료한다. 거의 1,000여 건의 저작 및 논문, 논설, 기고문 등을 집필할 정도의 정력적 인물이었다. 비상한 머리와 강한 개성으로 자신의 주장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신랄한 말투와 비타협적인 논쟁으로 적도 많았다. 치과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급진파였다. 치과의사 초기인 1920년, 병소감염설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무수(pulpless) 치아는 신경치료가 아니라 발거해야 한다고 주장('100% totality movement')하는

22) Evolution de la stomatologie en Belgique. Acta Stomat Belgium 1991;88:77-84.

23) Gevitz N. Autonomous profession or medical specialty: the stomatological movement and American dentistry. Bull Hist Med 1988; 62:407-428.

‘American Academy of Applied Dental Science’에 가입하여 강령을 기초하고 기관지(Journal of Orology) 편집인으로 활약한다. 일련의 논쟁을 거치면서 1923년, ‘focal infection’이론에 찬동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탈퇴한다²⁴⁾.

당시 전국에 걸쳐 논문, 초청강의, 임상연수를 하는 ‘Dental Study Club Movement’의 창안자 Frank Rodgers로부터 영향을 받아 ‘New York Stomatological Society’를 만들고, *Journal of Ophthalmology, Otology, and Laryngology*의 Department of Stomatology section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Review of Clinical Stomatology*를 발간한다. 의사, 치과의를 편집위원으로 하고 1923년 12월에 창간하면서 치과는 의학의 전문과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 모아 1924년 10월 본인의 집에서 미국구강학협회(American Stomatological Association, ASA)를 창립한다. 회장, 부회장 2명, 회계는 의사(MD)로 선임하고 Asgis 자신은 서기를 맡는다. 1924년 말 현재 회원은 31명으로 대부분 저명한 의사들이었다. 조직의 창립을 주요 의학 및 치과잡지에 공지하고 *Review of Clinical Stomatology*에 구강학의 역사와 실제, 조직(ASA)의 목적과 활동을 게재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국제구강학협회(ASI)를 설립하여 의사가 아니어도 회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²⁵⁾. 이들의 주장은 치아는 몸의 일부이니 안과 의사가 받는 것과 같은 교육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대 전공과정 혹은 의대 3년에 치과과정 2년을 수료한 후 의사(MD) 자격을 받게 하자는 주장이다. 기존 치과대학은 의과대학의 연장이 되고, 현직 치과의사들은

적절한 준비와 자격을 갖추면 의사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5-2. 공격과 방어, 분열

예상된 대로 의료계 및 치과계 주류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기관지 및 학술지의 편집인들이 공격수를 자임하였다.

“... 그런 (구강)의사들이 일정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수천 명의 치과의사들이 의사학위를 얻고자 더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생각하면 오싹해진다. 의사 학위에 시간과 돈을 추가로 투자하고 치과 시술 전공까지 하려면 망설이지 않을까... 늘어나는 비용과 의과의 다른 분야에 대한 매력 때문에 치과를 선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반의학 지식이 의사들만큼 깊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치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제안(구강과)의 이면에는 ‘의과와 비교하여 치과 전문직에 일부 붙어있는 사회적 열등감’이 있다고 본다” (사설, *Boston Medical and Surgical Journal*, 1925년 12월 3일).

“... 미국구강학협회 정강의 기조는 비논리적이고 환상적(visionary)이다. 치과를 의과의 한 전문과로 하려는 생각은 새로운 것도 아니며, 그동안 묻혀 있었는데 왜 이제 다시 되살리려하는가? 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열등감’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일상에

24) Asgis AJ. The rise and growth of the stomatologic movement in America: historical sketch. J Dent Res 1932; 41. 771-805

25) Asgis AJ. The history of stomatology. Medical Life 1926; 33(7):295-340

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자칭하는 자들의 이런 애처로운 흉내내기'는 자존심을 가진 우리 직업의 회원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미국치과의사협회지 편집인 CN, Johnson)²⁶⁾.

"치의학 교육에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널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Asgis가 그런 사조의 창시자가 되려는 바람에서 만들어 낸 것이며, 그들은 자칭 선동가들이다. 다소 불안정한 상태의 치의학 교육에 혼란을 준다. 산과학, 부인과학, 피부학, 안과학은 구강치료에 즉각적 도움이 되는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건 좋으나 치의학 교육이 의학 교육의 부분집합이 되면 constructive phase 즉, 보존보철술 분야는 무시될 것이다.." (Dental Cosmos. 편집인 Edward Kirk. 1926년).

이러한 공격에 대한 반론으로, Weston Bayley²⁷⁾는 사회적 열등감을 가진 치과의사들이라는 전제를 비판하면서 구강학 주장의 과학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치과의사 교육체계의 지향점이 협소하여 치의학을 치과의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치과의료는 국소 기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편도선, 상악동, 치아와 전신 질환의 관계, focal infection 등을 이해하면 시야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Asgis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 반박을 하려 했으나 주류 언론들은 반론을 게재해 주지 않았다. 절대 다수의 치과의사에게 구강학의 주장을 전달할 길이 차단당하게 된 것이다. Asgis는, 구강학협회의 주장대로 되는 경우 생존과 경력이 위협을 받게 될 치과의사회(ADA), 치과

대학, 주치과의사 시험위원회 등 기득권 세력이 구강과 운동을 반대한다고 보았다. 구강학 반대세력이 근관치료(root canal surgery)를 찬성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죽은 치아" 논쟁이 치과시술의 경제와 연관된다고 보았다. 즉, 치아실험술을 폐기하면 치과시술, 즉 자치적 전문직의 경제상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 분위기 때문에 구강학 협회에 신입회원들이 가입하기 어려워졌고 기존 개인들도 압력을 받게 되었다. 1926년 가을, 회원은 치과의사 59명, 의사 43명이었다.

조직의 방향, 기관지 내용, 재정 문제로 ASA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던 중 1926년 10월 Asgis는 서기 직을 사임하고 기관지는 폐간되었다. Asgis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단 4명은 따로 비밀리에 만나 앞으로 정치적 발언을 중지하고 의사-치과의사 관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구강과학'에 대한 비논쟁적 접근으로 폭넓은 지지를 꾀하고, 치과의사가 의사면허를 받게 하는 '정치적' 제안은 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Asgis 및 지지자 30여명은 탈퇴하여 1927년 11월 미국구강학회(American Stomatologic Society, ASS)를 창립하고 기관지로 American Journal of Stomatology를 발행하였다. 새 조직은 국제구강학협회(ASI)에 미국의 대표성을 회복하였다.

구강과 운동과 Asgis의 입지를 회복시켜준 것은 1926년에 발행된 Gies 보고서였다. Gies는 보고서에 대한 모든 비판을 수용하려 하였기에, 학술지 Journal of Dental Research 지면을 통해 '북미 구강과 운동의 지도자' Asgis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Asgis에게는 치과계 전반에 구강학 정감을 전달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거치는 동안 Asgis는 자신의 목적을 치과계 지

26) Johnson CF, JADA, 1926; 13:371-72

27) 필라델피아의 신경과 전문의, 미국구강학협회(ASA) 2대 회장 (1925년).

도자들에게 각인시켰고, Gies와 대적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물로 부각되어 다수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다.

5-3. 논쟁

‘구강과’를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 제3의 주장으로 ‘level-technician plan’이 제기되었다. 이는 치과 의료 및 치의학 교육을 두 단계(two-tiered system)로 구성하는 것으로, 다수의 기술인력(technician)이 대부분의 치과시술, 특히 보철분야를 수행하고, 의학 교육을 받은 소수의 치과의사가 이를 조정, 감독하는 체계이다. ‘구강과’ 이론(stomatologic plan)은 치과의사 전체의 신분과 자격을 높이자는 것인데 비해, 이 주장은 일부만 의사(M.D.)로 하고, 대다수는 직업학교 졸업자로 배양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치의학 교육을 분리하는 것은 낭비이며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초과학 교수진이 의대와 치대에 중복되어 유사한 수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두 대학을 같이 교육하고 치의학 교육을 2단계로 하자는 Winternitz의 제안²⁸⁾에 대해 level-technician plan 측에서 의대학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3개교 의대에서 치의학을 의학의 전문과로 하는데 지지하였다. 이 주장의 지도자 A. Owre²⁹⁾는 치과계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대공황 시기인 1929년 부터 논쟁은 치의학 교육

및 치과 의료시술에 대해 3가지 별개의 안(案)이 3파전으로 진행되었다. 치과계 대부분이 지지하고 Gies가 앞장선 개혁된 자치론(autonomous system), Asgis의 구강과(stomatology) 이론, Owre의 level-technician plan. 이무렵 1931년 7월, 미국구강학협회 회장 E. Frankel³⁰⁾, Owre 등 콜롬비아치대 교수들이 뉴욕 주에 American Board of Stomatology 법인 설립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초 법적 지위를 모색하였다. 이 건이 State Board of Dental Examiners로 이송되자 이를 반대하는 치과의사회에서 Asgis와 연대하여 청문회에서 법인 청원을 취소하게 하였다.

1932년 3월. Allied Dental Council of New York에서 1차 공개 논쟁이 개시되었다. Gies는 ‘구강과’가 실현 불가능한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현재의 의과대학은 치과대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칠 인력이나 시설이 없다. 둘째,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하면 수가가 상승한다. 셋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존보철분야는 미국이 지금도 앞선다. Asgis는 level-technician plan이 치과계의 통합과 유일성(unity)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을 공격하고 거부하였다. 자치론에서 치과가 생물학을 강화하고, 시술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강의사(stomatologist)에 근접해 가는 점을 지적하였다. 치과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전문화 경향은 막연한 자치론과 연계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³¹⁾.

다시 Gies는, 최근 수십 년동안 교육 수준, 과학

28) Milton Winternitz, 예일의대 학장, 1929년 11월 콜롬비아 치대에서 강연

29) Alfred Owre 1870 노르웨이 태생, 1894년 미네소타 치과대학 졸업(DMD), 1895년 Hamline 의과대학(MD). 미네소타 치과대학 교수, 1905년부터 22년간 학장. Dental Faculties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창설 주도. 1913년부터 10년간 교육위원회(educational committee) 의장. 1920년부터 1923년 American Association of Dental Schools (AADS)로 병합할 때까지 회장. 1927년 콜롬비아치대 학장.

30) Edward Frankel 비정치적 입장의 회장. MD (이비인후과)

31) 구강과 안(案)에서는 ‘general dentistry’를 강조하고 있다.

적 연구, 기술혁신 등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고, 영리적 치과대학들이 대부분 대학교에 통합되는 등,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초과학을 강조하고, 의(醫)-치(齒)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자치론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ies는 구강과가 전문과로 되는데 있어서 실질적 걸림돌로 교육상의 요건(requirement)을 들었다. 그 무렵 의과대학 교육에서 새로 채택한 규정에 따르면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최소 1년, 임상 최소 2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과 2년(실제 3-4년)을 합치면 구강과를 전공하려면 최소 10년이 소요되며, 이에 비해 자치론은 5-6년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Asgis가, 의학계에 구강과를 위한 특별히 축소된 학위를 허용하게 설득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Gies는 이에 신랄하게 '안개 속에서 나오라'고 공격하였다. 치과측에서 준비기간을 2배로 늘린다고 해도 전문과가 되려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하는데, 구강학자들이 '십자가를 앞(의료계)이 아니라 뒤로 옮기고 있다'고 보았다.

“왜 구강과 운동 측은 의료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가? 1925년에 미국의 사협회(AMA)의 Section of Stomatology가 해체된 것은 오랫동안 참가자가 부족했던 것인데 그 조직을 소생시킬 계획이 없는가? 치과를 의과로 '밀어넣지' 말라. 의료계가 주인이라면 왜 손님 측에서 초대해 달라고 해야 하는가?”

5-4. 결말

논쟁 이후 3달이 지나 Allied Dental Council of New York의 5인 위원회에서는 4:1로 Gies 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7월에는 2,500 회원을 대표하

는 21인 대표자 회의가 열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Asgis 측을 지지하였다. 즉, 공식적으로 '미래의 치과는 의과의 법정 전문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Asgis의 승리는 정치적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실천으로 전화(轉化)하지 못한 상징적인 것이었다.

미국구강학회(ASS) 측에서는 미국의사협회(AMA)에 구강과 분과의 부활을 추진하여, 1933년 6월 AMA, House of Delegates에 청원을 제출하였다. 과거와 같이 Section이 아니더라도 Sub-section이라도 만들어 줄 것을 바랐으나, 결국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이 청원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구강과 운동 측은 미국의사협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사실 자체보다는 청원을 올린 명부가 미국구강학회(ASS) 59명, 미국의사협회 회원 23명에 불과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참여자들이 아무리 명망가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계, 치과계의 주류(rank-and-file)는 이 운동에 지지도 관심도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구강과 운동 측은 이번 실패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후의 주장은 보다 부드럽고 타협적으로 변화하였다. 명시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Gies의 개혁론과 미국구강학회(ASS) 강령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구강과 운동의 영향력은 차차 쇠락하여 1934년 가을 미국구강학회(ASS)는 마지막 총회를 개최하고 1935년 소멸하고 말았다.

이렇게 미국에서 구강과 운동은 소멸하였으나 구강학자들의 주장과 꿈은 남아 있으며³²⁾,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확고한 체계로 정착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해방 후 의치일원화운동(그림 11), 구강과 개명(改名)운동(그림12)³³⁾으로 발현되었다.



그림 11. 구강과 改名운동 (구강과회보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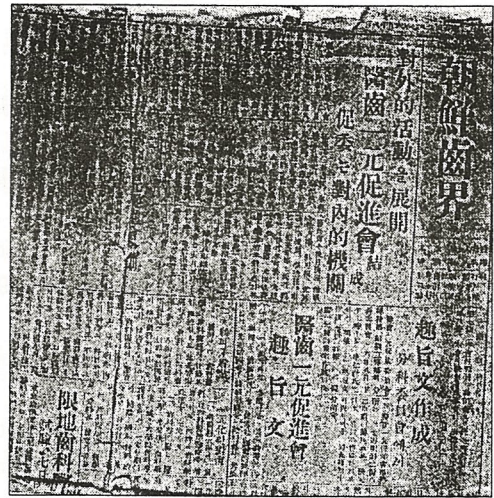


그림 12. 의치일원화 운동(조선치계 1946)

7. 요약 및 결론

20세기 초 미국 치의학계에는 치의학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장(autonomous plan, stomatological plan, level-technician plan)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핵심문제는 “의과(medicine)와 치과(dentistry)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였다. 취하는 입장에 따라 19세기 치과치료의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19세기 후반 미국 치과계의 전근대적 존재양식은 20세기 초에 의학계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가능케 하였고 ('oral sepsis' 및 focal infection theory), 이는 다시 필연적으로 1920년대 치의학교육 개혁과 구강과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Medicine' 과 'dentistry' 사이 경계영역에서 발흥하였던 구강과 운동은 치의학 교육 개혁 논쟁의 핵심 축이었으며, 그 원칙과 체계

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지속되어 현재 지구 인구의 절대 다수를 포용하고 있다.

근대 치의학 초기부터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였던 치의학의 '자치성(autonomy)'은 미국식 실용주의(pragmatism)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치과계의 강력한 깃발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 미국 치의학계에서 과학, 합리성, 이상(理想)은 사회적 정치적 관계망과 얽혀 제한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치의학교육 개혁을 둘러싼 대립된 입장들은 이전 시기 치의학 발전과정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며, 구강과 운동의 역사적 공과를 포함하여 'medicine'과 dentistry'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현재 한국 치의학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32) De Stefano TM. Stomatology revisited: the solution for professional dentistry in American society. J Ame Coll Dent 1975; 41:223-229.

33) 치과교육기관의 발전과 변모 - 경성치과대학교에서 국립 서울대 치과대학까지.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 치과임상 1986; 6(5):30-37.

해방 이후의 치과의사단체(2)- 주요활동 및 사건.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 치과임상 1986; 6(2):56-61

참 고 문 헌

- Aims and principles of the ASA. Dent Digest 1925 Jan 31-1:27-30
- American Stomatologic Association. JADA 1925 Jan 12-1:105
- Asgis AJ. Post-graduate instruction in clinical stomatology for practicing dentist. Dental Facts 1923 Nov 11-2:37-38.
- Asgis AJ. Professional Dentistry in American Society, NY, Clinical Press, 1941.
- Asgis AJ. Proposed section on stomatology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 Dent Research 1933; 13:455-56.
- Asgis AJ.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Professor Gies' 1927 study in the stomatologic movement. J Dent Research 1929; 9:555-94.
- Asgis AJ. The rise and growth of the stomatologic movement in America: historical sketch. J Dent Res 1932; 41. 771-805
- Asgis. Dental Summary Advertiser. 1923. Nov 42-11:999
-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 Proceedings of the One Hundred Twenty-Fif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 Ed.Gardner PH. Foley Baltimore.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 1965.
- Dental education in Italy. Dental Cosmos 1925 Mar :318-319,
- Frankel E. The American Stomatologic Association; historical sketch. J Dent Research 1931; 11:337-48.
- Frankel E. The proposed American Board of Stomatology. J Dent Research 1932; 12:1-39.
- Gevitz N. Autonomous preffession or medical specialty: the stomatological movement and American dentistry. Bull Hist Med 1988; 62:407-428.
- Gies W. A further discussion of some problems in dental education. JADA 1924; 11:1107-1124,
- Gies W. Dental education, including a study of the alleged influennce of derogatory medical opinion on its institutional initiation in 1840. JADA 1940; 27:99-109,
- Gies W. Dental education, including a study of the alleged influennce of derogatory medical opinion on its institutional initiation in 1840: supplementary comment. JADA 1940; 27:397-399
- Gies W. Additional remarks on a reference to the Carnegie Foundation's study of dental education. J Dent Research 1930; 10:23-32.
- Gies W. Further comment on a reference to the Carnegie Foundation's study of dental education. J Dent Research 1929; 9:745-48.
- Gies W. Independent journalism versus trade journalism in dentistry. J Allied Dental Societies 1916; 11:582.
- Gies W. Preliminary comment on some statements in Dr. Asgis' report on the Carnegie Foundation's study of dental education. J Dent Research 1929; 9:595-608.
- Henry CB. Dentistry or stomatology? Lanset 1945; sup 1:26-27.
- How the ASS can cooperate with the ISA. Ame Dent Surgeon 1928 Oct; 520-523
- Is dentistry at the crossroads? Dental Cosmos 1930; 1061-1072 Alfred Owre.
- Kirk. Stomatology-what's in a name. Dental Cosmos 1926 May:496-
- NY State Society of the ASA. Dental Cosmos 1925 Jan :110,
- Society activities, NY Stoma Society, Stoma Depart at the Midtown Hospital. Dental Cosmos 1924 Jul: 810-814.
- The ASS and the ASA respectively. Ame Dent Surgeon 1928 Jul; 376-382,
- Turner CR. Seventy-five years of dental education and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Den Cos 1920; 62:56-
- Will society benefit when dentistry becomes a specialty of conventional medicine? Dent Digest 1931 Jul 37-7:443-456

周大成的 풍속발치론*

李丙台** · 金在衡*** · 李仁善 (譯)****

고고학자들은 중국의 대문구, 서하후 및 대둔자 지역의 신석기시대 인골을 관찰하던 중 여러 개체에서 인공으로 행한 풍속발치를 발견했는데, 이는 신석기시대 인골 중에서 보아온 특징의 하나다. 지금 이 3개 지점에서 발견한 인공발치상황들을 관련된 재료에 따라 아래에 분별하여 기술하겠다.

1. 대문구 유적지의 풍속발치

대문구를 문구진이라고도 하는데 산동성 년양현과 태안현 사이의 대문하 강변에 있다. 대문구 신석기시대 유적지와 문구진이 연이어져 있다. 산동성 제남시 박물관은 1959년 그 유적지에서 묘장인 골들을 발굴해 냈다.

안은이 대문구 묘장부분의 인골을 관찰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두개골부에서 인공적으로 변형된 것과 발치한 풍속이 있음을 발견했고 그는 31개 두개골(그중 남 11예, 여 20예)에서 발치상황을 분석했다.(표 2-6)

표 2-6. 발치와 성별분석(안은)

성별	남		여	
발치여부	미발치	기발치	미발치	기발치
출현율(인)	4	7	4	16
%	36	64	20	80

그 중 한 여성의 나이는 18-19세로 추정되며 이 미 발치를 하였다. 또 한 남성도 나이는 18-19세로 추정되는데 역시 발치하였다. 또 한 예는 12-13세로 보이는 개체는 발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 발치년령은 12-13세 이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18-21세 사이인 청년기에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된

표2-7. 발치 치아조 분석(안은)

성별	남		여	
치아조	2	2	2	2
출현율	7	7	16	16
%	50	60	50	50

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발치한 치아는 모두 22이다.(표2-7)

2. 서하후 유적지의 풍속발치

산동성 곡부현 동남 서하후에서 발굴한 인골중, 관찰할 수 있는 두개골은 17개(남성 11예, 여성 6예)인데 그 발치 상황은 표 2-8과 같다.

표2-8. 발치와 성별 분석(안은)

성별	기발치	미발치
측절치 남 11예	33.4%(4예)	63.5%(7예)
여 6예	66.7%(4예)	33.3%(2예)

*周大成：中國口腔醫學史考，人民衛生出版社，1991，第五節 拔牙習俗，pp 19-22.

1991년 北京자택에서 대한민국 치의학계에 널리 소개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바 있음

**李丙台：이병태치과의원 원장

***金在衡：김재형치과의원 원장

****李仁善：중국어 동시 통역사

서하후 유적지에서 발치된 치아는 모두 측절치이다. 발치된 상황을 대문구 및 서하후 인골과 비교한다면 그 공통점은 발치하는 치아가 모두 측절치이고, 상이점은 발치하지 않은 것(미발치)과 발치된 치아(기발치)의 비례는 대문구 남성은 1:2, 여성은 1:4이다. 서하후 남성은 2:1, 여성은 1:2이다.⁸⁾

3. 대돈자 유적지의 풍속발치

대돈자 유적지는 소로 변경에 있고, 1962년 12월에 발견했다. 남경박물관에서 두 차례 발굴을 했다. 한강신 등이 대돈자 신석기시대 인류 두개골에서 풍속발치를 관찰했다. 하악골에서는 민을 만한 증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상악골에서만 절반이 넘는 양성 개체가 생전에 측절치가 없는 사례를 찾았고, 치조가 이미 완전히 유합되어 있어 치주병으로 치아가 결손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손된 치아부위를 살펴본 결과 중절치·견치·소구치가 결손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대로 대부분의 개체들은 측절치가 없었다. 즉 풍속발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좌우측 측절치를 발치한 풍속발치는 대문구, 서하후 신석기시대 인류두개골의 풍속발치와 같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연령별로 보면 대돈자의 유년 개체에서는 발치 현상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 중 제일 일찍 발치하는 연령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15-20세 사이이다. 이것은 대문구 신석기시대인류의 발치 연령대와 일치한다.

이곳의 두개골 두 레에서 측절치 치근 절단이 치조골내있는 상악표본을 발견하였다. 한 예는 12가 이미 발치되었고, 치조골은 이미 완전하게 아물었으나, 12의 치근이 치조골내에서 절단되었으며, 절단면은 오래된 것이고, 대부분 단면이 치조외면에 노출되었다. 다른 한 예는 11가 이미 발치되었고 치조골은 이미 아물었으며, 12의 치근은 절단된 채 치

조골 속에 묻혀 있는데 절단면은 전부 치유된 치조골에 덮였다. X-선사진에서 치조골내에 명확하게 단절된 치근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두 개 측절치 절단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필경 생전에 어떤 기계로 수평방향에서 치아를 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돈자 신석기시대사람들이 하는 발치 방법은 주로 치는 방법이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다른 한 상악 표본에서 12의 치관 및 설면 치근의 일부분이 생전에 절단되고, 그 단면은 오래되었으며 그 절단면이 12의 순측 아래 방향으로부터 교합면측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원형치수강이 노출되고 근단부위의 치조골에 원형 골질 흡수가 보였다. 한강신 등은 이 치근도 치아를 쳐서 발치할 때 절단된 것이고, 치수 감염으로 야기된 치근단병소다.⁹⁾

4. 풍속발치 관습 개설

우리나라 고대에 아주 많은 발치(타아, 착아)에 관한 기록이 있다. <회남자, 본경훈>에 “먼 옛날 요가 황제일 때 10개 태양이 함께 나와 대지를 비추니 곡식이 마르고 초목이 타 죽어 백성이 먹을 것이 없고, 야 우, 치아를 쪼는...등 모두 백성을 해치는 것이기에 황제 요가 특사를 파견해서 넓은 항야에서 죽여버렸다.”

<한서>, 양웅전 <장상부>에 “끌로 치아를 쪼(착아) 죽속과 이를 갈아버린(마아) 죽속이 서로 다투다” <진서>에 끌로 치아를 쪼는 전설이 있다. 보아하니 끌로 이를 쪼는 것은 한 개 부락의 민족풍속으로서 우리나라 남방민족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다.

진(晉)나라 장환 <박물지> 이속조에 “협주 서남 경계로부터 촉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관리들은 부인들이 7월에 아이를 낳으면 물 옆에 가서 물속에 넣은 후, 뜨면 키우고 가라앉으면 버리며,

그러나 천백이 뜨고 성장하면 모두 웃니하나를 발치하는 것을 몸치장으로 여긴다.” 하였다.

장화는 이 지역에서 사는 소수민족을 요라 하고, 당(唐) 이후 또는 홀료족 관리라고도 했으며, 더욱 타아풍속이 있는 민족을 타아 홀료족이라고 했다. 이런 타아풍속이 있는 거류민이 기타 이웃부락으로 발전되었다.^{10,11)}

사천 의빈지구 홍현의 10현 “북족인” 현관 속에 7구의 뼈 중 6구에서 때려 깨뜨린 2|2 흔적을 발견했다.¹²⁾

<광서 통지>에, “홀료족은 귀주에서 오고... 관은 묻지 않고 매우 험준한 천자높이되는 돌틈에 놓고, 부모가 죽으면, 아들과 며느리는 각기 치아 2개를 깨트려 관 속에 넣고 이별한다.”하였다.

우리나라 대만의 고산족 및 대만 병동 어란비와 간정 등 신석기시대 묘장 중에서도 청춘기에 3|3 또는 2|2를 발치하는 풍속이 있음을 발견했다. 대만의 타아풍속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나라 광서년간까지 연속되었다.

고카네이 료조(1922)는 <인류학연구>에 “일본국은 비록 아주 많은 신석기시대 유적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주요한 곳은 미생식 유적지와 하이식 유적지이다. 전자는 일본민족이고, 후자는 아이누 민족이다. 출토된 인골을 관찰하여, 그들이 모두 풍속발치가 있다.”고 증명하였다. 그는 일본의 신석기시대 유골중에서 풍속발치를 한 22개 개체를 찾았다. 풍속 발치 부위별로 보면 3|3을 발치하는 자가 가장 많고, 다음은 $\frac{3}{3}|\frac{3}{3}$ 발치, 제3위는 $\frac{43}{3}|\frac{34}{3}$ 제4위는 $\frac{3}{21}|\frac{3}{12}$ 제5위는 $\frac{43}{21}|\frac{34}{12}$ 제6위는 $\frac{3}{43}|\frac{3}{34}$ 제7위는 2|2, 제8위는 $\frac{43}{31}|\frac{34}{13}$ 제9위는 $\frac{3}{43}|\frac{3}{34}$ 제10위는 $\frac{3}{321}|\frac{3}{123}$ 이다. 발치한 다음에는 다시 21|12를 갈아 톱날상태로 되게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양측의 상악 또는 하악 송곳니를 뽑아버리는 자가 90% 이상이고, 우리나라 발치풍속은 양측 대칭인 측절치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풍속발치는 중국과 일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기타 몽골, 남북미주 대륙, 아프리카, 동남아, 시베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폴리네시아, 영국 및 프랑스의 고대에서도 발치하는 풍속이 있다.¹³⁾

5. 발치 동기

민족에 따라, 발치동기와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진(晉)나라 장화가 쓴 <박물지>에, “형주 서남 경계로부터 촉까지 여러 민족의 관리들은 모두 상악치아만 하나 뽑아 신분을 나타냈다.” 송(宋)나라의 <태평환우기>에는 “관리부인들은 위의 치아를 발치해서 개의 치아처럼 되어야 아름다운 장식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발치이다.

당(唐)나라 두우가 쓴 <통전, 변방 삼만>에는, “적구박은 영창 남쪽에 있는데 그 풍속은 치아를 깨어놓고 입술을 붉게 한다.”하였다. 영창은 지금의 운남성 보산현이고 적구박에는 아직도 치아를 끊고 입술을 물들이는 관습이 있다. 통환홀료족은 치아를 치는 풍속이 있다.

원(元)나라 주치중 <이역지>와 역시 원(元)나라 제경이 쓴 <운남지략>에는 “토로만남자가 14,15세가 되면 좌우로 두 치아를 쳐낸 다음에 장가든다.”하였다. 대만 <장화현지>에는 “여자는 남편이 있으면 옆에 두 치아를 잘라내는 것으로 다른 남자와 내외한다.”이는 혼사를 위한 발치이다.

<대청일통지> 대정부묘만조에는, “평원주에 있는 다치 홀료족은 여자를 시집보낼 때 반드시 먼저 그의 두 개 치아를 뽑는데 그것은 남편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서이다.” <귀주통지>에는, “타치홀료족은 시집보낼 때 반드시 먼저 그의 치아 2개를 잘라낸다. 그것은 남편을 상하게 할까봐 염려해서이다.” 하였다. 이른바 치아를 잘라내는 민족이다.

이는 남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발치이다.

청(淸)나라 <동서천지>에 “타치홀료족은 부모가 죽으면 아들과 며느리는 각기 2개의 치아를 잘라서 관 속에 넣는다.”하였다. <대청일통지> 귀양 부묘만조에는, “부모가 죽으면 아들, 며느리는 각기 두 치아를 잘라서 관 속에 넣으면 이별하는 것으로 여긴다.” 하였다. 이것은 부모를 위해서 상복을 입는 것(服喪)처럼 발치하는 것이다.

<신당서> 남만전에는 “료지에는 장이라는 병이 많아서 이 병에 걸리는 자는 약을 못먹기 때문에 스스로 치아를 빼낸다.” 하였다. 이것은 입벌리기 곤란해서 약먹기 쉬우라고 발치하는 것이다.

춘추시대 <관자>중에 발치 문제와 관련된 기재가 있는데 “옛 사람이 오간에서 전쟁을 할 때 치아를 갈지 않은 자는 군대에 못나가며 나라의 아들들은 치아를 자르고 간국을 따르는 자가 많다.”하였다. 이것은 당시 간과 오가 서로 싸울 때 간국에서 규정하기를 “유치를 완전히 갈지 않으면 참군 못한다.”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유치를 빼고 참군한다. 이것은 치료를 위한 발치가 아니고 군대에 참

여하기 위해 발치한다.

6. 발치방법

문헌 관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발치는 청춘기인 15-18세이다. 뽑는 방법은 많지만 검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석기시대에는 검자가 없는 것이 그 주요원인일 것이다. 고대 발치 방법은 필자가 문헌에서 본 바에 따라 대체적으로 아래 5가지로 나눈다.

- (1) 실 또는 삼노끈 따위로 치경부에 매서 신속히 세게 힘을 주어 빼낸다.
- (2) 적당한 석기를 치아에 놓고, 다른 한 석기로 쳐서 뽑는다.¹⁴⁾(그림 2-28)
- (3) 치아를 활시위에 매서 활시위를 당겨 뽑는다.
- (4) 직접 칼, 도기 등 공구로 쳐서 뽑는다.
- (5) 건륭, 가경시대의 <반묘화책>에 그려진 <타아도>에는 술자가 환자 앞에서 손에 방망이 한쪽을 쥐고 치아에 다른 한쪽을 댄후 다시 망치로 방망이 한쪽을 쳐서 이를 뽑는다.¹⁵⁾(그림 2-29)



그림 2-28. 오스트렐리아인이 발치하는 그림
(산기청 <치아의 민족문화> 1943)



그림 2-29. 타아 홀료족이 발치하는 그림
호출일랑<반묘화집>

DENTISTRY

For healthy and happy smiles

Title and plan	1
I DENTAL HISTORY AND THE CELEBRITIES OF DENTISTRY	
I-1 Ancient Dentistry - Drifting between reality religion	7
I-2 Dentistry of the Middle Age - God died, but the toothache is alive	3
I-3 Dentistry of the Modern Age -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ghting against disease	7
I-4 Dentistry of the Present Age - implant and tooth transplant,	1
II STRUCTURE AND FUNCTION OF ORAL CAVITY	
II-1 Structure of Oral Cavity - All road leads Rome, all food pass through the mouth.	1
II-2 Morphology and Functions - The oral cavity is the center of maxillofacial area	1
III DENTAL DISEASE AND TREATMENT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disease are closely related	11
III-2 Treatment of Dental disease - Sound teeth for a sound body.	13
IV DENTAL EQUIPMENT AND DENTAL MATERIALS	
IV-1 Dental Equipment - Freedom from fear	3
IV-2 Dental Instrument - The gradual development of instrument	3
IV-3 Dental Material - To make all materials used for treatment	3
V EDUCATION OF DENTISTRY	
V-1 Dentist - Healthy smiles for all	1
V-2 Dental Hygienist - Violet angels	1
V-3 Dental Congress - World in your arms	3
V-4 Department of Dentistry - For the better treatment of teeth	2
V-5 Association of Dentists - The unity of dentists	2
V-6 Dental Show - Leaping towards a healthier world	1
VI THE CARE AND EXTENSION OF ORAL HYGIENE	
VI-1 Dentifrice - Toothpaste is not a luxury but a necessary	5
VI-2 Tooth Brush - The best way the take care of teeth	4
VI-3 Mouth Rinse - Rinse your mouth when you are busy	1
VI-4 Gum - Let's chew at least thirty minutes	1
VI-5 Regularly Visit of Dental Clinic - The only clinic you should visit regularly	2
VI-6 Use of Fluoride - You can prevent decay simply by drinking water	1
VI-7 Teaching and Maintain of Hygiene - Dental hygiene can't be overemphasized	1
Epilogue	1
Total	80

I. DENTAL HISTORY AND THE CELEBRITIES OF DENTISTRY

I-1 Ancient Dentistry - Drifting between reality and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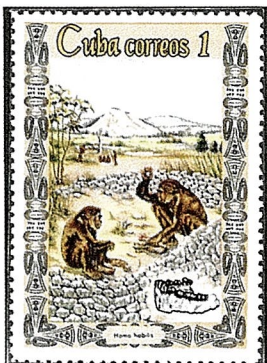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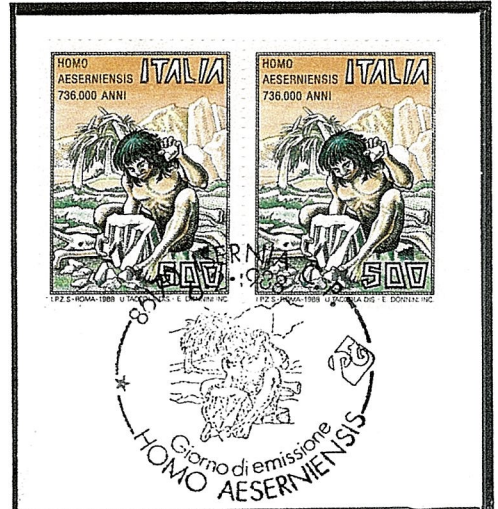
The primitive form of dentistry seems to have appeared along with magic at the time of the delusive age which witnessed the first advent of the Homo-Sapiens Linna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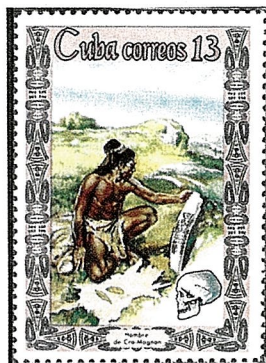
Choppers & scrapers excav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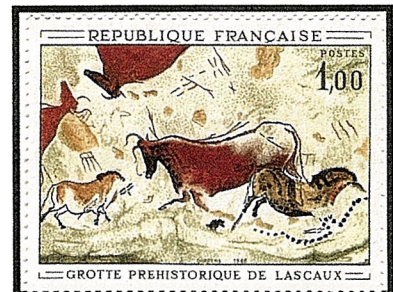
Life style of Homo-Sapiens



Skull of Ancient age



Religious customs & worship of prehistoric time



Collective hunting was commonly accompanied by damage to the teeth, among other injuries. Holes in skulls have also been found, which show evidence of lengthy post-operative healing processes.



Hunting



Joint works

Dental treatment in the ancient time was considered a divine empowerment, a charm or skill practised by patriarchs or magicians. The above picture refers to a solar calendar. *lettercard of Mexico*

I-1 Ancient Dentistry - Drifting between reality and religion



Dental treatment in the ancient Egypt, India, China, Babylonia was the result of long accumulated experience, which has been passed down and further developed into modern times as folk medicine.

Huotuo/A.D.250 operation using anesthesia called Mabisan.

Yin and Yang(陰陽), the symbol of Chinese medicine represented by the Great Absolute/design of Tae-geuk



Design to represent the yin and yang(陰陽)/1884 Korea (Choseon)

Yin & yang of divination used as a emblem/1945 korean flag Tae geuk gi



Pakua in 4corner of stamps(4c, 6c) of Empress Dowager Jubilee 1897

The five elements of tree, fire, soil, iron, water lose balance to give rise to diseases.



Pakua(八卦) of divination used as a date. stamp /1897China



Oriental medicine which was mainly derived in China, treats philosophy, scholarships, and the human body as one entity. The five elements school says that the cosmos is dichotomized into Yin and Yang.

Pakua postmark - Shanghai combination Postal card 1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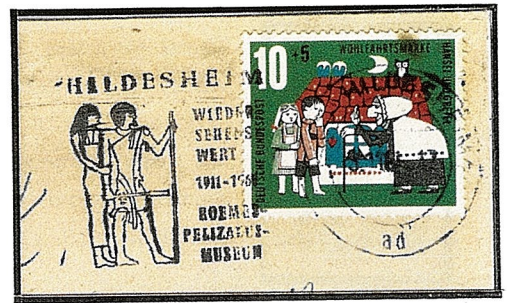
I-1 Ancient Dentistry - Drifting between reality and religion



Mummy/mirra pyramid



Nubia in Egypt rem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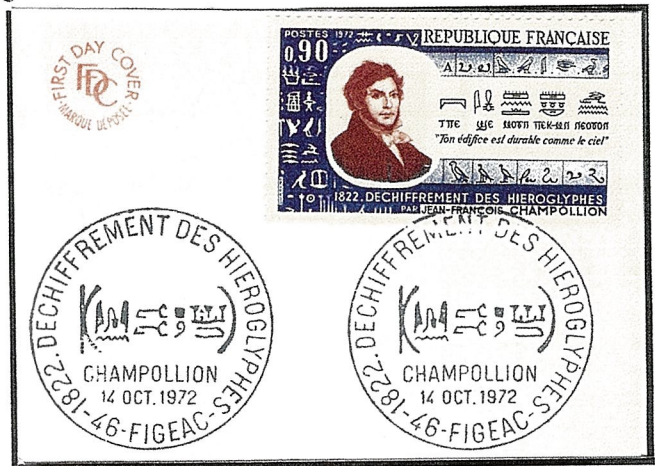


Painting at papyrus

The ancient Egyptians showed a high degree of the medical skill, which was realized in the mummies contained in the pyramids



Papyrus



J. F. Champollion/1790-1832 and hieroglyphic

Based on similarities to the P. L. O of Cleopatra. J. F. Champollion deciphered the Rosetta stone and the hieroglyphic characters, which in turn led to the discovery that in the fifth Kingdom/B.C2700 there were dentists and medical doctors in the palace as pri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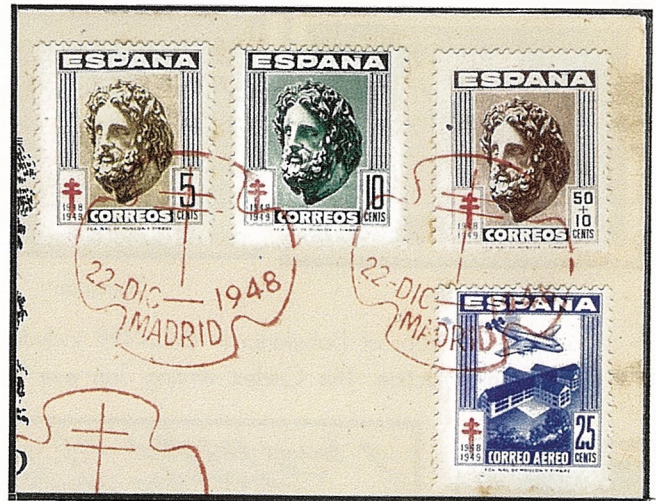


The above stamps found in pyramid show that mummies and papyrus are not merely.

The doctors of that era were educated to be life-long priests. / *Maximum Card in 1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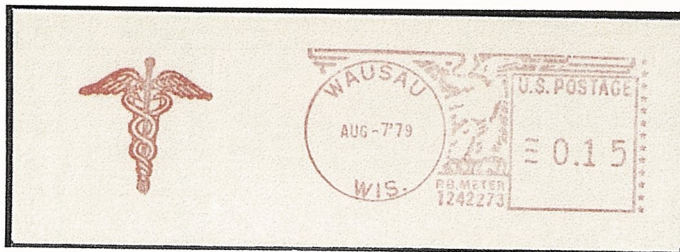
I-1 Ancient Dentistry - Drifting between reality and religion

The ancient Greek medicine is closer to modern medicine, and most of the current dental vocabulary is from Greek. It has been developed further with the help of scientific reasoning



Asclepius. was described as bearing a rod around which a snake was coiled presenting wisdom and hea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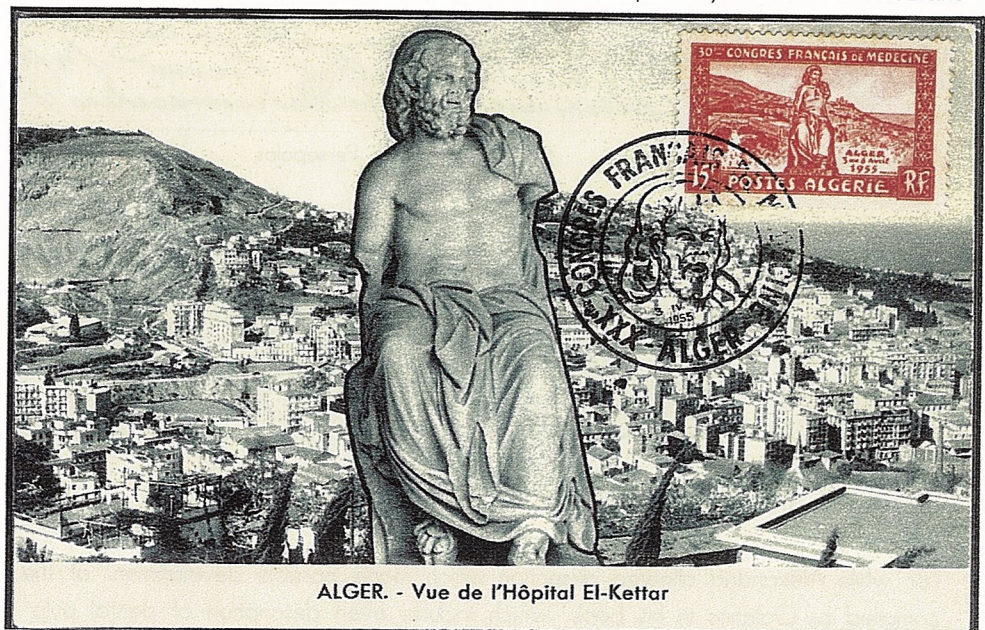
A temple to Asclepius was built on a river-bank, where priest prayed to Asclepius to be healed from diseases including toothache. The treatment included rest and diet.



Symbol of medicine



Asclepius lived in about 1300 B.C. and was taught by Chiron about the healing arts. People began to pray to Asclepius from 5th Century. The staff of Asclepius has been accepted symbol of the Medicine.



ALGER. - Vue de l'Hôpital El-Kettar

Maximum Card

I-1 Ancient Dentistry - Drifting between reality and religion

Cuneiform on one of the clay tablets found in the Kingdom of Sumer between the Euphrates and Tigris rivers show that there existed a profession of medical doctors who cured disease.



Clay tablets



Sumerian



Sumerian Cunei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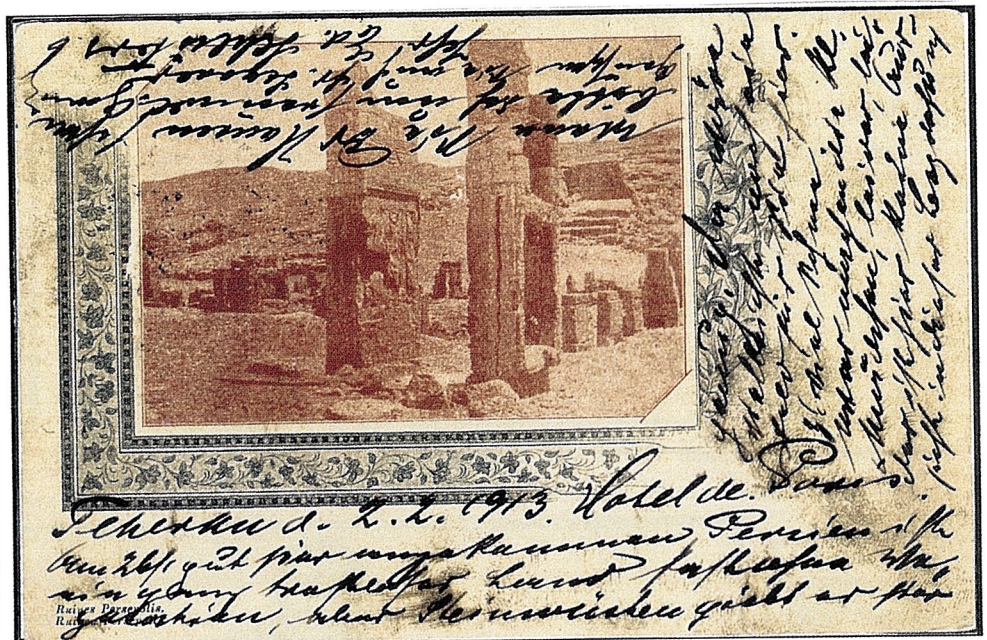
Codex Hammurabi of Babylonia in B.C.2250 include payments for medication and punishment for malpractice. This Codex writing "an eye for an eye, an teeth for an teeth"



Remains in
Babylonia



Codex Hammurabi of Babylonia



Babylonia remains Persepolis

Postal card



Emperor Alexander/356-323 B.C & Oriental expedition for Alexander

Galenos/130-201A.D.

For while Alexandria allowed dissection, which made possibl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which was compiled by Galenos in his book, which include even description of dental pulp and dental structure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reference in medicine for more than 1000 years until the Renaiss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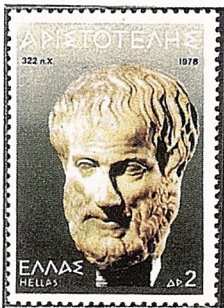
I-1 Ancient Dentistry - Drifting between reality and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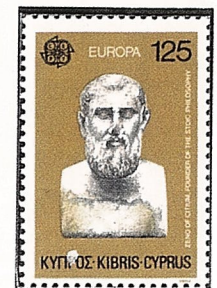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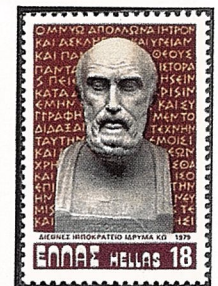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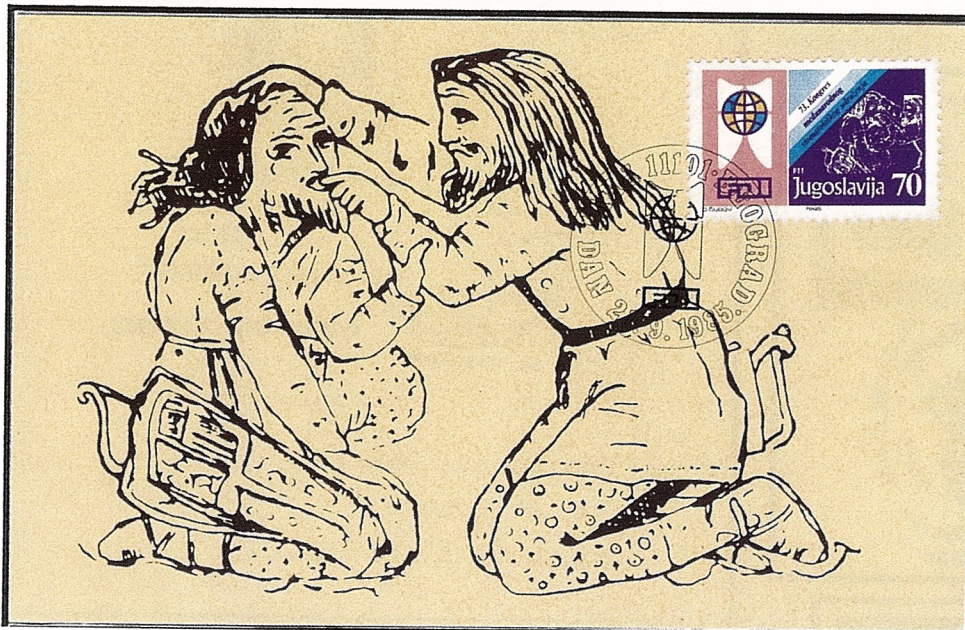
In the fifth century, medicine became to be separated from the philosophy by Hippocrates and scholar of the Kos school, and it began to be considered a natural science to be developed into current form of medicine. Divided all disease into epidemic and constitutional dominated medical thinking for 2000 years



Hippocrates/B.C.460-B.C.377 wrote a book named *De Epidemic*, which relates the dental disease with the disease of the body in general. Those who live a long life-span have healthy teeth.



Aristoteles/B.C.384-B.C.322 tried to understand the body including the oral cavity and the teeth and teeth structure maxilla and mandible through dissection of animal/anat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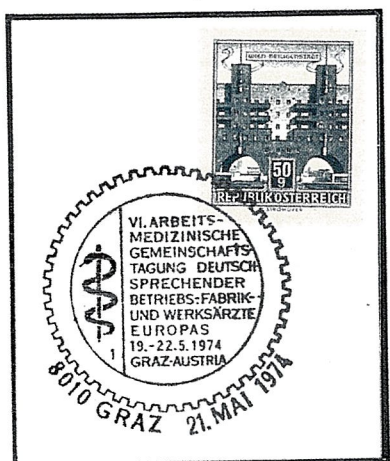
Hippocrates believed that problems with the teeth arose from a natural predisposition or an inherited weakness and the disease could be naturally cured through the balance of physis. Extraction was to be considered only when a teeth was loose, from operation was regarded was fraught with danger.

I-1 Ancient Dentistry - Drifting between reality and religion

Saint Apollonia is considered the patron saint of dental medicine. She was martyred in Alexandria while preaching Christianity. She kept her belief even as her jaw was crushed and teeth uprooted, until finally she was put to death by fire on Feb. 9, 249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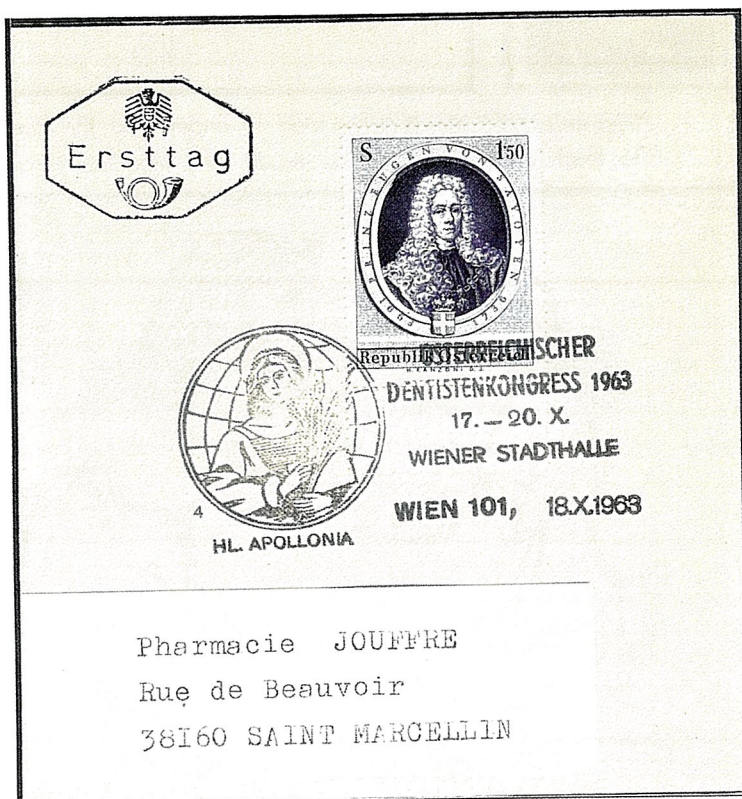
St. Apollonia



Commemorate people of medicine



St. Apollonia was an object of worship for people who prayed for the cure of dental dis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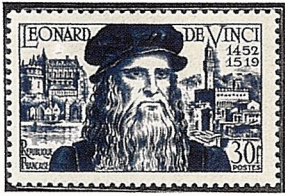


Apollonia was martyred in Alexandria

Apollonia was sanctified in 300A.D. the Roman Catholic Church St. Apollonia began to be worshiped as the patron saint of dentistry in the 16 Century.

I-2 Dentistry of the Middle Age - God died, but the toothache is alive

The middle ages blocked the progress of medicine. However, imported knowledge from the Saracen helped people become more open-minded, an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made progres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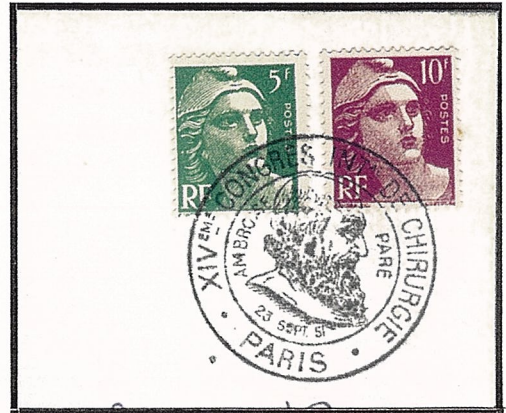


Leonardo da Vinc/1452-1519

Ambrose Pare/1510-1590 Among his contributions to dentistry was the introduction of Obturator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cleft palate & cleft lip



Ambrose Pare



Willam Harvey



Andress Vasallius



Paracelsus



Willam Harvey /1578-1637 discovered the true mechanics of blood circulation in 1602

Vasallius/1514-1564 wrote seven books on body structure, in which he deals with name and structures

Paracelsus/1493-1541 refused to accept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medicine and tried to develop chemical or chemical treatment. He also created an *amalgam using mercury/amalgamization*

easier than former editions; the whole arranged in a more convenient manner. The Author, whose whole time and talent is devoted to this work for the last twelve months of the above Work, in two books, 10s. 6d. each. HILL; and Whittaker and Co. Ave Maria Lane.

EXTRACT OF FLOWERS, BY R. L. and J. GIGGE, Perfumers to the Royal Street. This Extract is a delicate Perfume pleasant appendage to the Toilet; in which are included, and other Flowers, are judiciously selected.

TEETH.—Old Burlington Street.—A For LOSS OF TEETH consult Mr. MORGENTHAU, who has succeeded in above one hundred instances where other members of the Profession have failed. Mr. Morgenthau, in returning thanks for the decided preference they have shown to him in a Profession so abounding with Pretenders, his many Improvements invites them to try his Mineral Teeth, which are so firmly constructed that they break off, they are, at the same time, as to defy even the Profession to decay; and above all, warranted never to decay to the wearer; and, to convince the Public, quantities of sets and partial sets, in all seen. A complete set of natural Teeth, beautiful Gums, of most exquisite Tint, 10 Guineas; fine gold, 10 Guineas; a complete Set of the Shade or Colour, 20 Guineas, the same as the Surgeon-Dentist, 13, Old Burlington Street, signer, and Maker of Artificial Teeth for 10 years. N.B. All Consultations free.

Berdoe's New Light Wat
THOROUGHLY IMPERVIOUS TO
CONFINING PERSPIRATION
Light Summer Clothing

A real luxury for the warm weather. Both in the best manner, from the same material, (which is) extremely durable, free from singularity of design. First-rate Clothing of every description, proofed, without confining perspiration, or property whatever.

WALTER BERDOE, Tailor, 69, C
Patterns, Prices, and Directions for Measure on application.—All Country Parcels sent by Post.

Printed by I. PAGE, Atlas Press, Horse

W. MULREADY, R.A.

POSTAGE ONE PENNY.

Hospital at the Middle age/dental clinic advertising at inner surface

Mulready sheet

I-2 Dentistry of the Middle Age – God died, but the toothache is alive

Saracen and china developed their own dentistry, which was so highly skilled their even today dentists



use the same method. Canon wrote many books on dentistry, including Gold Foiling, scorching the inflamed area, fixing loose teeth, and opening the pulp chamber. Some of the techniques he developed are still in use.

Avicenna /980-1037

Alchemy in Sarac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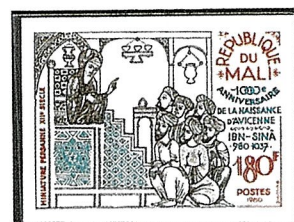
Maimonides /1135-1204



Razès



Father of Medicine/Hippocrates & Avicenna



Avicenna & medical education

Razes/860-932 asserted for the first time that extracting teeth should be avoided except as a last resort. He began filling dental caries. He also put into use the skills developed by Saracen dentists such as Canon. Avicenna, Abulkasim, Ali-Abbes. There are design and using dental forceps.



Avicenna found that toothache comes from not only den caries but also from calculus, initiated scaling.

I-2 Dentistry of the Middle Age - God died, but the toothache is a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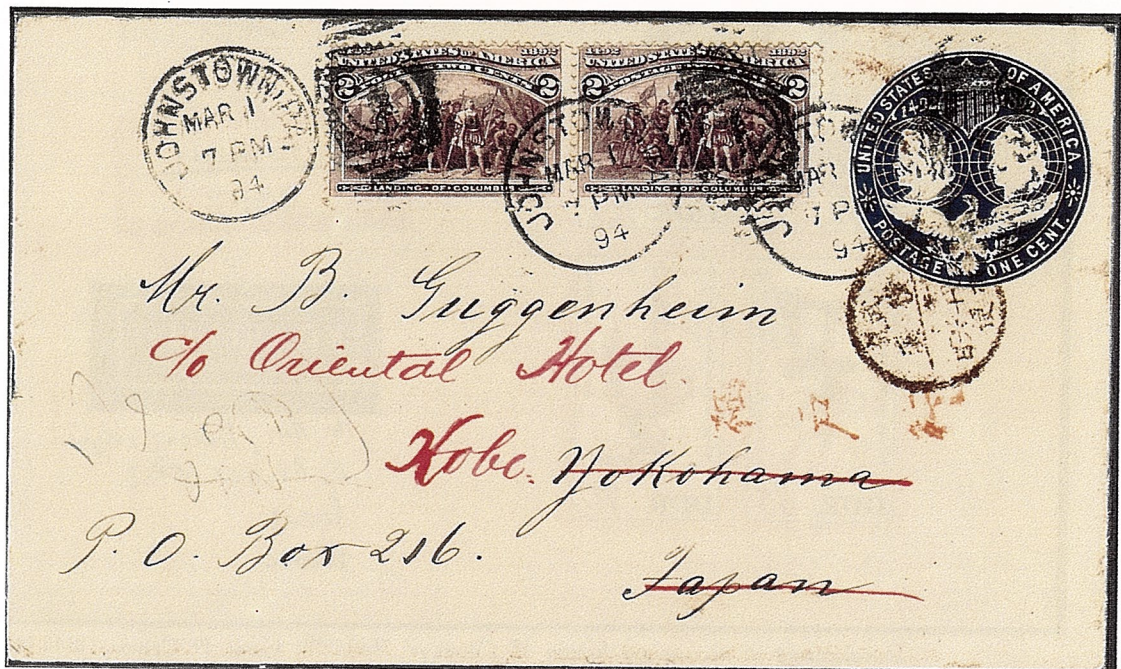
Tobacco from the new world is still most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 Promiscuity brought syphilis on a large scale to Europe.

The aspiration for a new world made it possible for Columbus/1446-1506 to discover America in 1492, but it also imported syphilis and tobacco, which is most inducive of the oral cancer, teeth defect with syphilis.

Christopher Columbus/1446-1506



Postal card of Chile 1921.



Imprinted envelopment of 1892, to Japan 1894

1-3 Dentistry of the Modern Age-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ghting against disease

Scientist and medical doctors contributed greatly to happy life, public health after the Renaissance. The microscope was introduced by Z. Jensen around 1590.



Microscopic finding of bacteria and vi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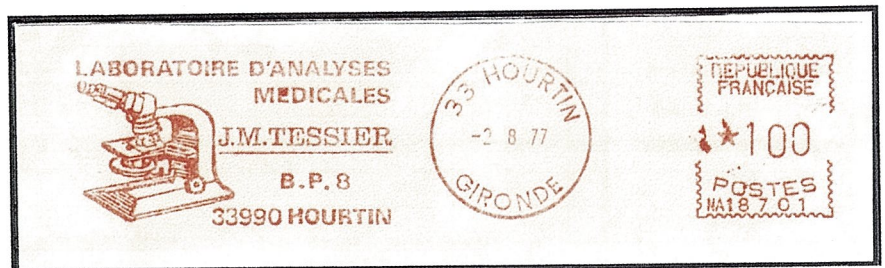


Leeuwenhook

Antony van Leeuwenhoek 1632-1723 improved the quality of the microscope and made it possible to see the microorganism on the surface of teeth dental tubule, and structure of muscle radicular fibers. It also initiated microbiology.



Microscopic research during the 17th Century



became the basis of the drastic development of the 18th and 19th Century medical revolution.



Development of microscope (upper 18 Century/ 1740,1751, lower 19 Century/1845,1873)

The first microscope magnified an object ten fold, but mid-17 Century magnified an object 200 times.

I-3 Dentistry of the Modern Age-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ghting against diseases



Johann Wolfgang
Goethe /1749-1832



A writer and naturalist from Frankfurt, found middle jaw bones located right below upper jaw bone (maxilla) in 1784. This is a pair of independent bones which allows the eruption of the incisors.

This bones were supposed not to exist in human beings. It was found that they



they are pair of independent bones at infancy, but after birth they are merged into the upper jaw bone. This discovery by Goethe refuted the assertion that the human beings are difficult from monkeys from the point of view of evolution. This discovery is considered so important that the bone connected to the "Os incisivum" is still called Goethe's bone.

Goethe's bone



Goethe had many great achievement, and the house of his birth is still kept open for vis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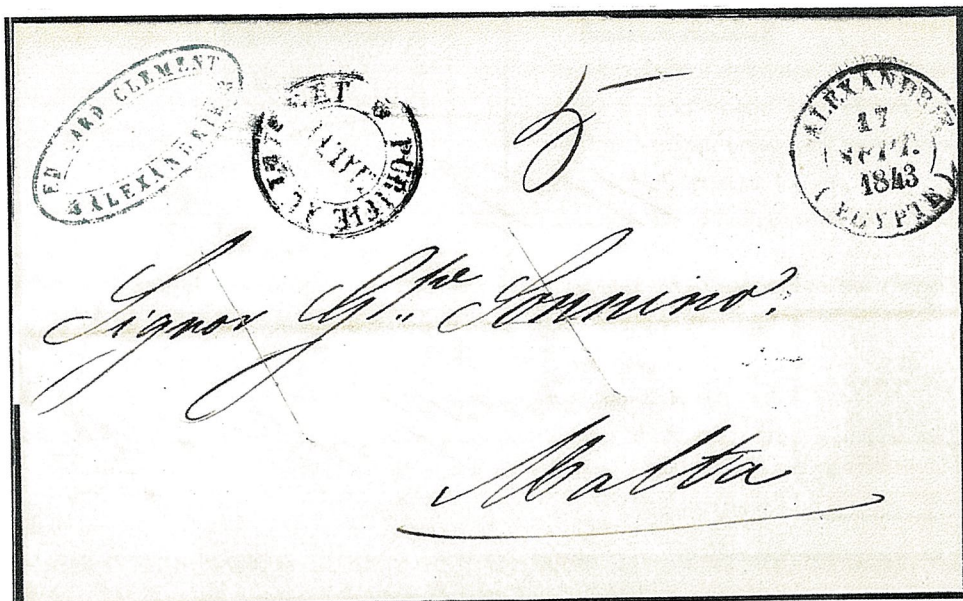
1-3 Dentistry of the Modern Age-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ghting against diseases

The modern philosophy of enlightenment influenced the medicine to be more concerned about the public health including the oral health, and consequently to make the environment clean by getting rid of fleas and rats.

Even the postal services are under insp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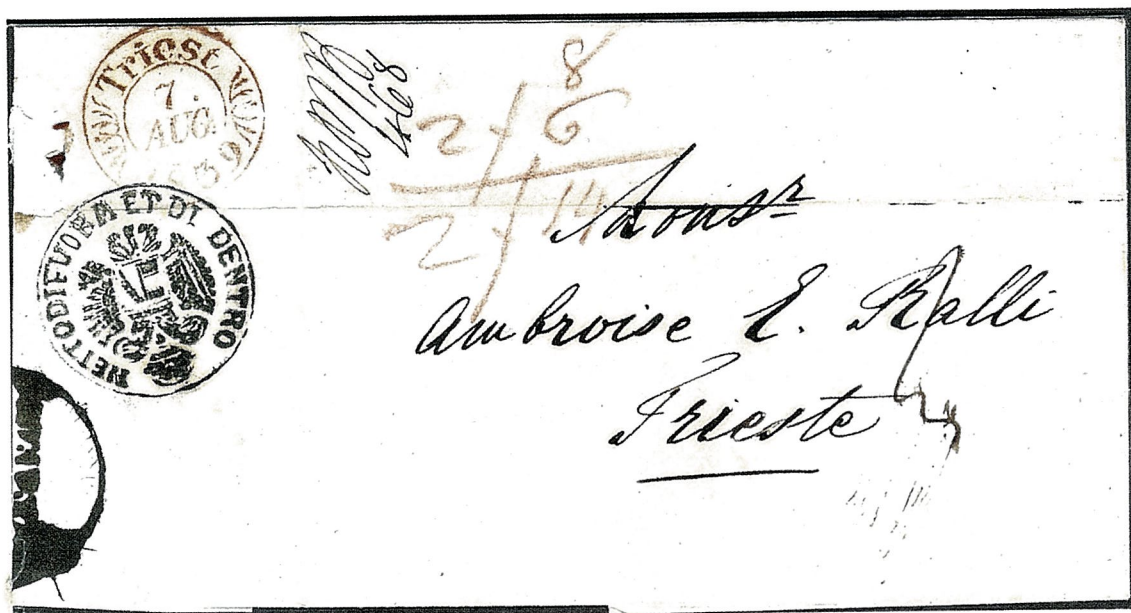


During epidemics letters were handed over with a stick and mail was disinfected.



Disinfected at Malta by fumigation two slits, letter from Alexandria 1843

disinfected c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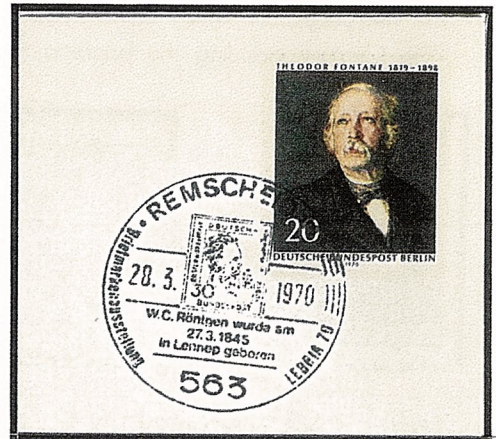
Disinfected under with quarantine regulation at Triest "clean inside & outside" 1839

disinfected cover

I-3 Dentistry of the Modern Age-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ghting against diseases

Wilhelm C. Roentgen/1845-1923 found a flash of light and named it the X-ray, while he was experimenting with high voltages of electricity passing through a vacuum tube on day in the fall of 1895

W.C. Reontgen was born
27th. Mar. 1845 in Lennep



Received the Nobel Prize in 1901,

Study of New kind of Ray
It called Reont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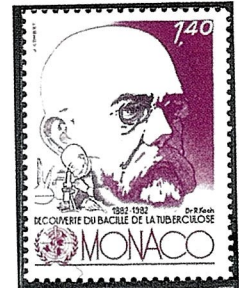
W.Konich(dentist) measured the size of alveolar bone in tooth root & pulp canal in 1902 at Frankfort



The use of the X-ray was expanded, ranging from the human to the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3 Dentistry of the Modern Age-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ghting against diseases

Since Leeuwenhoek's discovery of microorganism an extensive search has been undertaken to find the microorganism which cause disease. Most of the bacteria were foun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cluding the bacteria that cause dental c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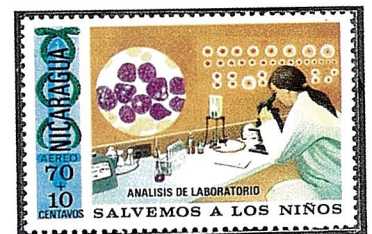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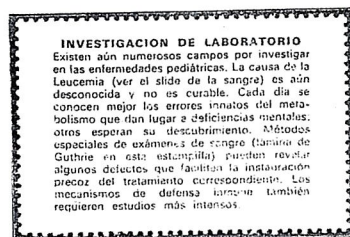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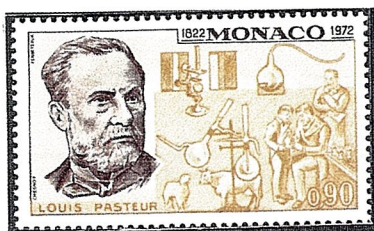
Robert Koch/1843-1910 succeeded in finding and culturing the bacteria causing tuberculosis in 1882 and the bacteria causing cholera in 1883 this success made it possible to find cures for the disease.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1905



Louis Pasteur

Franch booklet

Louis Pasteur/1822-1895 found that both the fermentation and decay of wine were caused by microorganism. He also developed pasteurization & techniques for preventing hydrophobia & anthrax.



Described Gram stain

Willoughby Dayton Miller 1853-1907 dentist and a student of Koch, carried out research on den. caries and proposed a chemicoparasitic theory in which he asserted that decay are caused Streptococcus mutans, Lactobacillus, acidophilus etc. and acid produced in the process and decomposition of food.

學會消息

▷2003. 12. 2

원로초청 간담회 · 김평일 의료문화상

▷학술집담회 schedule

3월 신재의, 5월 조영수 · 최창균, 9월 김평일, 11월 변영남 연대치대 특강

▷2004. 1.

신재의 학술대상 추천, 치과의사윤리선언 문안채택

▷2004. 2.5.

국시원토론회 (김관식 소장)

「치과의사국가시험 과목 타당성 연구에 관한 토론」

지식 평가 뿐 아니라 태도 및 기술수준(임상평가)

태도영역 - 의료윤리 (의료인간학, 의료관리, 의료정보)

▷2004. 3. 26.

정기이사회 3월 26日(金) 오후 7시 프레스센터

1. 이주연, 신재의 공로패

2. 임원개선 : 변영남회장 연임, 감사 허정규, 이시우

3. 치협학술대회시 문화전시 준비 (AT센터)

4. 연회비 5만원

▷4월 정기이사회

1) 의철학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김수남 위원장, 강신익, 권호근 위원

2) 서치회사편찬위원 참여 (이병태, 신재의, 변영남)

3) 서치 윤리강령 준비위원회 참여 (신재의, 변영남)

4) 연대치대 강의 폐강 대책논의

5) 원로초청간담회 강릉치대 한송교수 면담

6) 국시토론회 김관식 소장 초청

7) 신재의, 신인학술상 추천,

8) 임원구성 : 부회장 : 김평일, 임용준, 이준규, 총무, 재무 : 최창균, 학술이사 : 조영수 기타 유임

9) 한국의료평가원 설립대비

10) 국시원 과목조정시 의사학삽입 노력

11) 협회학술대회 문화전시 참여준비

12) 의사학 교과서 강의내용 통일, 김재훈 회원 위문 방문 : 김종만, 이병태

13) 연대치대 학장, 공문발송 의사학 강의 복강요청 (사과전화 받고 강의 복강 힘쓰겠다는 언약했음)

▷ 4월 19日 회장단회의 개최

▷ 5월 28日 학술집담회

(최창균, 조영수)

▷ 6월 이사회

서울치대, 경희치대에 의사학강의 존속요청 (서울치대 김중수 학장, 경희치대 박상진 학장, 이기수 교수 면담)

협회지 논문 심사위원 추천 (변영남, 이병태, 신재의, 이종찬, 김평일)

이병태 선생 : 삼성의료원 특강 (연제: 한중일 치의학 교류사)

▷ 9월 김평일 학술집담회

▷ 10월 정기이사회

협회비, 년회비 미납자에게는 학술집담회시 연자 및 점수 인정 안하기로 함.

▷ 공지사항

서울치대 본2. 치과의사학 강의 2학년 삽입결정, 경희치대 치의학 대학원에 사회치과학 과목으로 치과 의사학 강좌신설,

김재훈 선생 위문방문 박승오, 이병태, 변영남.

▷ 공지사항

1. 학술진흥재단 등재 여부 : 불필요 결정
2. 학회지발간 (우표역사 포함)
3. 학술집담회 11월 14일
4. 기초치의학회 학술대회 참여 (연자 조영수)
5. 박승오원장 아들 결혼
6. 치의학회 소식지자료 협조
- 7) 한림원 기초과학 선도과학자 및 연구분야추천 요망 (해당자 없음)

▷ 11월 5~6일 기초치의학협의회 제3회 학술대회

코엑스 개최 조영수 “20세기초 미국치의학교육 개혁과 구강학운동” (Dental education Reform and Stomatologic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 11월 14일 정기학술집담회

연자 변영남 (학교구강보건의 발전과정)

▷ 11월 23일 치의신보 주최 올해의 치과인상 추천의뢰 (해당 없음)

▷ 12월 정기이사회 (2004. 12. 17)

▷ 학술집담회 계획

- 1) 3월 이한수선생님 좌담회 (치과의사학회의 나아갈 길, 해야할 일)
5월 원로초청 간담회 (1950년대 부산피난 시절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9월 신재의 (광복 후 치과의사회 설립과 활동)
11월 김규문, 변영남
- 2) 학회지발간 원고, 역사 우표 16쪽 (원색 : 경비 1244,000원) 학회지 제작비 250만원 소요.
- 3) 대학교육 평가위원회 : 평가기준에 의사학강의 반영.
- 4) 1950~1953 중심 1950년대 자료부족, 좌담회 개최

會員動靜

회원 여러분의 동정·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리고자 하오니 수시로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李漢水(本學會終身名譽會長) : 齒科研究誌의 〈이달의 休憩室〉欄에 二百字原稿紙 30~35枚 정도의 분량을連載中이다.
- ▷金正均(本學會名譽會長) : 2004년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동부인하여 밀포드 트래킹 하였다.
- ▷李丙台(本學會名譽會長) : 2004년 3월 3일<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6월 9일<수> 본1 치과대학 강의 (대학 중강) · 2004년 5월 27일<목>, 6월24일<목>: 삼성병원 치과부(치과의사학)특강 · 2004년 7월 15일: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보철학 동문회, 중국 연변구강학회 제 2회 인민병원 합동 학술발표회/주관(중국조선족지치주, 연길) · 2004년 8월 28일~29일: 치의학교류 협력차 금강산 온정 인민병원 방문 · 2004년 9월 26일~10월 3일: 중국 길림성 연변 제2인민병원 구강과 및, 1 중국 흑룡강성 밀산 구강병원에서 '치의학용어' 특강 · 2004년 10월 22일<금> 대한치과문인회 창립, 부회장에 피선.
- ▷朴勝五(本學會名譽會長) : 2004년 10월 28일 장남 준서군, 삼성동 공항터미널에서 결혼식(주례·김진홍 목사) · 2004년 4월 시청앞 광장 명칭 현상모집에 응모. 「서울광장」 공식명칭으로 공동 당선.
- ▷任慶彬(本學會名譽會長) : 서초구 사회복지과와 서초구청(보건소)에서 실시한 노인들니 장작봉사에서 공로가 인정되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랑이 있어 따뜻한 서초구” 를 빛낸 감사의 표시로 “사랑이 꿈꾸는 치과” 를 주제로 서초구 마크가 색여진 패(기존의 패와 다름)를 연말 망년회 석상에서 받았다.
- ▷辛在義(本學會直前會長) : 「일제강정기 치과의사회의 설립과 활동」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2권 제2호, 2004 · 「한국근대치과의사의 등장과 진료」 사학, 제36집, 2004 · 「알렌의 의료활동과 제중원의 설립」 연세의사학 제8권 제1호, 2004 · 「한성치과의사회와 구강위생계몽활동」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2권 제10호, 2004 · 「일제강정기의 치의학과 그 제도의 운영」 의사학, 제13권 제2호, 2004
- ▷邊榮男(本學會會長) :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성가복지병원 무료진료 활동 · 2004년 3월 23일 치의학회 감사 · 2004년 7월 협회지 논문심사위원으로 추천 · 송파구 문정동 삼성레미안 A 102동 301호(전화 448-8854)로 자택 이전.
- ▷金平一(本學會副會長) : 2004년 6월 9일 장충단공원에서 개최된 69행사 현장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 授與.
- ▷趙英洙(本學會學術理事) : 2004년 7월, 치과의원(백상치과)을 종로구 내수동 72번지 (경희궁의 아침 3단지 302호=730-2203)으로 이전 · 2004년 11월 3일 제3회 대한기초치의학학술대회에서 “20세기 초반 미국의 치의학 교육 개혁과 구강과 운동” 을 주제로 연제를 발표..

發 祝 展

이병태치과의원

원장 이 병 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5
(로얄빌딩 지하상가 64호)
전화 : 736-0445

신라치과의원

원장 임 경 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4
(파레스오피스텔 205호)
전화 : 3482-2828

신재의치과의원

원장 신 재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1166
(반포 아파트 M동 201호)
전화 : 533-2875

성신치과의원

원장 변 영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20-7
전화 : 967-8854

김평일치과의원

원장 김 평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11-1
(강남상가 6-202호)
전화 : 2634-0406

임용준치과의원

원장 임 용 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4동 295-320
전화 : 2212-7447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終身名譽會長：李 德 一(이덕일치과의원) 監 查：許 正 圭(중앙치과의원)
"：李 漢 水(齒科研究編輯指導委員) "：李 時 雨(이시우치과의원)

名譽會長：金 正 均(김정균치과의원)
"：李 丙 台(이병태치과의원) 學術誌 編輯委員會
"：朴 勝 五(박승오치과의원) 編輯委員長：李 丙 台(이병태치과의원)
"：任 慶 彬(신라치과의원) 編輯委員：裴 珖 植(서울치대)
"：鄭 鎭 亨(단국치대)
直前會長：辛 在 義(신재의치과의원) "：金 熙 眞(연세치대)

會 長：邊 榮 男(성신치과의원) 非常任理事：裴 珖 植(서울치대)
副 會 長：金 平 一(강남치과의원) "：金 熙 眞(연세치대)
"：林 鎔 準(임용준치과의원) "：李 興 洙(원광치대)
"：李 俊 奎(이준규치과의원) "：鄭 鎭 亨(단국치대)
總務理事：崔 暢 均(온누리치과의원) "：姜 信 益(강릉치대)
學術理事：趙 英 秀(백상치과의원) "：金 景 哲(경북치대)
財務理事：崔 暢 均(온누리치과의원) "：洪 禮 杓(홍치과의원)
公報理事：鄭 基 芳(성심치과의원)
企劃理事：洪 景 澤(홍경택치과의원)
國際理事：朴 永 濬(박영준치과의원)

투 고 규 정

1. 본지는 치과의학사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 종설, 논문 등을 게재한다.
2.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임의로 타지에 전제할 수 없다.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되 제목, 저자, 본문, 참고문헌, 초록의 순으로 한다. 한글논문에는 영문초록을, 영문논문에는 한글초록을 첨부하고 6개 이내의 색인단어(key words)를 하단에 별도 표기한다.
4. 원고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작성하고, 원고가 저장된 컴퓨터 디스켓을 같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원저 및 종설의 경우 표(Table)와 그림(Figure)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 구분은 1, 1), (1)과 같이 한다.
6. 학술용어는 한글로 하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나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기금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예) 100cm (×) → 100 cm (○)
7. 도안이나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8. 참고문헌은 각주 처리한다. 본문에는 괄호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하고 다음 양식에 따른다.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 1) 잡지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연도:권(호):시작면-종료면
(한글) 최정봉, 치학 15년의 회고와 반성, 최신의학 1960:3(12)-31-34
(영문) Suddick RP, Harris NO. Historical Perspectives of Oral Biology: a series. Crit Rev Oral Biol 1990: 1(2)135-51
- 2) 단행본 : 저자명, 저서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발행연도 : 시작면-종료면
(한글)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 민음사, 1966:480-7
(영문) Hoffman-Axthelm W. History of Dentistry, Chicago : Quintessence Publishing Co., 1980: 16-8
- 3) 단행본 속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 문헌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발행연도 : 시작면-종료면
(한글) 조현영, 동서의학 비교 비판의 필요성, 박계조, 한의학은 부흥할 것인가, 1판, 서울 : 학민사, 1997: 71-88
(영문) Granshaw L. The Rise of the Modern Hospital in Britain. Wear A. ed. Medicine in Society: Historical Essay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197-218
9.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상의하여 원고의 자구와 체제등을 수정할 수 있다.
10.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第23卷 第1號 (通卷 25號) (Vol. 23. No. 1., Series 25) 2004

2004년 12월 15일 인쇄
 2004년 12월 20일 발행

發行人: 邊 榮 男 (Publisher: Byun Yung-Nam)
 編輯人: 李 丙 台 (Editor in Chief: Lee Byung-Tai)
 發行所: 大韓齒科醫史學會(Korean Associatio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所在地: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320-7 (우)130-090, Huy Kyung Dong Dongdaimoon-gu 320-7, Seoul,
 電 話: (02) 967-8854 Tel: (02) 967-8854
 電 送: (02) 961-6470 Fax: 82-2-961-6470